

계간

ISSN 3022-0300

북한 지역연구

겨울
2025

통권 제11호

이번호 주제 : 평양(平壤)직할시

북한의 수도 평양의 역사

대동강을 문화공간으로

평양 공간격차와 도시민의 삶

문학 작품을 통해 본 평양의 역사와 풍광

평양의 교회를 찾아서

마포삼열(Samuel A. Moffett)과 평양 대부흥운동

해방 후 한국정치와 기독교민족주의자 조만식

서평-외국 유학생이 본 평양

평양 출신의 유명인

평양의 대표 음식

평양의 사람 사는 이야기

언론에 비친 평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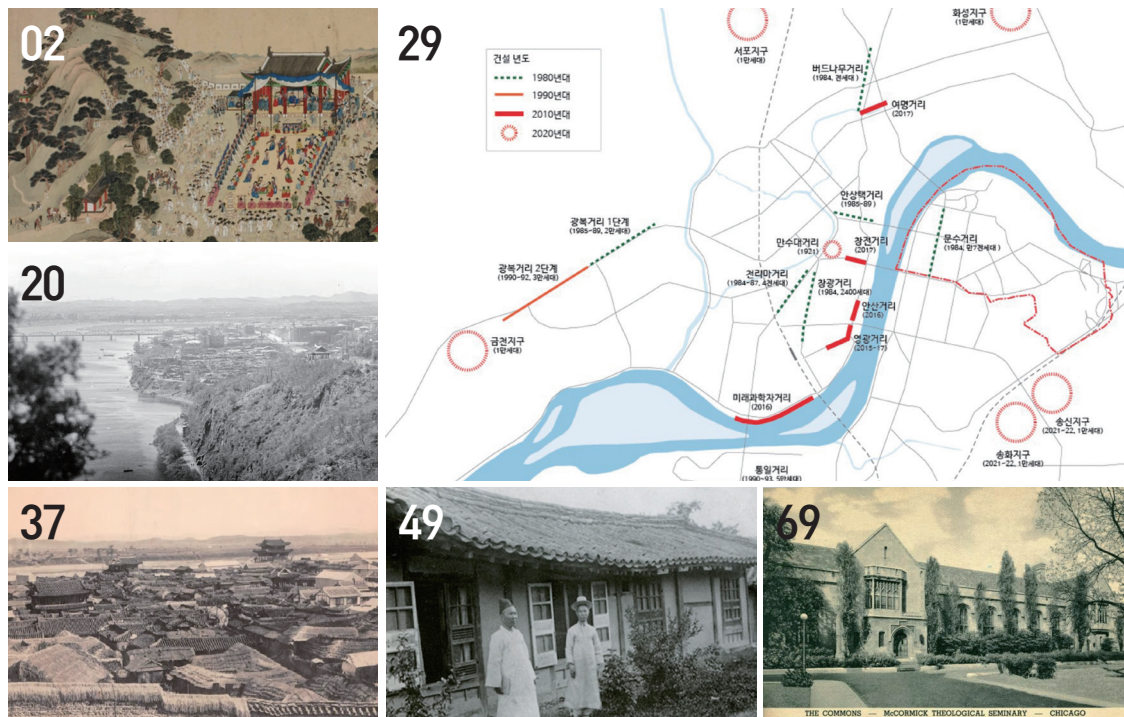


한국 오픈도어 북한전교연구소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들을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2025 겨울 통권제11호

이번호 주제 : **평양(平壤)직할시**



- 02 컬럼 1 - 북한의 수도 평양의 역사**
- 20 컬럼 2 - 대동강을 문화공간으로!_ 노현중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 29 컬럼 3 - 평양 공간격차와 도시민의 삶_ 이시호 (명지대학교 교육미션센터 연구교수)**
- 37 컬럼 4 - 문학 작품을 통해 본 평양의 역사와 풍광_ 권순금 (세명대학교 명예교수, 전 한국고전문학회 회장)**
- 49 컬럼 5 - 평양의 교회를 찾아서(교회의 전래로부터 평양 대부흥까지)**
- 68 컬럼 6 - 마포삼열(Samuel A. Moffett)과 평양 대부흥운동_ 박응규 (아신대학교/ACTS 명예교수)**



Cover Story

대동강 건너편에서 바라본 평양 시내의 모습.
뒤쪽의 높은 건물은 평양의 랜드마크인 류경호텔이며 앞쪽에는 북한의 국보 4호 대동문이 보인다.

◆ 계간 북한지역연구 ◆ 등록일 : 2023년 7월 13일
◆ 등록번호 : 중량, 바00020 ◆ ISSN 3022-0300
◆ 발행년월일 : 2026년 1월 24일

◆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E-mail : info@opendoors.or.kr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후원계좌(북한선교) 국민은행(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 76 컬럼 7 - 해방 후 한국정치와 기독교민족주의자 조만식_ 박명수 (서울신대 명예교수, 전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
- 92 서평 - 외국 유학생이 본 평양**
- 95 평양 출신의 유명인_ 기독교계 인사 / 독립운동가**
- 100 평양의 대표 음식_ 평양냉면 / 평양온반**
- 102 평양의 사람 사는 이야기**
- 110 언론에 비친 평양_ 최근 1년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평양 소식**

북한의 수도 평양의 역사

1. 들어가며

평양은 북한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로서 북한 당국은 평양을 ‘혁명의 수도’로 칭하고 있다. 평양은 고조선과 고구려의 수도였으며 고려시대에는 개성에 뒤이어, 조선시대에는 서울에 뒤이어 각각 두 번째 도시의 지위를 유지했다. 북한 정권 수립 이후 1972년도까지 북한의 헌법상 수도는 서울이었고 평양은 임시로 수도의 기능을 하는 도시로 구분되었으나, 1972년 사회주의 헌법에서 수도 서울의 내용이 삭제되며 평양이 혁명의 수도로 규정되었다. 이때부터 평양은 명실공히 북한의 수도가 되어 북한의 정치, 행정, 경제, 역사, 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평양은 ‘조선의 심장’, ‘영도자의 도시’로 인식된다. 평양은 북한 체제와 통치 이데올로기 수호의 정점이며 평양의 주민들 역시 정권의 핵심이자 결사대이다. 즉, 북한이라는 국가에 있어 평양은 보통 국가의 수도 이상의 절대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평양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평양이 북한에서 어떻게 현재와 같은 절대적 위치를 갖게 되었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2. 고조선-고려시대 평양의 역사

평양은 고조선의 주요 도시로 단군릉이 위치하고 있으며, 고조선의 마지막 수도였던 왕검성으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의 장수왕은 서기 427년경(장수왕 15년)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했다. 이어 552년(양원왕 8년)에 장안성을 축조하기 시작해 586년(평원왕 28년)에 완공하여 고구려의 평양 천도가 완성되었다. 이후 고구려가 멸망한 668년까지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였으나 고구려 멸망 이후 200여 년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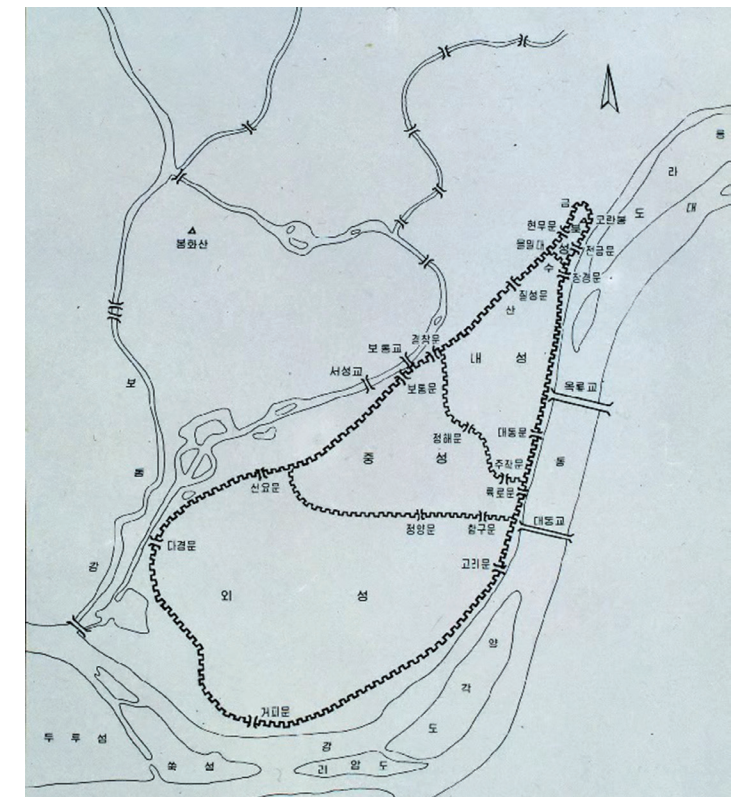
918년 고구려를 역사적으로 계승한 고려가 개국하며 평양은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고려시대에 평양은 서쪽의 수도를 뜻하는 서경(西京)으로 불리며 중요시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수도인 개경 이외에도 서경(평양), 동경(경주), 남경(양주)의 세 개 도시는 수도에 다음가는 특수한 도시로 지정되었다. 평양 역시 태조 왕건 이후 현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곽이 건축되어 개경에 버금가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고려의 개국 이후 평양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수도로 거론되었다. 태조 시기에 새로운 수도로 평양이 거론되었고, 이후로 꾸준한 수도 이전의 시도가 있었다. 947년 고려 정종(定宗)은 도참설에 따라 서경성(西京城)을 쌓고 천도하려 하였으나 귀족들의 불만과 백성들의 반발로 실현되지 못했고, 1136년에는 고려 인종에게 요청, 정지상, 백수한 등이 서경천도론을 건의하여 추진되었으나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문벌 귀족들의 반발과 민심의 이탈로 인종이 중지를 명하여 좌절되었다. 고려 말기 신돈은 공민왕에게 평양으로 수도를 옮길 것을 건의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자들은 고려시대 개성(開城)과 평양(平壤)의 위상을 중국 당나라 시기 수도의 기능을 양분한 장안(長安)과 낙양(洛陽)에 비교하기도 한다. 제1차 거란 침입 시 그 유명한 서희와 소손녕의 담판에서 서희는 ‘우리나라가 바로 고구려의 옛 땅이기 때문에,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했다(我國卽高句麗之舊也 故號高麗 都平壤)’는 논리로 거란군을 물리쳤다. 이렇듯 고려시대 내내 끊임없이 평양(서경)으로의 천도 시도가 있었던 것은 단순히 지역 세력 간의 주도권 다툼이 아닌, 평양의 여러 도시 기능이 수도인 개경을 압도한 까



보통문, 보통문은 고구려 시기 평양 중성의 서문으로 건립되었으며 1473년 개축되었다.

평양성곽의 위치 추정도 (그림 출처: 머니투데이)



평양의 단군릉, 2018년 10월 3일 개천절 행사 모습 (사진 출처: 연합뉴스)



답이다. 실제로 여러 자료에서 평양의 공간적 역사성이 개성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역사가들은 고려시대의 개경을 단순히 시조의 세거지(世居地)로서 도읍이 된 도시로, 평양을 후삼국 통일 이후의 새로운 천도지(遷都地)로 구분하기도 한다.¹⁾

3. 조선시대 평양의 역사

고려 멸망 이후 새로 들어선 조선왕조에서 평안도를 비롯한 서북지방의 주민들은 삼남을 비롯한 남쪽의 백성에 비해 열등하게 여겨졌다. 이종환은 『택리지』에서 “태조가 나라를 창건한 이래 서북 사람들을 임용하지 않고 서울 사대부들이 그곳 사람들과 혼인하거나 벗하지 않아 서북의 두 도에 드디어 사대부가 없게 되었다”고 기록한다. 숙종 40년(1714년) 평안도에 암행어사로 나갔던 여필희(呂必禧)의 보고서에는 “관서 한 도 중에서 평양은 선현이 끼친 풍속이 없지 않으나 나머지 각 고을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간혹 자기 몸을 닦고 지조를 지키는 선비가 있으면 괴상하다고 지목하고… 이적(夷狄) 금수(禽獸)와 서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와 같이 평안도 주민에 대한 비하를 서슴지 않는다. 이에 대해 평양의 160명의 유생들이 항의 상소를 올렸으나, 이 상소는 절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실제로 조선시기 서북인들은 가문과 사회적 지위가 국정에 참여할 자격이 안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서북지방의 인사들이 과거에 급제하더라도 문과 급제자가 훈련을 받는 승문원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무과 급제자에게도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선전관 후보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서북 출신 중 정치의 중심이 되는 관직에 임명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미관말직이라 하더라도 6품직에 올라가면 길이 곧 막하곤 하였다. 이러한 서북인에 대한 차별은 영-정조시기 이후 다소 해소되었다.²⁾

위에서 밝혔듯 서북지역에서도 그나마 평양은 선현의 풍속이 남아있는 도시로 평가되었다. 평양에는 평안감사가 상주하는 평안감영이 있었고, 특히 사행로의 경유지로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조선 초기 평양을 들르는 명나라 사신의 주요 관심사는 기자(箕子)였다. 기자는 은나라의 왕족으로 무왕(武王)이 은나라를 멸망시키자 조선으로 갔다고 알려진 인물로, 그의 의로운 행적으로 인해 중국에서도 현인으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고려와 조선은 각각 기자를 통해 우리 민족과 중화문명과의 연결성을 강조하여 적어도 고려 숙종

이후로 기자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태조 이성계가 명나라에 조선의 국호를 요청할 때도 기자조선을 명과 공유하기 위해 ‘조선’을 국호로 정했다고 설명했다.³⁾ 중국에 대한 사대를 중시하는 조선시대의 평양은 외성의 정전, 기자의 영정이 봉안된 인현서원과 기자궁 일대 구주단, 삼익재, 구삼원 등이 중시되었다.⁴⁾ 이렇듯 기자의 존송을 실천함으로써 조선은 중화문명의 수호자를 자처함과 동시에 국왕의 정통성을 강화하였고 그 중심에는 평양이 있었다.

평안도 관아 차원에서 이루어진 명나라 사신단 접대는 평양을 의전과 접대 그리고 유흥의 도시로 발전시켰다. 1590년 윤두수가 편찬한 『평양지』는 평양의 교방(敎坊, 기생학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교방의 설립은 오래되었으며 사신 행차의 고단함을 위로하고 여행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게 하기 위한 것으로, 또한 태평시대를 장식하는 일이다.” 『평양지』에 따르면 평양의 교방에는 기생 180명, 악공 28명이 있었다. 평양의 접대와 풍류 문화는 조선 을 방문하는 명나라 사신만이 아닌, 조선에서 명을 방문하는 사신단에게도 큰 즐거움이었다. 사신단으로 중국을 방문한 양반들의 기록에는 사행길에 평양에 경유하며 능라도, 부벽루, 청류벽에서 즐기는 기생, 풍악, 술, 안주에 대한 찬양이 자주 등장한다.⁵⁾ 1774년 신광수가 평안감사로 부임하는 채제공(蔡濟恭)을 위해 쓴 “관서악부(關西樂府)”와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그림 평안감사연회도(平安監司宴會圖)에는 평안감사가 누리는 행락과 유흥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성대한 유흥이 가능했던 이유는 평양의 강력한 경제력에 기인한다.



평양 모란봉에 있던 기자묘, 기자의 존송을 실천함으로써 조선은 중화문명의 수호자를 자처함과 동시에 국왕의 정통성을 강화했다. 북한정권 수립 후 김일성은 조선시대 사대주의를 비판하며 1950년 기자묘를 파묘했다. (사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평안감사향연도, 평양에서 유흥이 발달한 이유는 평양의 강력한 경제력에 기인한다. 평양에서는 일찍이 상업이 발전하여 금, 은, 담배, 인삼의 재화가 풍부해 화폐와 물화의 유통이 전 조선을 통틀어 으뜸이었다. (그림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1) 신안식, ‘서경 1100 주년, 고려시대 평양(서경)의 위상,’ 『월간 공공정책』 171호, (서울: 한국주민자치학회, 2020) p. 99.

2) 오수창, ‘조선후기 평안도 지역 차별의 극복 방향,’ pp. 4-9.

3) 김창수, ‘조선후기 기자의 위상과 평양의 지역성’, p. 124.

4) 이은주, 『조선시대 평양 장소 사람』, p 15.

5) 이은주, 『조선시대 평양 장소 사람』, pp. 3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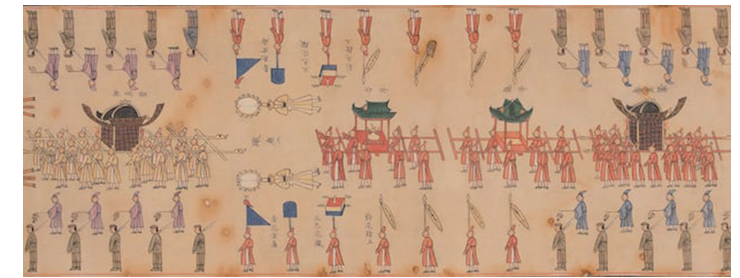
평양에서는 일찍이 상업이 발전하여 금, 은, 담배, 인삼의 재화가 풍부해 화폐와 물화의 유통이 전 조선을 통틀어 으뜸이었다. 또한 성시만물(城市萬物)이 풍요로워 도시가 발전하였으며 부유한 상인들이 많이 등장했다. 게다가 조정으로부터 소외되어 명문가문이 생겨날 수 없었던 평안도의 특성상 평양에는 지방 사족(士族)이 발달하지 못했다. 이렇듯 평양은 물산이 풍요로움에도 지역에 기반을 둔 세력이 없는 지역이었다. 이런 이유로 평안감사는 평안도에서 절대적 권력을 누리며, 천자의 사신이 떠난 후 그 위상을 이어받은 유일한 책임자로 인식되었다.⁶⁾ 이는 평안감사(평양감사로도 불림)가 조선시대 풍류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인 동시에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는 말로 상징되듯, 평안감사가 최고의 요직으로 인식된 이유이다.

조선 말기에 이르러 서북지방에 대한 차별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는 통계로도 나타나는데 고종(1863-94) 재위기 중앙 관직을 역임한 평안도 출신 문관 397명 중 당상관 59명, 당하관 117명, 참서관 125명이 배출되었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한 이후 광무 6년(1902년) 조정은 평양을 한양과 더불어 공동 수도로 격상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 시작을 알린 것은 궁내부 특진관 김규홍의 상소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중국의 주, 한, 당, 명이 모두 양경제(兩京制, 두 개의 수도를 두는 제도)를 시행했고 지금 동서양의 여러 나라들도 두 개의 수도를 두고 있다. ②고종은 황제 즉위 후에 중흥의 업을 이루었으나 유독 양경을 두는 제도만은 시행하지 못하였다. ③평양은 우리나라에서 맨 먼저 인문이 열린 고장으로 세 성인(단군, 기자, 동명성왕)이 연이어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다스린 지가 천여 년이며, 지금도 인물이 번성하고 고을은 웅장하며 화려하다. 풍속과 기질은 굳세고 질박하며 물품과 재화가 풍족한 곳이다. ④고려 태조는 서경이 수덕(水德)을 지녀 우리나라의 명맥을 조절한다고 했고, 선조 때 명나라 사람 이문통은 평양이 만년(萬年) 왕기(王氣)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말들은 풍수와 관계되지만 읍지(邑誌)에 전해지고 있으니 거짓이 아니다. ⑤서경을 두고 이궁(離宮)을 신축한 뒤 군사를 증설하여 지키게 함으로써 나라의 위엄을 세우고 터전을 공고하게 한다면 그 고장은 더욱 중해지고 백성은 충성을 다하려고 생각할 것이다. ⑥당당한 황제의 나라로서 두 개의 수도를 두지 않을 수 없는데, 서경 건설은 평안도의 선비와 백성들이 기꺼이 따르는 것인 만큼 모든 사업의 경영이 얼마 가지 않아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⁷⁾

6) 이은주, 『조선시대 평양 장소 사람』, p. 38.

7) 하명준, “조선후기-근대개혁기 평안도의 정치, 문물 신장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p. 158, 159.

새로운 수도 평양의 위상을 위해 조정은 평양에 황제의 궁전인 풍경궁(豐慶宮)을 비롯한 각종 건설 사업을 지시한다. 이를 위해 고종이 100만 냥을 하사했고, 나머지 1,000만 냥은 세금으로 충당하여 풍경궁을 비롯한 궁궐 주변의 거리를 조성하였다. 마침내 광무 7년(1903년) 12월, 평양에 조성된 궁궐에 어진과 예진이 봉안되고 평양은 공동 수도로서의 준비를 마치게 된다. 그러나 불과 2개월 뒤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발발하며 서경 건설은 중단되고 말았다. 일제는 평양에 230만 평이 넘는 토지를 군사, 철도 용지로 수용하였는데, 이 수용지에는 고종이 건설한 풍경궁과 주변 시설들이 포함되었다.⁸⁾



1903년 12월 1일 평양성 객사를 떠나 풍경궁으로 가는 고종 부자 초상화 행렬을 그린 어진예진서경풍경궁봉안반차도(御眞睿眞西京豐慶宮奉安班次圖) 부분. (그림 출처: 조선일보)

4. 일제강점기 평양의 역사

평양은 1899년 개시(開市)를 하였으나 그 이전부터 이미 중국과의 밀무역이 성행했으며 일본상인들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1894년부터 1897년 평양을 수차례 방문한 여행가 이사벨라 비숍(I. B. Bishop)의 여행기를 보면 이미 1894년 당시 평양에는 일본의 군대가 주둔하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일본은 1906년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하며 주요 도시에 이사청(理事廳)을 설치했다. 이때 진남포 영사관 평양분관이 평양 이사청으로 변경되었다. 러일전쟁 당시 일본은 평양을 군수물자 수송의 중심지로 삼았다. 평안남도청은 1910년까지는 평안감영의 선화당 건물을 사용하다가, 한일강제병합 이후로는 이사청 건물로 이전하였다. 1905년 7월 일본군은 평양 외성의 남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평양 군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05년 경의선 신의주 성벽과 문을 허물고 도로를 개축하였다. 일제는 평양 이사청 설치와 함께 평양역과 평양성 사이의 부지(현재의 평천구역 일대)를 신시가지로 조성했다. 신시가지에는 일본인들의 집거지가 형성되었으며 지명도 일본식 지명이 붙었다. 이전까지 평양의 중심부는 만수대, 장대재 언덕이 있는 현재의 중구역 일대였으나, 평양역의 개통과 그 주변 신시가지의 개발로 도시의 중심축은 남쪽(현재의 중구역 남부, 평천구역 북부)으로 이동되었다. 결과적으로 평양은 북부 구시가지

8) 하명준, “조선후기-근대개혁기 평안도의 정치, 문물 신장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pp. 169-172.

의 조선인 거주지역과 평양성 남문 밖의 일본인 거주지역으로 양분되었다.⁹⁾ 이후 조선총독부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공식적으로 일본인이 사는 구역을 정(町)으로 개정하였다.

1911년 조선총독부는 ‘평양시가 도로개수 공사’ 계획을 발표했다. 1910년대 평양의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도로확장, 배수, 하수 능력을 확장하는 대규모 토목 프로젝트였다. 1기 작업으로 1910년대에는 보통강을 확장하는 한편 도시 곳곳에 배수로를 만들어 빗물이 보통강과 대동강에 흘러들게 하는 수로를 건설하였다. 1920년대에 들어서 하수시설 정비와 함께 본격적인 시구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 평양 시내 중심가
(사진 출처: 꿈꾸는 정신,
<https://blog.naver.com/sei-hwanny/220063681777>)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며 평양의 인구는 급증하게 된다. 이로 인해 평양의 주택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고 총독부는 대동강 건너 동평양을 개발하기 시작한다. 1919년 평양회의소에서 발표한 ‘평양대안시가계획’을 통해 동평양 개발이 본격화되어 동평양지역에 공업지대와 주거지역이 계획되었으며 평원선(평양-원산) 철도가 동평양을 지나도록 설계되었다. 1923년 인도교인 대동교가 건설되어 본평양과 동

평양이 하나의 도시로 연결되었다. 1925년 평양부청은 총독부에 대동강 동부의 평양편입을 요청하였고 이는 2년 만에 허가되어 1927년 대동강 동부 선교리(船橋里) 일대가 평양에 속하게 되었다. 1929년에는 북부의 현재의 기림리(현재의 모란봉 구역에 위치)에 철도역이 설치되어 시가지가 북부지역으로 확장된다. 이전까지의 평양은 보통강과 대동강 사이에 형성된 도시로 도시의 모양도 배(船), 북주머니에 비유되었으나 이때부터 확장을 거듭하며 도시의 모양이 변하게 된다. 1930년대에 이르러 도시가 확장되며 각 구역 간의 분화가 이루어지는데 과거 시가지와 교외로 구분되던 것이 1905년을 기점으로 북부의 조선인구역과 남부의 일본인구역으로 구분되었고 1910-30년대에는 선교사지역, 군사지역, 학교지역, 관사지역, 율락가 지역으로 구분되었다. ① 언덕이 많은 경창리, 신양리 일대는 선교사들이 모여 살았으며 양육이 많아 양촌이라 불렸다. ②평천리 동편은 일본군 여단 사령부와 보병 77연대, 각급 간부관사가 위치했다. 철로의 남쪽에는 육군창고, 평기제조소 등이 위치하여 군사지역을 이루었다. ③언덕이 많은 상수리에서 남산정에 걸친 지역은 선교사들이 세운 숭실학교, 숭의여학교, 평양

신학교와 그 밖의 공립학교들이 위치하여 학교지역으로 불렸다. ④ 남산정, 산수정, 죽원정, 약송정은 일제침략 초기 일본인 거주지로 개발된 구역으로 일본인 관료들의 관사도 이곳에 위치하여 고위관료들의 거주지로 인식되었다. ⑤진정, 앵정은 율락가가 밀집해 있었다. 1923년 대동강 인도교 건설 후 1927년에 평양에 편입된 동평양지역은 계속해서 평양의 외곽으로 인식되었다. 1940년 주택지 계획의 시행으로 대규모 주택단지와 공장이 조성되어 비로소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¹⁰⁾ 1915년부터 1940년까지 조선에서는 급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었는데 이 시기 평양의 인구는 45,793명에서 285,965명으로 상승했다. 다음은 일제강점기 조선 4대 도시의 인구 변화이다.

	서울	평양	부산	대구
1915	241,085	45,793	60,804	32,740
1920	250,208	71,703	73,855	44,707
1925	342,626	89,423	106,642	76,534
1930	394,240	140,703	146,098	93,319
1935	444,098	182,121	182,503	107,414
1940	935,464	285,965	249,734	178,923
1944	988,537	341,654	329,215	206,638

[표 1] 일제강점기 조선 4대도시의 인구 변화, “1915-1920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25-1944 조선총독부 국세조사”를 이정섭, ‘일제강점기 도시화와 인구이동’, 대한지리학회지, 52권 1호, (서울: 2017) p. 110에서 재인용

일제강점기 평양 시민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조선인 엘리트의 뛰어난 활약을 들 수 있다. 한국근대사 연구에서 평양 조선인 지역엘리트는 개신교를 일찍 받아들인 선구적 시민이자 식민지 지배기구와 거리를 둔 민족주의자로 인식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의 정당을 통한 중앙정치 참여를 배제하고, 조선인 실력자의 역량을 지역에 한정하고자 했다. 조선인 엘리트들은 경제계, 사회종교계 등 정계 이외의 분야에서 활동하며 각 지역의 정치계에 영향을 미친다. 대다수 도시의 지방정치는 일본인 실력자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유독 평양만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 평양은 조선인 지역엘리트가 여론을 결집하고 개발 거점을 확보하여 지방의 예산과 정치를 주도해 나간 유일한 조선의 도시였다.

일찍이 강력한 네트워크를 이루던 평양의 실업가회에 대항하기 위해 1903년 일본인들은 평양일본인 상회를 조직하였으나 2년 만에 해체되었다. 이후로도 1907년, 1909년, 1912년 평양의 일본인 경제계는 연합을 시도하였으나

9) 최지해, “1896-1945년 지방행정제도의 개편과 철도노선의 확장이 가져온 지역거점 도시공간의 변화,” p. 133.

10) 김태윤, “근현대 평양의 도시계획과 공간 변화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pp. 32-48.



일제강점기 평양부청(平壤府廳), (사진 출처: 꿈꾸는 정신, <https://blog.naver.com/sei-hwanny/220063681777>)

번번이 실패하였다. 반면 조선인 실업가들은 1906년 공식적인 평양상업중의소를 구성하여 협력을 이어갔다. 일본인 실업계와 당국은 1916년 일본인을 중심으로 평양상업회의소를 설립한다. 설립 당시에는 일본인이 우위를 차지하였으나 1920년에 들어 연 10엔 이상의 영업세 납부자의 기준을 만족하는 수에 있어 조선인이 우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1929년에는 상업회의소 평의원 30명 중 조선인이 14명, 일본인이 16명이 되었다.¹¹⁾ 부 협의회는 유권자의 자격은 연간 부세 5원을 내는 시민들에게 부여되었다. 중간계급으로서 중소기업자, 변호사, 의사, 고소득 봉급생활자가 주를 이루었는데, 평양은 여타 조선의 도시들과 달리 조선인 유권자의 비율이 일본인 유권자를 상회하는 도시였다. 다음은 1920년대 조선의 4대도시 서울, 평양, 부산, 대구의 조선인과 일본인 선거권자 수 통계이다.

	서울	서울(경성)	평양	부산	대구
1920년	조선인	2,626	554	90	393
	일본인	2,145	528	1,027	564
	합계	4,771	1,082	1,117	957
1923년	조선인	4,941	1,419	217	570
	일본인	4,361	883	1,492	1,150
	합계	9,302	2,257	1,709	1,720
1926년	조선인	4,641	1,316	214	600
	일본인	4,615	779	1,788	1,014
	합계	9,256	2,095	2,002	1,614

표 2] 조선 각 부 협의회 선거권자 수, 손정목, '한국 지방제도 자치사 연구,' p. 196.

평양의 정치, 경제를 장악한 조선인 엘리트 중 대다수는 기독교인이었고 이들은 외국인 선교사라는 강력한 후원자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기독교인 엘리트들은 평양의 각종 개발에도 공식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조선인의 이익을 대변한다. 1915년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평양과 선교리를 잇는 대동강 가교가 일본인이 모여 사는 지역에 놓는 것으로 결정되자 평양의 엘리트들은 협의회를 결성한다. 산정현교회 장로이자 물산객주인 오윤선, 서문밖교회 장로이자 동아일보 평양지국장인 지낸 이덕환, 감리교인으로 광성고보 교장을 지낸 김득수, 한성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한 독립운동가이자 남산현교회

11) 김태윤, “근현대 평양의 도시계획과 공간 변화 연구,” p. 54.

담임을 맡았던 현석철을 비롯한 38명으로 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이들의 노력으로 대동가교의 위치를 변경하지는 못했으나 이후 이들은 평양의 중요한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이 되었다.

1931년 총독부 내무국 지방과의 조선총독 보고 문건에는 이 시점의 부회를 조선인 중간계급이 장악했다고 보고하고 있다.¹²⁾ 일본인 구역에 다리가 놓였고, 개발된 동평양지역은 일본인이 점유한 지역이라 하여 조선인자본가들은 1935년 서평양에 5개의 양말공장을 설립하기도 한다.¹³⁾ 평양의 상공인들은 메리야스, 고무, 정미업의 3대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협력을 이어나갔다.

이들의 영향력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평원선 기점 변경과 서평양 개발계획이었다(여기서 말하는 서평양은 현재의 모란봉구역 남부와 보통강구역 동부에 걸친 지역을 의미한다). 당국이 평원선 기점을 일본인들이 거주하는 세포역으로 확정하자 이들은 부의회와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해 평원선의 기점을 평양의 북부 기림리로 변경하였다. 1929년에는 부협의회를 장악한 조선인들이 서평양시가계획을 승인하여 일본인 의원들이 “황포”라며 전원 퇴장하였음에도¹⁴⁾ 조선인들의 기세에 눌린 일본인 부윤이 계획을 승인하는 일이 있었다. 이를 통해 1932년 서평양역(과거 서평양역은 모란봉구역에 있었음)에서 기림리까지 전차가 복선화되어 도시의 중심축이 일본인이 거주하는 남쪽에서 조선인이 거주하는 신양리 인접지역으로 넘어오게 되었다. 서평양의 지가 상승과 동시에 조선인 부동산 부자들이 등장했으며, 이곳에 공장이 들어서며 실업가들과 자본이 모여드는 한편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다음은 1930년대 평양의 지역별 공장 수 변화이다.



일제강점기 평양시 남문밖의 일본인 거주지역(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신시가	구시가	동평양	서평양	고평면	용산면	합계
1930	75	46	20	3	0	6	150
1934	77	61	23	17	0	8	186
1937	78	39	26	29	0	7	179

표 3 평양부 지역별 공장 수에 대한 조선총독부 연도별 통계, 주동빈, “일제하 평양부 개발과 조선인 엘리트의 ‘지역정치,’” p. 238

12) 주동빈, “일제하 평양부 ‘개발’과 조선인 엘리트의 ‘지역정치,’” 2023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 349, 350.

13) ‘서평양은 괄목적 발전,’ 동아일보, 1935. 6. 5를 윤정란, ‘일제의 근대 식민지 도시 대평양 건설과 평양 조선인들의 대응,’ pp. 151, 152에서 재인용.

14) 주동빈, “일제하 평양부 ‘개발’과 조선인 엘리트의 ‘지역정치,’” p. 224.



일제강점기 대동강의 동과 서를 잇는 인도교의 모습 (사진 출처: 꿈꾸는 정신, <https://blog.naver.com/seihwanny/220063681777>)

일제강점기 대동문앞의 인파 (사진 출처: 꿈꾸는 정신, <https://blog.naver.com/seihwanny/220063681777>)



그러나 평양의 조선인 엘리트 사회는 1937년 일어난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인하여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수양동우회의 핵심 지도자 김동원은 평양 상공회의소의 부회두였다. 김동원 이외에도 평양·선천의 지도자 중 93명이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체포되었다. 체포되지 않은 평안남도 지도자 중 김동원, 이기찬 등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협조하는 길로

가게 된다.¹⁵⁾ 1939년 조선총독부는 평양의 정계를 장악하기 위해 사토 도쿠시게(佐藤徳重 1939. 2. 8 - 1941. 5. 14 재임)를 평양부윤으로 임명한다. 그는 일본 육군 출신 고등관료로 동양척식주식회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인물이다. 사토는 평양에 두번 근무한 경험이 있는 평양통(平壤通)으로 그의 발탁은 파격적인 특진으로 여겨졌다.¹⁶⁾

사토의 부임과 더불어 동평양과 평양서부지역(시내 북부에 위치한 서평양역이 아닌 당시 평양의 실제 서쪽, 현재의 보통강구역과 서성구역 남부)에 대한 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에 대해 1940년 평양부회 예산부회에서 부의원 김항복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불만을 표출한다. “이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결사의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내가 걱정하는 것은 그 때문에 갑자기 한다면 반기성지(半既成地)를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평양 특히 기림리, 인흥리 방면의 취급은 거의 의붓자식 취급하는 것 같고 이것은 본말전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점 특히 부윤은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후에도 이웅갑 의원이 이어 질의를 하려 하였으나 평양부윤은 질의를 막고 회의를 마쳤다.¹⁷⁾ 이후로는 매년 7-8일씩 이어지던 예산심의 회의를 2-3일로 줄이는 등 평양부회의의 기능 자체가 축소되게 된다.

서북지방의 전기를 책임진 서선합동전기는 전력만이 아닌, 평양의 전차, 버스 등의 기간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평양 최대의 기업이었다. 평양의 실력자들은 물론 부의회를 비롯한 각종 기관에서 이 회사에 이사를 파견했다. 1930년대 말부터

서선합동전기에 조선인 이사들이 중역에서 배제되거나 후순위로 밀리기 시작한다. 일례로 부의회 몫으로 배정된 이사 자리에도 조선인 이기찬 부의장에 대한 임명이 보류되던 것이 전임 일본인 이사가 사망하자 어쩔 수 없이 직위를 승계하게 하였다. 일본인으로 중역이 채워진 후 평양부윤 사토의 지원 속에 서선합동전기는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흡수되었다. 결국 1940년대 들어 평양의 조선인 엘리트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조선인에 의해 경영되는 상공업체들의 쇠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5. 해방 이후 평양의 변화

해방 후 북한지역에 임시인민위원회가 발족된 후 1946년 9월 5일 임시인민위원회는 “평양특별시정에 관한 결정”을 통해 평양을 인민위원회 직속 특별시로 지정하였다. 해방 직후 조선인들은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했는데 기독교세가 강했던 서북지방은 평북 이유필(신의주제일교회 장로), 평남 조만식(산정현교회 장로), 황해 김응순(해주교회 목사)이 중심이 되었다. 이 중 조만식은 38선 이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조선인으로 평가된 인물로 평양의 기독교엘리트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소련군정 역시 그를 북한5도인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대하려 했으나 조만식은 친소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이를 거절하고 독자적으로 ‘조선민주당’을 창당했다. 그러나 조만식은 소련군정과 공산당에 반대한 이유로 고려호텔에 연금이 되고 구심점을 잃은 상공업-기독교로 상징되는 평양의 엘리트들의 응집력이 약화되기 시작한다. 이후 1946년 3.1절 기념식, 11월 4일 일요일에 있었던 인민위원회 선거로 인해 기독교계의 저항은 극에 달하게 되고 이는 평양의 기독교인 엘리트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진다. 일제강점기 조만식과 함께 조선인의 이익을 대변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던 산정현교회 장로 오윤선, 서문박교회 장로 김현석을 비롯하여 양말생산조합 초대 조합장을 지낸 손창윤, 평안고무 사장 김동윤 등도 박해를 받아 활동을 못하게 되고 이들은 월남을 선택하거나 6.25를 전후하여 처형되었다. 이후 김일성의 영향력이 절대화되는 상황, 1947년 8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과 함께 남북의 분단이 고착화되며 북한 정권은 평양을 “북조선의 서울”로 칭하기 시작했고 1948년부터는 “민주수도”라는 말이 평양의 대표 수식어가 되었다.



해방후 북한지역을 접수한 소련은 조만식을 북한5도인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대하려 했으나 조만식은 친소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이를 거절하고 독자적으로 ‘조선민주당’을 창당했다.

15) 주동빈, “일제하 평양부 ‘개발’과 조선인 엘리트의 ‘지역정치,’” p. 356.

16) 주동빈, “일제하 평양부 ‘개발’과 조선인 엘리트의 ‘지역정치,’” pp. 316, 317.

17) 주동빈, “일제하 평양부 ‘개발’과 조선인 엘리트의 ‘지역정치,’” p. 314.



1946년 5월 21일 보통강 개수공사 착공식에 나와 직접 첫 삽을 뜬 김일성 (사진 출처: 통일뉴스)

소련군정하 북조선 인민위원회는 평양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보통강 개수공사를 하기로 결정한다. 1946년 5월에 시작된 공사는 7월 15일 55일만에 완공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1948년에는 동평양지구와 평천지구에 대규모 건설사업을 계획하였다. 또한 일제강점기 평양 신사가 있던 자리에 모란봉국립공원을 조성하였는데 이 공사는 1947년 5월 25일에 시작되어 두 달만인 7월 22일

에 완공이 이루어졌다. 모란봉공원의 중심에는 모란봉 극장이 건설되었다. 이 극장은 국가의 중대 표창 수여와 1948년 4월에 있었던 남북연석회의 등의 국가의 중대한 행사를 치르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6.25전쟁은 평양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전쟁 발발 직후 미 공군은 일제강점기 평양에 조성된 철도 조차장, 무기공장, 경공업 공장지구 등을 전략폭격의 목표로 삼아 폭격했다. 2차 세계대전 중 미군이 감행한 무차별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영향을 미쳐 6.25 초기 미군의 폭격은 정밀폭격원칙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1951년 7월 정전회담이 시작된 직후 폭격의 목적은 공산세계와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하여 무차별적인 폭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폭격은 주로 대동강 좌우 강안에 집중되어 다행히 모란봉구역과 중구역 북부의 강변은 피해가 적었고 동평양은 강에서 떨어진 지역의 피해상황이 양호했다. 이런 이유로 모란봉극장에서는 1952년 과학자대회, 외국인 초청 5.1절 기념회 등이 개최되었으며 전쟁 후 이곳에는 전승혁명사적지가 들어섰다.

6.25전쟁중 폭격으로 파괴된 평양 시내의 모습



정전협정의 조인 직전인 1953년 7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평양시 복구 총계획”을 확정하고 평양시복구위원회를 조직했다. 당시 내각결정 125호에서는 평양의 공간구성 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대동강을 평양시 도시의 축으로 설정, 대동강을 따라 구릉 기복조건에 어울리게 건물 배치, 김일성 광장을 남산 동쪽 기슭에 건설, 대동강과 평행되면서 하류에 공장, 기업소를 배치, 위생, 교육, 문화, 편의시설을 균형적으로 배치, 주택지구를 녹화하고 도시 주변에 녹지대를 형성.”¹⁸⁾ 당시 세운 도시계획의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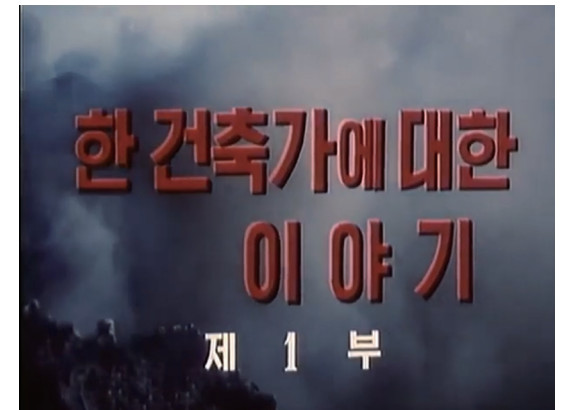
향은 대부분이 실행되어 평양의 모습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평양의 재건을 위해 알바니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폴란드, 불가리아, 독일, 중국, 소련 등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전폭적인 원조와 지원을 시행했다. 이들은 1954년 본평양 중심지대에 김일성광장과 모택동 광장(개선문광장), 스탈린거리(현재의 승리거리)를 조성했으며 1955년 윤환선거리(창광거리), 평양역전광장, 동평양간선거리(새살림거리), 서평양경기장입구거리, 모란봉거리(칠성문거리)를 건설했다. 이 시기 새로 건설된 거리의 양 옆으로 3-5층의 주택가가 조성되었다. 1954-56년 평천리와 동평양지역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됐다.

이 모든 것을 주도한 인물은 김정희이다. 그는 1947년부터 1953년까지 모스크바 건축대학에서 유학중이었으나 1951년 북한을 방문해 평양특별시 재건종합계획을 김일성에게 보고했다. 김정희는 1970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도시건설의 책임을 맡고 1970년대에 숙청된 후 1975년 건설현장의 사고로 사망했다.¹⁹⁾ 김정희는 지금까지도 북한건축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다.

1961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1차 7개년계획을 수립한다. 빠르고 효과적인 건축을 위해 도시건설에 있어 표준화와 규격화가 발전했고 조립식 시공의 비율이 높아졌다. 1960년대에 모란봉거리, 봉화거리, 붉은거리들이 완공되어 그 주변에 살림집이 배치되었다. 김일성은 교시를 통해 1964년까지 평양의 모든 주요 도로 포장을 지시했고 이는 곧 시행되었다. 또한 무궤도열차가 운행하기 시작하였으며 1단계 지하철공사가 시작되었다. 또한 1960년대 평양은 사회주의 사상의 선전을 위한 기념비와 사적지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때 건설된 천리마동상은 김일성동상이 있는 만수대기념비광장으로부터 북쪽으로 200m 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인민이 사회주의 승리를 위해 달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46m 높이의 규모를 자랑한다.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만경대는 김일성의 고향집이 위치한 곳으로 김일성의 항일운동을 선전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대형 공원이 조성되었다.

1970년대는 주체사상으로 불리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강조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평양의 개발도 주체성을 강조하는 상징건물이 다수 건설되었다. 조선



북한이 제작한 김정희 기록영화 자료사진, 김정희는 1970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도시건설의 책임을 맡고 1970년대에 숙청된 후 1975년 건설현장의 사고로 사망했다.

18) 리화선 『조선건축사2』(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를 민경태, 『평양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서울: 통일교육원, 2021) p. 22에서 재인용.

19) 임동우,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 pp. 133-137.



1970년대 평양에 건설된 만수대 예술극장



북한은 1973년 첫 지하철 천리마선을 개통했다.

혁명박물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만수대예술극장 등 연면적 5만㎡가 넘는 건물들이 건축되었고 1972년에는 김일성의 회갑을 기념해 만수대기념비가 준공되었다. 이 시기 평양에는 고층 살림집이 도입되기 시작한다. 남한에서 고층집 건설은 주로 인구증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하였지만 평양에서는 시내의 경관조성 차원에서 고층집을 건설했다. 고층집은 도로의 가로 경관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알려졌는데, 평양은 도로변을 따라 고층 아파트를 배치하고 이면에 저층 건물과 학교 등을 배치하기 시작한다. 1970년대에는 평양에 대규모 유원지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평양 당국은 평양 중심부의 북동쪽 8.5km에 위치한 대성산에 8만㎡ 규모의 대성산 유희장을 건설했다. 대성산유희장은 서울과 평양의 도시개발경쟁 구도 속에 1973년 동양최대규모로 서울에 개관한 어린이대공원의 대응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또한 1973년에는 북한의 첫 지하철 천리마선이 총 6개역, 총연장 12km 규모로

개통되었고 1978년에는 9개역, 20km의 혁신선이 완공되었다.²⁰⁾

1980년대에는 속도와 함께 환경이 강조되었다. 이때 건설된 창광거리, 문수거리의 개발 당시 당국의 선전에서는 ‘속도, 고층, 살기 좋고, 편안한, 희한한’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었다. 1984년 서평양의 창광거리에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1만 7천 세대의 20-30층 사이의 고층살림집이 건설되었다. 창광거리의 면적은 세대당 150㎡ 크기였으며 방도 3칸이었다. 문수거리에도 1983년 1만 7천 세대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어 버드나무거리와 북새거리에도 만 세대 이상의 고층 살림집이 들어섰다. 1980년대 초반까지 대동강에는 1905년에 건설된 대동강철교가 있었으며, 인도교로는 1923년에 건설된 대동교와 1960년에 건설된 육류교가 있었다. 위의 다리 이외에 대동강 동서를 잇는 충성의 다리(1983), 양각교(1986), 룡라교(1988), 청류교(1989)는 모두 1980년대에 건설되었다. 그 이유는 본평양(대동강 서쪽)의 인구 과밀 해결을 위해 1980년대에 급속도로 진행된 동평양 개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는 1970-80년대 서울의 강남 개발과 더불어 한강에 다수의 교량이 건설된 것과

20) 임동우,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 p.149.

같은 이치이다.

19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은 능라도와 광복거리, 안골체육촌의 건설에 영향을 미쳤다.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은 1988년 서울에서 개최된 올림픽에 대응하여 유치한 행사이다. 능라도에는 청년학생축전의 무대로 1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라도경기장이 건설되었다. 이 경기장으로부터 대동강을 끼고 올라오다 보면 도심의 끝자락에 안골이 있는데 북한 당국은 이곳에 수영장, 탁구장, 중경기관, 경경기관 등 각종 체육관을 건설하였다. 안골과 이어진 광복거리는 외국 손님들의 눈길을 의식하여 화려한 외관으로 건설되었다. 건물들 역시 탑식, 원형, 반원형, 유선형, 꺾임형의 다양한 디자인으로 8층부터 42층의 다양한 모습으로 건설되어 2만 6천세대가 들어섰다.²¹⁾ 1987년 평양의 랜드마크인 유경호텔 건설이 시작되어 골조만 완성된 채로 20년 이상 유지되었다. 오랜 기간 도시의 흉물로 전락한 유경호텔은 이집트의 오라스크에 의해 2011년 외장공사가 완료되어 현대적인 외관을 갖추게 된다. 유경호텔은 부실공사로 인해 건물 본연의 기능은 못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경제난이 심화되었고 외부적으로는 동구권 붕괴로 인한 타격을 입게 된다. 1990년대 초반 통일거리 18,700세대, 광복거리 2단계 건설을 통해 10,200세대, 석봉지구를 포함한 시내 곳곳에 1,300세대 등의 건설이 이루어진 이후 한동안 평양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중지되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을 강타한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에 아사자가 속출하고 모든 체제가 무너졌을 때에도 평양의 주민들은 여타 도시 주민들에 비해 극히 적은 어려움을 겪었다. 24시간 공급되던 전기와 수도가 제한공급되고 배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정도였다. 북한의 모든 도시가 굶주리고 어디를 가나 아사자가 속출하던 시기에도 평양 시내에 거주하던 대다수 주민들은 심각한 기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다만 도시 건설에 있어서는 지장이 있었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 평양의 손에 꼽을 만한 도시공간 변화로는 2000년 평양-남포

21) 전영선, 『북한 아파트의 정치문화사』 pp. 141-153.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 당시 임 의원의 모습.

19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은 능라도와 광복거리, 안골체육촌의 건설에 영향을 미쳤다. (사진 출처: 노컷뉴스)



유경호텔 전경, 1987년 건설이 시작된 유경호텔은 2011년 외장공사가 완료되어 현대적인 외관을 갖추게 된다.



평양의 송신-송화지구에 건설된 아파트단지 (사진 출처:SBS)

고속도로의 개설, 2003년 평양정주영체육관 건립 정도를 들 수 있다.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이 후계자로서 정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로, 평양에는 대규모 건설 붐이 일어난다. 2010년 창천거리 공사가 시작되었고, 공사가 진척되지 않자 김정은은 현지 지도를 나가 건설을 독려했다. 김정은의 공식 집권 후 2012년 김정은은 ‘평양건설건재대학’의 명

칭을 ‘평양건축종합대학’으로 바꾸었다. 2012년 만수대지구 창천거리에

45층 아파트단지가, 2013년에는 은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과학자 아파트, 2014년에는 위성과학자거리와 김책공업대학 살림집, 2015년에는 미래과학자거리, 2017년에는 려명거리 아파트건설사업이 추진되었다. 2021년에는 평양 5만세대 주택 건설²¹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2022년에는 평양 도심 송화거리에 80층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섰다. 최근 들어서는 평양의 뉴타운으로 화성지구가 개발되고 있는데 2023년 이후 화성지구 개발과 입주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2025년 4월에는 화성지구 3단계 공사의 준공 소식이 전해졌다.

6. 나가며

이상에서 우리는 한반도 역사 속에서 평양의 위상과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평양은 고조선과 고구려의 수도가 위치했던 도시이며 고려시대에도 세거지(世居地)로서 공식적 수도인 개경을 압도하는 고려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였다. 조선시대에 들어 한양으로 천도한 후 평양을 비롯한 서북지방은 조정으로부터 소외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에 평양은 오랜 기간 발전해 온 경제상황을 발판으로, 중국과 조선 양국의 사행단이 거치는 길목에 위치한 것과 대동강을 통해 서해로 연결된 지리적 특성을 통해 독특한 도시의 지위를 공고히 한다. 이는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라는 속담에서 드러난다. 기독교의 전래와 뒤이은 한일강제병합으로 인해 평양은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기독교와 서양 학문을 빠르게 흡수한 평양의 조선인 엘리트는 평양의 경제와 문화는 물론 지방정계까지 장악하여 조선에서 유일하게 조선인 우위의 정치지형을 만들어 냈다. 이에 대한 일제의 강력한 대응으로 조선인 엘리트의 기세는 한풀 꺾였으나 기독교, 상공업으로 대표되는 조선인 엘리트는 평양의 모든 영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해방 후 과거 정권과는 완전히 분리된 공산주의 정권

수립, 그리고 뒤이은 6.25 전쟁의 파괴와 복구로 인하여 평양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혹자는 평양의 이런 상황을 “평양은 역사적으로는 1천 년 이상 되었지만, 물리적으로는 겨우 70년밖에 되지 않은 젊은 도시”²²⁾로 표현하기도 한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평양은 “혁명의 수도”, “공화국의 심장”으로 거듭난다. 각종 건설을 통해 사회주의 도시를 일부 구현했고 이를 위하여 북한의 모든 자원이 평양으로 집중되었다. 실제로 전 국민의 10분의 1인 3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던 시기 평양의 시내에서는 아사자를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2010년 이후 김정은이 지도자로 등장하며 평양의 외관은 더욱 화려하게 개발되어 “평해튼”(평양과 맨하튼의 합성어)이라는 별명을 얻기에 이른다. 물론 대다수 도시개발 전문가들과 건축가들은 겉만 화려한 평양의 개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평양은 제국의 심장, 김정은의 얼굴로서 북한의 모든 주민과 세계를 향하여 최고의 모습을 보이려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22) 박원호, 『평양몽의 하늘』 (서울: 은누리, 2024) p. 59.

대동강을 문화공간으로!¹⁾

노현종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1. 들어가며

이 글에서는 평양의 대동강을 문화적 공간으로 재구성하려는 북한 당국의 노력을 통시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대동강은 지리적으로 동평양과 서평양을 구분 짓는 경계선이다. 또한 2018년 정상회담의 식수 행사에서 한강물과 대동강물을 섞음으로써 남북 간의 평화와 통합의 가능성을 강조했듯이, 대동강은 평양과 북한을 상징하기도 한다. 사실 개발도상국이었던 북한은 과거의 남한과 마찬가지로 홍수로 범람하는 대동강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았다. 남·북 두 체제가 경쟁하면서 양측 모두 수도의 도시경관 확충, 사회구성원들에게 양질의 여가 공간과 휴식처 제공을 목표로 강변을 개발하였다.

2012년 홍수피해 당시 보통강 보수공사 현장. 북한은 1946년 55일 동안 총력전을 펼쳐 보통강 개수 공사를 한 이래 지속적으로 개수공사를 하고 있으나 매년 장마로 인한 피해는 반복되고 있다.(사진 출처: 통일부 공식 블로그)



2. 대동강 정비와 문화공간의 구성 시도

1) 수해의 공간과 인프라 구축

해방 이후 대동강은 문화생활을 제공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과는 거리가 멀었다. 당시 강은 수해를 불러오는 위험한 자연현상의 일부였다. 실제로 북한은 1946년 55일 동안 총력전을 펼쳐 보통강 개수 공사를 하였으며, 이를 기념하는 탑을 건설하였다.

1) 이 글은 “한강과 대동강의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연구 — 수렴이론을 활용하여”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제 37호 2024, pp. 37-73를 수정보완 하였음을 밝힌다.

당시 강의 범람 문제를 일정 정도 해결한 것을 체제의 정당성을 위한 선전물로 제작할 만큼 상황은 취약했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0년대에도 동평양 지역의 강과 제방의 정비를 강조하는 여러 기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천리마 운동과 사회주의 동원을 통해서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지만 근대적인 수해방제 시스템을 확충한 것은 아니었다. 대동강에서도 ‘큰물’이 빈번하게 범람하였으며, 1967년 로동신문은 큰 폭우가 내려서 “대동강을 비롯한 강하천들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평양시 부분적 구역들과 평남도의 일부 도시 및 농촌들이 침수되었으며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며 대규모 피해사실을 공식적으로 공포하였다.²⁾

또한 북한에서도 대동강 주변의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해방 이전에는 1923년에 건설된 유일한 다리인 대동교가 서평양과 동평양 지역을 연결하였다. 1950년대 말부터 전후복구작업과 천리마 운동을 본격화하여 1958년 ‘제2 대동교’ 건설이 실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오늘 아침에 동평양에 나갔다가 오던 길에 보니 대동강의 얼음이 풀리기 시작했는데 나룻배가 얼음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동강 위쪽 사람들이 불편하게 대동교를 에돌아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힘겨웁지만 제2 대동교 건설을 앞당겨야 하겠습니다”³⁾라며 다리 건설을 강조하였다. 이에 당시로는 비교적 빠르게 1년 6개월 만에 해방 15년을 기념하여 다리를 완공하였다. 이후 제2 대동교는 옥류교로 개명되었다. 현재 대동강에는 총 6개의 다리가 동평양과 서평양을 연결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모란봉에서 바라본 평양 시내와 대동강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2) 문화공간의 확충

대동강이 관통하는 북한의 수도 평양은 정치적 선전물로만 가득했던 공간이 아니었다. 전통적으로 평양은 놀 곳이 풍부한 도시였다. 가령 ‘평양감사도 제가 싫으면 그만이다’라는 전통적인 속담은 아무리 좋은 것도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당시 평양이 가장 좋은 곳 그리고 누구나 선망하는 곳을 지칭한다. 과거 평양은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기방문화를 포함)가 넘치는 도시였기에 많은 이들이 방문하고 싶어했던 풍류의 도시였다.⁴⁾

2) 「레년에 없는 폭우가 내려 큰물이 졌다」, 『로동신문』, 1967, 8, 30,

3) 「옥류교건설의 나날을 더듬어」, 『조선중앙TV』, 2022, 11, 5.

4) 이선, 『풍류의 류경, 공원 평양』, 효형출판, 2018, pp.42-43.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한 달 전인 1950년 5월 25일, 현재 모란봉 근처 해방탑 근방에 첨단문화시설을 구비한 해방공원 설치 계획이 발표되었다. 로동신문은 “야외 극장, 야외무대, 레스토랑, 아동운동장, 테니스코트, 골프장, 풀 등 수십종목에 달하는 문화오락시설이 갖추어 진다…동남쪽끝에는 뽀-트를 놓수 있는 못이 설치되게되며 공원의 보도 량쪽에 세워질 산데리아 사이마다에는 분수가 설치된다”는 계획을 소개하였다.⁵⁾ 이 로동신문 기사에서 지금의 북한말인 ‘대동강반’이 아니라 ‘대동강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흥미롭다. 천리마 운동이 한창 진행중이었던 1959년에도 대동강 근교를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며, 특히 “대동강반을 민주수도 평양시의 건설 전망과 조화를 이룬 근로자들의 즐거운 문화 휴식터”로 건설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김책공대 학생들이 동원되어 대동강변에 유보도와 계단을 설치하였다.⁶⁾

이처럼 북한은 강을 정비하여 문화적인 공간을 형성하고자 하였지만, 실제로 이를 달성할 여력이 부족하였다. 가령 로동신문에 따르면, 1966년대 초반 유람선 ‘소년호’가 운행되었다는 기사가 등장한다.⁷⁾ 하지만 이 기사 이후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사항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추측하기로는 이 기간 도시의 하수처리시설을 제대로 건설하지 못해 수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여겨진다.

3. 탈냉전기 대동강변 개발

1) 세계청년학생축전 개최

남한의 경제성장과 올림픽 개최는 북한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1980년대 초반 남한의 경제력은 북한을 압도하기 시작하였으며, 북한은 1970년대부터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북한은 남한과 경쟁하기 위하여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개최하였다. 당시 북한은 해외 공관을 통해 세계청년축전에 참여할 해외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였다. 서울이 세계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평양 역시 진보적인 세계 청년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을 강박적으로 표출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리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하여 평양에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하였다. 1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룡라도 경기장, 동평양 대극장, 청년극장, 청년호텔 등을 건축

5) 「현대적 문화시설구비한 해방공원을 건설」, 『로동신문』, 1950, 5. 25

6) 「대동강반의 기적」, 『로동신문』, 1959, 5, 1

7) 「대동강에 〈소년호〉 유람선이 뗏다」, 『로동신문』, 1966, 6, 2.

하였다. 당시 많은 사회주의 국가권의 외국인 참가자들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정돈된 평양과 대동강변의 모습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충성의 다리(1983), 양각다리(1986), 룡나다리(1988)가 완공되었다. 또한 1989년에는 청류교의 공사가 시작되어 1994년에 완공되

었다. 현재 평양의 6개의 교각 가운데 4개가 1980년대에 준공되었다.⁸⁾ 이에 더하여 1980년대부터 대동강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여러 기사가 등장하며, 대동강변을 문화와 여가의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들이 포착된다.

한강의 유람선 그리고 대동강에 대한 남한의 언론의 보도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1986년 이후부터 유람선과 관련된 보도가 북한 매체에 등장하였다. 가령 〈평양 1호〉, 〈영광〉 호가 건조되었으며, 이를 모티브로 한 시가 작성되었다. 이 시기 북한에서도 대동강 주변을 본격적으로 정비하였다. 북한은 1986년 6월부터 대동강을 따라 평양-서해 갑문 간에 유람선을 운항하였으며 첫 취항 이후 약 두 달 동안 2만여 명이 유람선을 이용했다고 밝혔다.⁹⁾ 최근 북한의 매체는 대동강 여객선 운항이 1982년경에 기획되었다고 선전하고 있다.¹⁰⁾

〈그림 1〉 세계청년학생축전을 대비한 평양 조감도



출처: 『로동청년』, 1987년 7월 18일,

8) 서울올림픽은 대회직접사업(1조1천 84억), 여건조성사업비(1조2천7백 42억)을 합쳐 2조 3천 8백 26억을 소요하였다. 하지만 국내적으로 총생산유발효과는 4조 7천 504억에 달하였다. 이처럼 세계적인 평판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도 지속되고 있었다. 반면 북한이 세계청년학생축전에 투자한 금액은 정확하지 않다. 국내의 언론들은 약 50~60억 달러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보도하지만 정확한 출처와 원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청년학생축전이 북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명백하다. 서울올림픽 관련 논의는 김종기, 이상우, 유재천, 홍종덕, 구광모, 『서울올림픽의 의의와 성과』, 한국개발연구원, 1989, pp.121-139.

9) 「대동강 유람선 운항」, 『조선일보』, 1988, 8, 4.

10) “그날은 주체71(1982)년 4월 어느날이었다. 주체사상탑을 돌아보시던 길에 대동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부감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대동강에 유람선과 여객선을 많이 띄워 우리 인민들의 문화휴식을 잘 보장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날 대동강에 띄운 유람선과 여객선을 만들 과업을 어느한 조선소에 주시면서 배의 구조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또한 북한 매체 『조선의 오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유람선에 오락시설을 갖추는 문제, 청량음료매대와 식당을 꾸릴데 대한 문제들을 일일이 헤아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대동강의 배길을 잘 조사하여 유람조직을 잘하며 대동강물을 오염시키지 않게 철저히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이를 통해 김일성과 김정은 체제의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였다. 「《무지개》호에서」, 『조선의 오늘』, 2023, 5, 7.

2) 1990년대 초, 발전을 통한 새로운 정당성의 창출 시도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의 연쇄적인 붕괴로 말미암아 북한은 당혹감을 느꼈다. 특히 소련의 경화결제 요구와 한중수교는 북한을 경제·외교적으로 고립시켰다. 북한은 수령제의 고유성은 유지하면서도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발전의 희망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적이고 근대적인 평양과 잘 정비된 대동강의 선진적인 사회 변모를 통해 체제의 정당성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1993년 개봉된 조선영화 <대동강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동강, 평양 그리고 사회주의의 성취와 미래상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다. 이 영화는 당시로서는 다소 독특한 주제인 노년의 사랑과 재혼을 다루고 있다. <대동강-1호> 유람선의 고문선장인 강선달과 유치원 원장인 조복금 할머니가 영화의 주인공이다. 이 영화의 주요 무대는 통일거리 건설이 한창인 평양이다. 물론 당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내용도 등장하지만, 제트스키, 유람선, 낚시, 서커스 및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강선달은 선상에서 ‘휘파람’ 노래를 열창하고, 조복금 할머니는 손풍금을 직접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또한 의도적으로 외국인을 보여주면서 평양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영화에서 국가대표 수상스키 선수인 혜영과 대동강 건설 노동자인 동찬이 연인관계로 등장하며 이들은 서브 주인공 혹은 조연의 역할을 맡았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혜영의 집안 사람들은 능력 있는 자신의 딸이 평범한 청년인 동찬과의 연애하는 것을 못마땅해한다. 혜영의 어머니는 “아니 비행기만 타고 다니면서 국제무대에서 명성을 떨쳤다는 애가 어쩌다가 중첩선 총각을?”이라며 편하지 않는 마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였다. 하지만 이 대사는 북한의 인재들이 세계적인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과시하고 있다(물론 이 영화는 오해와 갈등을 해결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

또한 영화는 건설중인 통일거리를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일직선으로 곧

〈그림 2〉 영화 “대동강에서 만난 사람들”에서 묘사되는 여가생활과 통일거리 건설현장



게 뻗은 거리의 양옆으로 건설되는 고층아파트의 모습을 항공 촬영한 장면이 등장한다. 이 영화가 후일 김정은이 제시하는 ‘사회주의 문명국’ 담론의 초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선전영화를 통해 단기간은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정치경제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하여 이러한 선전은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시기의 대동강 주변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공간과는 거리가 멀었다. 1989년에도 대동강의 수질은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 1989년 김일성은 “그런데 평양시를 비롯하여 대동강을 끼고있는 도시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오수정화시설을 잘 갖추어놓지 않고 오수를 망탕 흘려보내기 때문에 대동강물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서해갑문을 건설하여 대동강을 아름답고 경제적 의의가 큰 강으로 만들어 놓은 것만큼 강물을 오염시키는 것은 큰 범죄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¹¹⁾라며 관련자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3년 북한이 UN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대동강 유역의 산림황폐화, 개발로 인한 수질 오염 및 다양성 훼손, 해수의 불유입으로 인한 강의 자정능력의 약화가 오염을 초래하였으며 당시 수질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도 없었다고 서술되어 있다.¹²⁾

4. 김정은 시대, 대동강 개발과 여가생활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주의 문명국’ 담론과 함께 본격적으로 문화시설을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평양의 스카이라인이 바뀌기 시작하는 즈음인 2015년 북한에서는 뷔페 식당이 운영되는 종합봉사선 ‘무지개호’가 개항하였다. 무지개호는 약 3500톤 규모의 선박으로, 이는 300-400톤의 한강 유람선보다 훨씬 큰 규모였다. 북한은 지도자가 직접 관련사항을 지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얼마전 나라일에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새로 건조한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조실태와 봉사활동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

11) 김일성, 「평양시의 도시경영사업과 공급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정무원, 평양시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9년 4월 20일」, 김일성, 『자연보호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3, p.410.

12) DPRK, “DPR KOREA: State of the Environment 2003”,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p.70.

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려는 당의 의도가 완벽하게 실현된 현대적인 봉사시설이 또 하나 생겼다고, 대동강과 정말 잘 어울린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는 인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봉사기지로 흥성일것이라고, 배를 타고 대동강을 유람하면서 웃고 떠들 인민들을 생각하니 쌓였던 피로가 가셔진다고, 이렇게 인민들에게 안겨줄 재부를 한가지, 한가지 마련해놓을 때가 자신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일이라고 하시면서 10월 10일전에 영업을 시작하라고 지시하시였다.¹³⁾

〈그림 3〉 종합봉사선 무지개호



출처: 『로동신문』, 2015년 9월 28일.

하지만 일반적인 평양 노동자의 임금만으로는 이곳에서 식사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북한의 특권층들만이 즐길 수 있는 배타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한강과 마찬가지로 대동강의 강폭이 넓기 때문에 배에서 야경을 보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 평양 대동강의 강폭은 평균 500m로, 한강의 평균 강폭 1km에 미치지 못하지만 템즈강 265m,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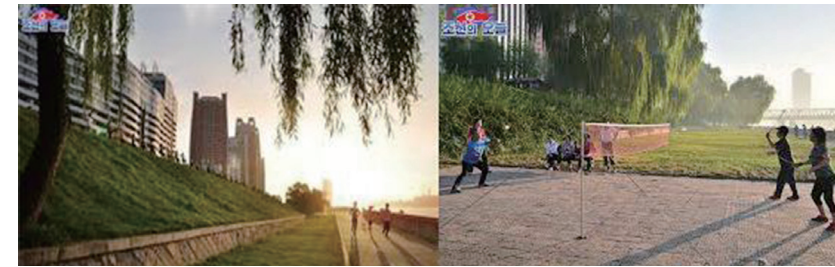
느강 200m에 비해 훨씬 넓다. 이뿐만 아니라 대동강 둔치의 경관을 밝게 꾸며야 하지만 야간에는 주체탑과 미래과학자거리의 일부 건물에만 조명이 들어오기에 운치가 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전 세계의 유람선의 관광객들과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는 북한 주민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에서도 휴대전화의 보급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 시기를 즈음하여 북한에서도 ‘조깅’ 문화가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남한에서는 1979년 방한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에서 장병들과 함께 조깅한 모습이 대서특필되면서 대한민국에서 조깅의 인기가 높아지고 보편화되었다.¹⁴⁾ 식량이 부족했던 시절, 일반 성인이 달리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었다. 또한 조깅을 하려면 사람이 달릴 수 있는 쾌적한 인도와 주변경관이 정비되어야 한다. 특히 새벽과 밤에 조깅을 하기 위해서는 조명이 필요하며, 적합한 운동복과 운동화도 필요하다. 카터 대통령의 방한이 조깅 붐을 가져온 분기점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시기에야 비로소 남한이 조깅문화

13) 「새로 건조된 종합봉사선 《무지개》호」, 『조선의 오늘』, 2015, 9, 30.

14)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으로 국내에는 조깅 붐이 새로 일게 됐다. 바쁜 일정의 카터 대통령은 한국에서 맞은 첫 아침인 30일에도 상오 5시 15분 동두천 미군 캠프에서 병사들과 어울려 3마일의 조깅을 즐기으로써 건강유지에 조깅이 얼마나 좋은가를 웅변했다.” 「웰컴! 카터 휴전선 바라보며 병영서 첫밤」, 『경향신문』, 1979, 6, 30.

〈그림 4〉 조선의 오늘에 나타난 대동강변의 여가생활



출처: 『조선의 오늘』 (현재 서비스 중지)

를 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과거 북한에서 달리기는 단체생활의 일부였다. 1967년 로동신문은 “조선 인민혁명군부대가 무산방면으로 진출할 대낮에 보무 당당히 행군한 《갑무 경비도로》를 찾은 전국의 각지 근로자들은 붉은기발을 추켜들고 혁명투사들처럼 일하며 싸울 일념으로 마음껏 달리고 있다”고 보도하였다.¹⁵⁾ 이 기사에서처럼 과거 북한에서 ‘아침달리기’는 단체 구보에 가까웠으며 이를 통해 사회주의적 협동정신을 증진시키려고 했다. 전문적인 운동선수만 개인적으로 달리기를 하였으며, 일반 주민들은 단체활동의 일환으로 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북한에서도 ‘아침달리기’가 보다 개인주의적인 형태로 변모하였다. 2018년 로동신문에는 “매일 아침마다 대동강반의 유보도를 따라 달리는 것이 어김없는 일과라고 하면서 어느 한 단위의 연구사로 일한다는 청년은 말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 온몸에 새 힘이 부쩍부쩍 솟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침달리기를 하고나면 연구사업에 대한 의욕도 더해지고 머리가 거뜬해져 사색에도 좋다고 하는 것이었다”¹⁶⁾라는 기사가 등장한다. 이 기사에는 모두 다 같이 뛰는 말이 등장하지 않으며 개인의 건강과 집중력 향상을 강조한다. 이 연구사는 대동강 근방에 거주하는 평양시민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평양 이외의 북한의 다른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시설이 갖추어지고 유사한 문화가 확립되었는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정리하자면, 북한에서 강변을 정비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단순히 도시발전을 넘어서 체제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뽐내는 작업이었다.

15) 「아침달리기」, 『로동신문』, 1967, 6, 3,

16) 「대동강반의 아침풍경」, 『로동신문』, 2018, 11,

5. 나가며

김정은이 야심만만하게 추진하였던 사회주의 문명국 정책이 서구를 그대로 표상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이 정책의 결과물이 서구와 질적으로 구별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볼셰비키 혁명 이후 상류층의 문화였던 발레의 공연료를 내리고 대중화하여 노동자와 농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바꾼 것처럼 새로운 사회주의적 윤리를 창출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평양과 대동강의 경관을 정비하면서 근대의 사회적 리듬이 등장하였다. 남북한이 공통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는 각 체제의 특권층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한강과 대동강의 문화를 보다 많은 사회구성원들에게 확산시키는 것이 아닐까? 

컬럼 3

평양 공간격차와 도시민의 삶

이시효 (명지대학교 교육미션센터 연구교수)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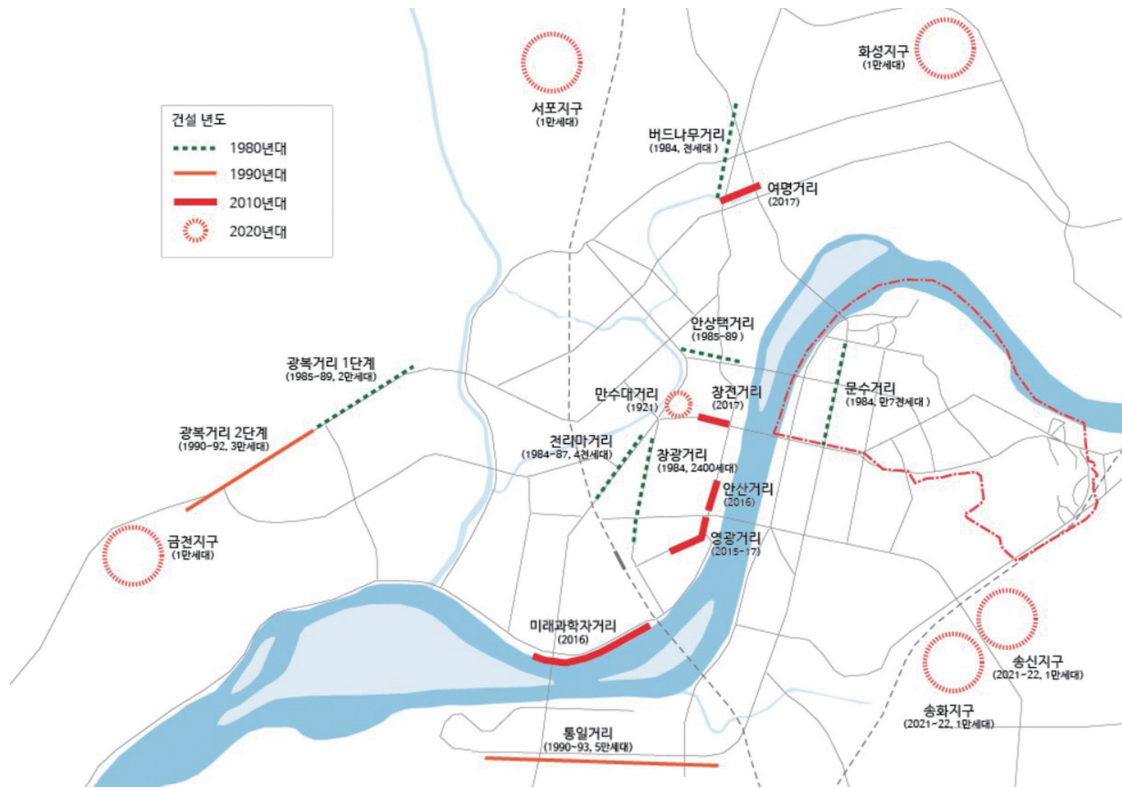
‘수령님이 거하시는’ 평양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변화의 핵심 도시이다. 남한의 서울 중심 종주도시화보다 북한의 평양 중심 현상은 더 높으며,¹⁾ 권력 뿐 아니라 모든 물자와 K-문화를 포함한 정보가 모이는 장소이다. 평양 주민은 성분, 직장 배치, 충성도 등의 엄격한 기준을 통해 평양 시민증이 발급되며, 그들은 평양 출입과 거주뿐 아니라 양호한 배급과 환경을 보장 받는다. 그렇다면 평양 시민은 모두 권력층이거나 돈주(자본가)인가? 평양에는 빈곤층이 거주하는 지역이 존재하지 않는가? 평양 시민은 모두 김정은 정권에 충성하며,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하는가? 이 질문들은 ‘평양 안의 흥미로운 모습’을 보기 위한 호기심이라기보다, ‘북한 변화의 중심인 평양의 민낯’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 글은 필자가 그간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연구했던 글들을 엮은 것이다.

평양 공간격차

정권에 충성하는 많은 권력층과 심사를 통과한 주민들이 거주하는 평양에도 빈곤 지역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구체적으로 그 위치는 어디인가? 르페르의 언급처럼 ‘사회적 생산물로 도시는 정복되고 약탈당하는 대상임과 동시

1) 이시효. (2024). “남북한 도시발전의 특징”. In: 통일한반도건설산업전략연구소 펴냄. 『통일을 대비한 북한도시 개발 구상』. 서울: 보문당.

〈그림 1〉 1980년 이후 평양 대규모 주택건설



출처: 이시호. (2023). “코로나 시기 김정은 정권의 평양 아파트 건설사업을 통한 통치 전략 연구: ‘송신·송화지구’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평화통일논총』 제2권 1호, 168쪽.

에 약탈하는 부의 장소'라면,²⁾ 계급 투쟁의 결과물로서 평양에는 공간적 격차가 존재할 것이다.³⁾ 그리고 평양에 빈곤 지역이 존재함을 증명한다면, 이는 '북한은 공간적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실재적 증거가 될 것이다.

불평등 공간으로서 평양은 끊임없이 개발되었다. 1950년대 전후 복구시기에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인력과 재원의 투입으로 건설이 이루어졌으며,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주체사상'을 떠받드는 '수령님의 도시'로, 1980년대는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개최하는 도시로 성장했다.⁴⁾ 1990년대 대량 아사(고난의 행군)와 시장도입 이후에도 평양은 끊임없이 건설되고 있으며, 2021년 이후에는 도심에서 외곽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건설이 확대되고 있다. 이 건

2) 이는 마치 '미래소년 코난'에서 권력의 중심 도시 인터스트리아 지하에 그 권력을 떠받들기 위한 무수히 많은 지하 빈민들이 존재하는 현상과 같을 것이다. 르페브르의 언급은 다음 책을 참조. Lefebvre, Henri, 양영락 역, 『공간의 생산』 (서울: 예코리브르, 2011), 108쪽.

3) 1984년부터 2003년 주체사상 도시 건설과 시장 도입의 실험과정에서 평양 권력의 재배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이시호. (2016). “시장도입 초기 평양 공간의 재배치: 1984-2003년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12권 2호. pp.6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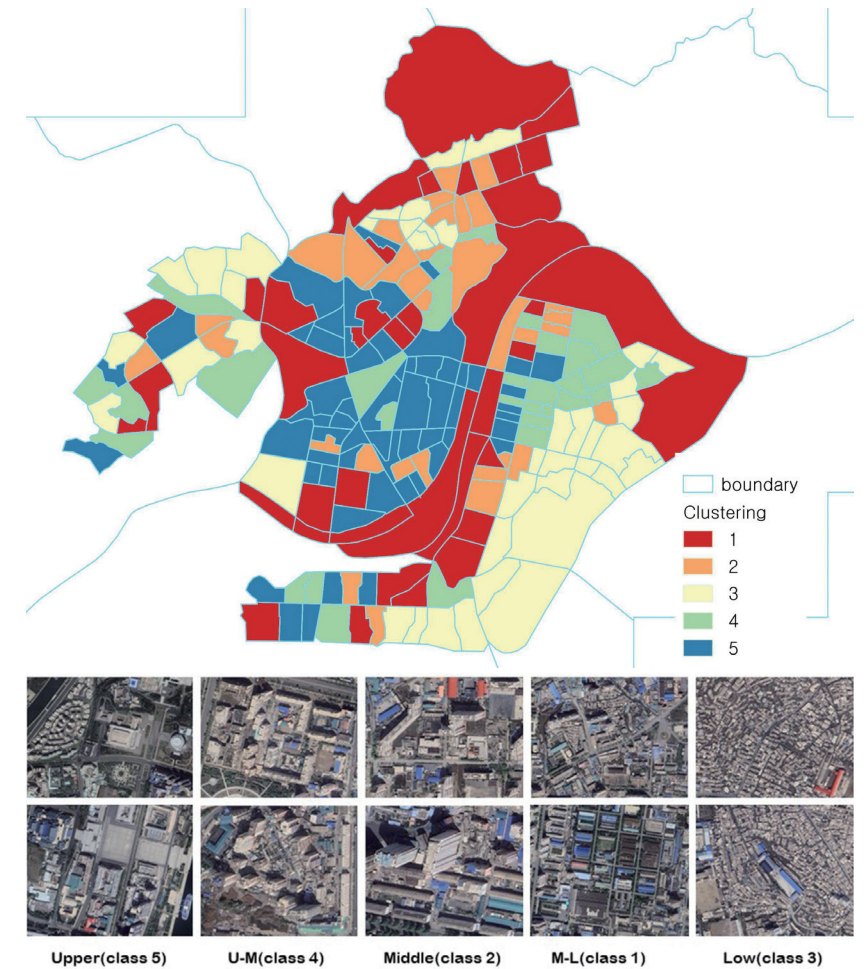
4) Lee, Sihyo. “The making of totalitarian city in Pyongyang: The spatial transition from free to ideology, and for marketization.” Bauhaus-Universität Weimar, Doctoral Thesis. (2020).

설의 과정은 '사회적 잉여(social surplus)'의 재배치와 집결, 공간적 불평등을 가져온다.

필자는 우선 평양 15개 구역 연구에서 평양은 마치 모자이크처럼 공간적 분할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했다.⁵⁾ 이후 이를 더 세분화해서 “동” 단위로 구분하고 위성자료(remote sensing data) 추출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분석을 통해 공간격차 연구를 이어갔다. 연구는 평양을 198개 ‘동’으로 나누고 16개 변수를 추출해 인공지능 방식 양적분석을 진행했으며,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는 평양 출신 주민 8명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분석 결과 하층 빈민이 거주하는 지역(노랑색, Class 3)은 대동강 남쪽 공장지대 외곽 저층 주택가에 집중되어 있다(〈그림 2〉 참조). 이곳의 특징은 1층 슬레이트 지붕 집(땅집)들이 주변 집들과 이격거리 없이 무계획적으로 밀집되어 있으며, 주변에 여유 공간이나 녹지가 없고, 도로는 포장되지 않은 좁은 골목들이(대부분 차량 통행이 불가) 미로처럼 얽혀 있다. 중하층민이 거주하는 지역(붉은색, Class 1)은 도시 외곽과 공장지대, 화력 발전소 인근에 나타나고 있으며, 공간적 특징은 공장과 저층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었다. 중층이 거주하는

〈그림 2〉 평양 198개 ‘동’ 공간격차 분석 결과 (위시 분석, 아래 위성사진 확인)



출처: Si-Hyo Lee, Moon-Gi Suh, Sung-Bae Kim, Myeongsook Baek. (2024). “Urban poverty patterns in Pyongyang (North Korea): A deep-learning-based spatial analysis,” Cities (Impact Factor 6.0). Vol. 151. <https://doi.org/10.1016/j.cities.2024.105109>

5) 이시호, 김성배, 기정훈. (2023). “평양 모자이크: 위성사진과 GIS를 활용한 평양 도심 15개 구역 빈부격차 연구.” 『현대북한연구』 26권 1호. pp.45-83.

주황색, Class 2의 경우는 도심 북쪽 모란봉구역과 서성구역 외곽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오래된 주택과 최근 재개발로 건축된 고층아파트가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상층이 거주하는(녹색, Class 4) 장소는 최근 자본가로 부상하는 '돈주'가 많이 거주하는 대동강구역과 고층 아파트가 많은 낙랑구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고층아파트와 주변의 넓은 도로와 녹지가 있었으며, 일부에서는 아파트와 상가, 주택이 혼재되어 있다. 최상층이 거주하는 지역(파랑색, Class 5)은 당 주요 행정기관과 김일성 광장, 고위층 거주지가 밀집한 중구역을 중심으로 있으며, 공간적인 특징은 고층보다는 중층아파트가 많고, 포장된 도로와 광장, 녹지 등이 많았다.

인터뷰에 따르면 평양에서 가장 빈곤한 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은 “선교구역 남쪽 외곽 무진동 쪽”이며 이곳은 “장마철이면 물이 차는 곳”으로 집값은 평양 도심에서 가장 싸다. 1층 단층집인 ‘땅집’도 지붕 마감, 벽 마감, 면적에 따라 시세가 다른데, 무진동 하천 근처 땅집은 “면적이 10~12제곱미터(3~4평)로 좁고, 방 하나, 부엌 하나 있는 집”으로 2010년대에는 “200~300 달러면 구입이 가능할 만큼 평양에서 가장 집값이 가장 싼 지역”이었다.

필자는 연구들을 통해 평양에는 구역과 '동'별로 공간격차가 존재하며, 특히 도시 외곽에 빈곤층 거주 지역이 존재함을, 곧 북한에 불평등이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평양 주민의 이중적 삶⁶⁾

평양 공간의 격차와 변화처럼 평양 주민들의 생각도 변하고 있는가? 이를 분석하기 위해 필자는 1990년대 이후 출생해 시장과 함께 성장한 평양의 ‘장마당 MZ 세대’를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했다. 청년세대를 분석한다는 것은 ‘세대문제’적, 인구학적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세대문제’적 측면에서 청년세대는 경험이 부족해 오히려 변화 중인 세계에서 쉽게 삶을 영위하며,⁷⁾ 기성세대와 달리 북한 청년세대는 시장 전환기라는 틈 사이에서 탄생한 ‘새로운 세대’로 억압과 시장의 공존하는 경험을 통해 ‘의식’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인구학적 측면에서도 1980년 이후 출생한 장마당 세대는 북한 인구의 절반이 넘는 58.7 퍼센트(2022년 기준)로, 전체주의 억압과 시장의 공존 상황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이들은 이미 북한의 ‘주류 세대’이

다. 연구는 밴 매넨(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방법인 4실존체 분석을 진행했는데, 4실존체란 어느 세계에나 존재하는 체험적 인간관계(관계성 혹은 공동체성), 체험적 공간(공간성), 체험적 신체(신체성), 체험적 시간(시간성)에 대한 의식적 구조이다.⁸⁾ 인터뷰 대상자 5명은 모두 1990년 이후 출생자로 평양에서 5년 이상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분석 결과 체험적 인간관계(관계성)의 특성은 부모의 권력과 부가 평양 청년 세대의 친구와 부모의 ‘관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고위층 자녀의 경우 부모의 권력과 부를 통해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듣는 등의 일탈행위 접근이 쉬우며, 발각이 되는 경우에도 권력을 통해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 이는 고위층 자녀에게 과감한 일탈행위와 외부 정부 접촉의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부모의 권력과 부가 부재한 자녀의 경우 고가의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혹시 발각될 경우 처벌을 면할 방법이 없어 일탈행위를 자제하거나 체념한다. 이는 부모와의 갈등, 계급별 또래 관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이 ‘비밀을 공유한 관계’는 성인 시기 인적 관계의 기반이 된다. 곧 계급별 또래 문화가 미래 삶에 영향을 미치며, 그 관계는 과거에 비해 더 고착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체험적 공간(공간성) 분석에서 평양 청년세대는 개인적 혹은 일탈적 공간인 ‘아지트’를 가지고 있었다. 공적 생활의 가식을 벗어 버리고 자유로운 사고와 행위를 즐기기 위한 이러한 장소는 계층에 따라 개인 방, 자신의 소유집, 친구 집, 개인상점, 도박장, 기숙사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전체주의 지배자는 “몇 입방 센티미터의 해골 속 외에는 자기 자신이란 것이 없는” 공간을 생산하려 하지만, 총체적 지배하에서도 인간은 “가까운 곳에 자기들만의 은신처를 갖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가지는 것이다.⁹⁾

체험적 신체(신체성) 분석에서 평양 청년들은 큰 키와 하얀 피부, 세련된 옷과 스타일을 통해 권력과 우월감을 드러낸다는 것을 확인했다. ‘파철 줍기’, ‘자원 수집’, ‘카드섹션’ 등에 햇빛 아래 동원되고 충분한 음식을 제공받지 못한 저소득층 학생들에 비해, 고위층 자녀들은 충분한 음식과 휴식을 통해 큰 키와 하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한국 드라마 등이 유행하면서 평양 청년들 사이에 ‘남한 스타일’ 옷과 머리 등이 유행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유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부를 은연중에 드러내는 행위이기도 하다. 한국 스타일을 유지한다는 것이 자본을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처벌에 대응

6) 이 부분은 필자의 논문 ‘이시호 · 김성배 · 김명희. (2022). “평양 청년세대 이중 의식구조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26권 2호. pp.113~145’를 기반으로 한다.

7) 만하임, 카를(Mannheim, Karl), 『세대 문제』, 이남석 옮김(서울: 책세상, 2013). 59쪽.

8) 매넨, 밴(Manen, Max van), 『체험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 신경림·안규남 옮김 (서울: 동녘, 1994). 48쪽.

9) 오웰, 조지(Orwell, George), 『1984』 42쪽, 19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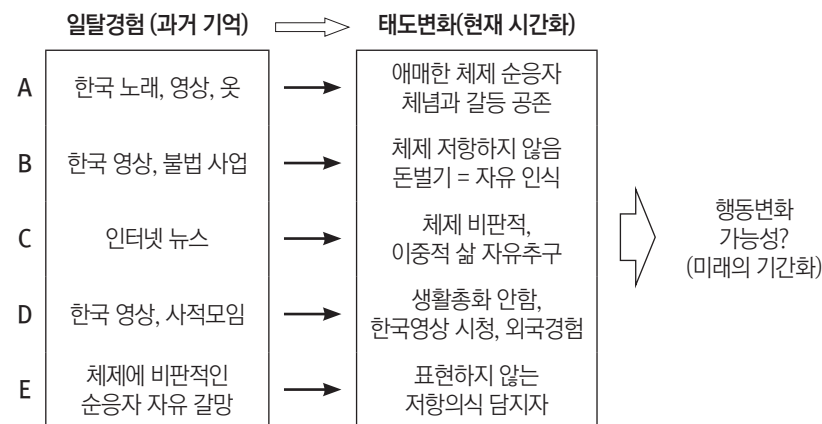
할 만큼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평양 청년세대에게 큰 키와 흰 얼굴, 한국스타일은 곧 권력과 돈을 상징하며, 이는 이성에게 더 많은 호감을 주는 요소이기도 한 것이다.

체험적 시간(시간성) 분석 결과 평양 청년세대의 일탈 경험은 태도와 의식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평양 청년세대에게 한국 영상, 뉴스, 외국 방문 경험은 강한 인상으로 그들의 뇌의 한 공간을 차지하고 ‘체화(體化)’되어 있으며,¹⁰⁾ 다가오는 현재 삶은 이 ‘체화된 시간화’의 대응이다. A는 안재욱 노래를 들으며 “너무 잘 생기고 그쪽 사람들 막 너무 딴 세상”으로 생각했으며, 동시에 그녀는 “10년 지나면 우리도 혹시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하는 “그런 망상”에 빠진다. 반복되는 영상의 ‘느낌’을 따라 D는 더 적극적으로 북한 이탈을 꿈꾸고 실천한다.

평양 청년세대 의식은 ‘이중사고’로 분열되고 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김정은을 찬양하고 사상비판을 하지만, 사적인 공간에서는 개인적 욕망을 표출하고 공유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중적인 삶의 괴리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도시의 익명성이 정신분열증에 대

한 자기 보호에 대한 대응이며,¹¹⁾ 노동자가 존엄성을 보전하기 위해 자신과 사회문제에 거리를 두는 것처럼,¹²⁾ 전체주의 도시에서 청년들이 삶을 이어가기 위한 괴리에 대한 무반응인 것이다.

〈그림 3〉 시간성: 평양 과거 경험과 태도변화



출처: 이시효, 김성배, 김명희. (2022).
“평양 청년세대 이중 의식구조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
26권 2호, 135쪽.

10) ‘학습 기억’과 달리 사건을 통해 기억된 ‘자발적 기억’은 즉각적으로 완전하며, 시간은 그것의 성질을 변하게 하지 않고는 그 상에 아무것도 덧붙일 수 없다. 이 강력한 기억은 현실 세계에서 이와 ‘인접성’이 높은 현상이 발생했을 때 소환된다. (베르그손, 앙리(Bergson, Henri), 『물질과 기억』 301쪽.)

11) 게오르그 짐멜. (1896),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 김덕영, 윤미애 역. 새물결. 2006. 41쪽.

12) 리처드 세넷, 조너선 코브, (1972), 『계급의 숨은 상처』, 김병순 역, 문예출판사, 2025, 252쪽.

〈그림 4〉 대동강구역의 주요 여가와 소비 공간



출처: 이시호·김성배·김명희.
(2022). “평양 일탈공간 연
구: 대동강구역 욕망 소비공간
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
구』 제34권 1호. 88쪽.

대동강 구역 욕망 소비공간¹³⁾

서울의 홍대처럼 평양에서 욕망이 소비되는 주요한 장소는 대동강 구역이다. 대중 교통의 종점이자 돈주들이 거주하는, 하지만 대동강 이남으로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한 이 지역은 많은 식당과 상점, 병원, 극장, 비공식 여가와 소비 공간이 존재한다. 이 글의 내용은 대부분 2000년부터 2010년을 전후한 상황을 설명한다. 현재 대동강구역의 상황은 이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한 번 경험한 사건은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강화된 통제는 1980년대 평양의 통제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대동강구역에서 시장도입 이후 거주한 5명과 인터뷰에 따르면 대동강구역 욕망 소비공간은 ‘애매한’ 공적 공간과 ‘은밀한’ 사적 공간으로 나뉜다. 대동강 구역의 공적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애매한’ 유희로는 문수유희장과 그 앞 야시장에서 행해지는 사적 모임들, 평양 유일한 볼링장인 평양볼링장의 모임, 그리고 돈주들이 주로 이용하는 문수거리 인근 호화 결혼식장 등을 들 수 있다. 이

13) 이 글은 다음 논문을 기반으로 한다. 이시호·김성배·김명희. (2022). “평양 일탈공간 연구: 대동강 구역 옥방 소비공간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34권 1호. pp.73-110.

문학 작품을 통해 본 평양의 역사와 풍광

권순궁 (세명대학교 명예교수, 전 한국고전문학회 회장)

에 비해 욕망 소비공간과 일탈 행동이 더 극적으로 나타나는 ‘은밀한’ 사적 공간은 ‘합의제’라는 이름으로, 혹은 불법으로 운영되며, 클럽(club), 남한 패션의 공간, 도박과 ‘갱(gang)’ 공간, ‘성적(sexual)’ 공간들로 나타난다. 이 공간들은 모두 대동강 뒷골목의 창고 등을 개조해 사용되며, 비밀리에 한국 옷을 팔거나 입고 다니며, 컴퓨터 게임 도박장을 운영하고, 모텔과 같은 성적 장소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당시 20대 여성이었던 E는 중구역에서는 불가능한 남한 옷을 입고 대동강구역 골목을 걸었다. 이 지역은 감시가 심하지 않기도 하지만, 만약의 경우 숨을 수 있는 공간도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찢어지고 짝 이렇게 된 거. 그런 바지에다가 전지현이 입고 다니는 투피스. 그 안에 나시 입고 반팔. 이렇게 배꼽 보일까 말까 하는 딱 붙는 거... 내가 딱 봐도 남한 애들 그 티비에, 드라마 영화에 나오는 <엽기적인 그녀>. 막 그런 거 다 봤어요. 그런 데서 나오는 남한 패션이지. 완전 그렇게 입고 다녔다니까요. 대동강구역에서. 근데 중구역은 절대로 안 되지 (E와 인터뷰)“

나가며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현현(顯現)인 평양은 모든 시민이 하나된 ‘자동 인형’¹⁴⁾으로 움직이고 통제되도록 당은 의도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무수한 공간과 삶, 생각의 파편들이 공존한다. 그리고 이 파편은 도시 공간은 완전 통제될 수 없고, 인간은 결코 온전히 이데올로기화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자유를 향한 북한 역사의 희망이다. 페레스트로이카 이전 ‘청바지를 입고 락(rock)을 듣던 소련의 젊은 세대는 시스템의 붕괴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막상 그것이 실현되자 놀라지 않고 곧바로 적응했다.’¹⁵⁾ 북한 도시 공간과 삶의 균열은 단순한 호기심과 일탈을 넘어 체제를 떠받치는 기반(사상)에 균열을 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스콧이 언급했듯이 “무대 뒤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일탈과 수군거림은 물줄기가 댐에 압력을 가하듯 추동적 힘을 가지며, 이 힘에 떠밀려 권력은 시민들에게 허용하는 행동의 수위를 계속 높여 갈 것”이다.¹⁶⁾

평양은 일찍이 삼조선(三朝鮮)¹⁾과 고구려의 도읍이었으며, 고려에서는 서경(西京) 혹은 서도(西都)로 불렸고, 조선에서는 관찰사를 두고 관서지역을 통괄하는 북선(北鮮)의 중심지였다. 근대 이후에도 일찍이 개화의 물결을 받아들여 서울과 맞서는 서북지역의 요지로 발전했다.

이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중국으로 오가는 사신들이 머무는 등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평양은 수많은 문학작품의 배경으로 등장했다. 멀리 <단군신화>와 <주몽신화>로부터 <서경별곡>은 물론이고 정지상의 <송인(送人)> 등 수많은 한시들이 평양의 인정세태와 풍광을 그려냈다. 그런가 하면 『금오신화(金鰲新話)』의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는 평양의 빛나는 문명과 그 멸망에 바치는 헌사며, <옥단춘전>, <오유란전>, <정향전>, <부용의 상사곡>, <추풍감별곡> 등의 고소설들이 평양을 배경으로 남녀 사랑과 당시 세태를 그려냈다.

왜 평양이 이렇게 많은 문학 작품을 생성할 수 있었던가? 오랜 역사적 자취가 남아있고 풍광이 어느 곳보다 빼어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평양의 지리가 역사와 인물을 환기시키고 아름다운 풍광이 문학 작품의 배경으로 등장해 평양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었던 것이다.

14) 한나 아렌트. (1951). 『전체주의의 기원 2』 이진우, 박미애 역. 한길사. 2006. 246쪽.

15) Yurchak, Alexei.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소비에트의 마지막 세대』. 김수환 역. 문학과지성사. 2019.

16) Scott, James C. 『지배, 그리고 저항의 예술』. 전상인 역. 휴머니티스. 2020.

1) 삼조선은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을 일컫는다. 『신증동국여지승람』 51권, <평양부>에 “당요(唐堯) 무진년에 신인(神人)이 태백산(太伯山) 박달나무 아래에 내려왔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그를 세워 임금 삼아 평양에 도읍하고 단군(檀君)이라 일컬었으니, 이것이 전조선이요, 주 무왕(周武王)이 상(商)을 이기고 기자(箕子)를 여기에 봉하니, 이것이 후조선이요, 전하여 41대 손 준(準)에 이르러 연인(燕人) 위만(衛滿)이 그 땅을 빼앗아 왕험성(王險城)[험(險)은 검(儉)이라고도 쓰니, 바로 평양이다.]에 도읍하니, 이것이 위만조선이다.”고 하였다.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1. 신화(神話)의 공간으로서 평양

평양은 신화의 무대다. 북방계 신화인 <단군신화>와 <주몽신화>가 평양을 무대로 전개된다. 우선 <단군신화>를 보면 “(왕검은) 요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50년이 되는 경인(庚寅)에 평양성(平壤城, 지금의 西京)에 도읍하고 비로소 조선이라고 불렀다.”²⁾고 한다. 한반도 최초의 국가인 ‘조선(朝鮮)’이 세워진 곳이 바로 평양이다. 이를 기리기 위해 세종 11년(1492) 처음 평양에 단군사당을 세웠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단군사당은) 동명왕사(東明王祠)·기자사(箕子祠) 곁에 있다. 두 사(祠)가 같은 집에 있는데 단군이 서쪽에 있고 동명이 동쪽에 있으며 모두 남향(南向)이다. 해마다 봄·가을에 향(香)과 축문을 내려 중사(中祀)로 제사 지낸다. 본조(本朝) 세종(世宗) 11년(1429)에 처음 설치했다.”³⁾고 한다. 단군과 주몽을 같이 모시고 제사를 지냈으니, 조선 초에 이미 고조선과 고구려를 한반도의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단군과 동명왕의 업적을 기렸던 것이다.

<단군신화>에 비해 <주몽신화>의 자취는 많이 남아 있고, 이를 기려 다수의 문학 작품이 창작되었다. 동명왕의 궁인 구제궁(九梯宮) 터가 고구려 시대의 절인 영명사(永明寺) 안에 있다고 한다. 구제궁 안에 영명사의 누각인 부벽루(浮碧樓)가 있고, 그 아래에 기린굴이 있으며 대동강 가에 조천석(朝天石)이 있어 동명왕의 기린말이 조천석을 밟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동명왕(東明王)이 이곳에서 기린말을 길렀다고 하는데, 뒷사람이 비석을 세워 기념하였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왕이 기린말을 타고 이 굴에 들어오니 땅속에서 조천석이 나와 하늘로 올라갔다 한다. 그 말발굽 자국이 지금까지 돌 위에 있다.”⁴⁾고 한다.

하지만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것은 역사적으로 20대 장수왕 때인 427년(장수왕 15)이다. 주몽이 졸본성(卒本城)에 고구려를 건국한(B.C 37) 지 무려 464년 뒤의 일이니, 주몽이 기린말을 타고 하늘로 올랐다는 기록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야기를 통해서 동명왕이 계속 살아 기린말을 타고 하늘에 올랐음을 말한다. 그 증거물인 기린굴, 조천석 등이 아직도 남아있고, 조천석 위에는 기린말의 발자국이 남아 있다고 이야기는 전한다.

이색(李穡, 1328~1396)은 이 사적으로 두 편의 시를 지었는데, 절창은 <부벽루(浮碧樓)>다.

어제 영명사(永明寺)를 지나다가	昨過永明寺
잠깐 부벽루(浮碧樓)에 올랐네.	暫登浮碧樓
텅 빈 옛 성(城)에는 한 조각 달이 걸려 있고	城空月一片
늙은 돌 위에는 구름도 천추(千秋)나 되었네.	石老雲千秋
기린마(麒麟馬)는 떠나가고 돌아오지 않는데	麟馬去不返
천손(天孫)은 어느 곳에서 노닐고 있는고?	天孫何處遊
난간에 기대어 길게 휘파람 부니	長嘯倚風磴
산은 푸르고 강물은 절로 흐르네.	山清江自流

고려말 기울어 가는 국가의 운명을 고구려를 건국한 동명왕의 영웅적 자취와 현재의 허망함을 연결해 노래했다. 이 시는 부벽루 일대를 번성했던 고구려의 흥망과 동명왕이 떠난 장소로 이미지화하여 수많은 시인들에 의해 회자됨으로써 그 허망한 자취를 고려말의 기울어져 가는 국운에 빗대어 노래한 회고시의 공식이 되었다.

한편 동명왕은 재위한 지 19년 만에 죽어 용산(龍山)에 묻혔다. 이규보의 <동명왕편>에는 “가을 9월에 왕이 하늘에 오르고 내려오지 않으니 이때 나이 40이었다. 태자가 왕이 남긴 옥채찍을 대신 용산에 장사하였다.”⁵⁾ 한다. 같은 이야기가 『세종실록지리지』에도 나온다. 그 용산은 지리적으로는 분명 고구려가 개국한 터전인 졸본 지역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졸본에 있어야 할 동명왕의 무덤이 현재까지도 평양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와 같은 인식이 생긴 것은 고구려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멸망한 후 고구려의 건국지인 졸본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상실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더구나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동명왕을 용산에 장사지냈다는 기록을 토대로 동명왕의 무덤이 압록강 유역의 졸본이 아니라 평양에 있다는 인식이 생겨났고, 이러한 인식은 조선의 세종대에 이르러서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후로는 동명왕의 무덤이 평양에 있다는 것이 정설로 인식되어 현재 평양에 동명왕릉이 있다.

2) 『古朝鮮』, 『三國遺事』 권1, 奇異 上, “以唐高卽位五十年庚寅(唐堯卽位元年戊辰.則五十年丁巳.非庚寅也.疑其未實)都平壤城(今西京)始稱朝鮮.” [한국고전종합DB]

3) <평양부>, 『신증동국여지승람』 51 권, “東明王祠.在箕子祠傍.二祠同宇.檀君在西,東明在東,俱南向.每春秋降香祝,祭以中祀.本朝世宗十一年始置.” [한국고전종합DB]

4) <평양부>, 『신증동국여지승람』 51 권, “東明王養麒麟馬于此,後人立石誌之.世傳王乘麒麟馬入此窟,從地中出朝天石升天,其馬跡至今在石上.” [한국고전종합DB]

5)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권3, <東明王篇>, “秋九月.王升天不下.時年四十.太子以所遺玉鞭.葬於龍山云云.”

2. 사라진 찬란한 문명과 절의, 부벽루(浮碧樓)



일제강점기 대동강변의 부벽루 (사진 출처: 공유나라)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의 『금오신화(金鰲新話)』 중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는 오롯이 평양을 무대로 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미 첫 문장부터 “평양은 옛 조선의 도읍이었다.”⁶⁾고 시작한다. 흔히 평양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삼조선의 도읍으로 불리는데, 〈취유부벽정기〉는 그중에서 기자조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왜 기자(箕子)인가? 작품에서 “주(周)나라의 무왕이 은(殷)나라를 치고 기자를 찾아가니 ‘홍범구주(洪範九疇)’의 법을 일러주었

으므로 기자를 그 땅에 봉하였으나 신하로 삼지 않았다.”⁷⁾고 한다. 그리고 그 뒤에 기자는 조선으로 건너간다. 이른바 ‘기자동래설(箕子東來說)’로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지만 기자가 이 땅에 와서 단군의 뒤를 이어 문명을 전하고 다스렸다는 것이다. 고려 시대에 사당이 건립됨으로써 그때부터 기자는 역사적 인물로 소환되어 숭앙되기 시작했으며, 조선을 건국한 신홍사대부들에 의해서 일찍부터 중화의 문명을 전해준 인물로 기정사실화되었던 것이다. 이민족인 원나라 지배와 맞서기 위해 중화문명의 전래지인 ‘소중화(小中華)’로서의 자부심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취유부벽정기〉에서 개성 출신의 부호인 홍생이 등장한다. 그는 젊고 잘 생겼으며 풍류가 있었고 글을 잘 했다. 친구인 이생이 벌인 잔치에서 술에 취한 홍생은 흥에 겨워 배를 저어 부벽루에 이르러 고구려의 멸망을 슬퍼하는 시를 지어 읊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구려의 멸망뿐만 아니라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의 자취도 찾을 길이 없다고 한탄한다. 이 장소가 〈평양성도(平壤城圖)〉에서 보듯이 고조선과 고구려의 상징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부벽루의 돌층계를 올라가면 영명사에 이르고 그곳에 동명왕의 궁인 구제궁(九梯宮)이 있으며, 가까이 현무문 밖 토산(兔山) 위에 기자묘(箕子廟)가 있다. 더욱이 평양 성내의 리방(義理坊)에 단군사당, 기자사당, 동명왕 사당이 같이 모여 있다가 단군사당과 동명왕 사당은 1429년(세종 11)에 합사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부벽루란 공간은 단군조선과 기자조선 그리고 고구려가 시간을 뛰어넘어 서로 겹치는 곳이다. 이 공간에서 여러 역사의 시간층이 존재하고 홍생은 주름 잡힌 시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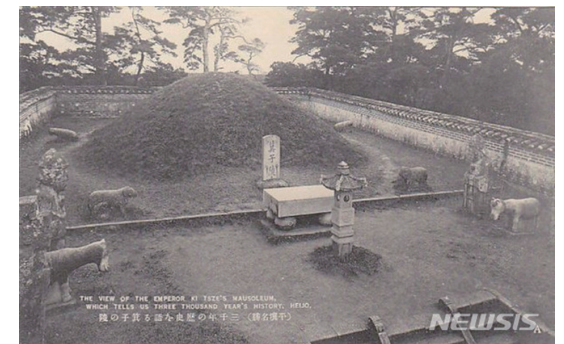
사이에서 자신이 만나고 싶어 하는 역사 속 인물을 만나게 된다.

홍생이 시를 읊자 은왕(殷王)의 후손인 기씨의 딸[箕氏之女]이 등장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자 시로 화답한다. 그 시들도 역시 망국에 관한 것이다. 동일한 공간에서 활약했던 영웅들을 겹쳐진 시간의 층 속에서 조우하는 것이기에 자연스럽게 고구려의 멸망은 기자조선의 멸망과 동일시된다. 그런데 기씨의 딸은 바로 기자조선의 마지막 41대 준(準) 왕대에 연나라 위만(衛滿)에 의해 멸망한 사실과 자신이 그 왕의 딸임을 말한다. 그리고 ‘정절’을 지키기 위해 죽으려고 작정했을 때 단군이 나타나 신선의 세계로 데려가 불사의 신선으로 살다가 문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일어나 이곳에 오게 됐다고 한다.

작품에서 기자조선의 멸망을 “하루아침에 하늘의 도가 어그러지고 재환(災患)이 문득 닥쳐와… 필부의 손에 패하여 죽음을 당하시고 마침내 종묘사직을 잃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느닷없는 ‘세계의 황포’로 기자조선의 멸망은 당시 ‘세조정변’을 알레고리화한 것이다. 그러기에 “조선의 왕업이 무너졌다”는 언술은 단군조선이나 기자조선뿐만 아니라 김시습 당시의 ‘조선’과도 상통한다. 조선의 멸망이 중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작품에서 시를 통해 “지금 슬퍼하니 근심이 일어난다[傷今自買憂]”고 한다. 지금이 언제인가? 작품에서 천순(天順, 명나라 英宗의 연호로 1457~1464) 초년으로 명시했으니 바로 1457년(세조 3)이다. 1455년(세조 1) 단종에게 선위(禪位) 방식으로 왕위를 찬탈한 세조가 1456년(세조 2) ‘단종복위운동’의 주역들이었던 사육신을 처형하고, 1457년(세조 3)에는 단종을 영월로 유배 보내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등시킨 다음 사사(賜死)하여 저항하던 모든 세력들을 평정한 때다. ‘지금’은 바로 1457년이니, 생육신의 한 사람이었던 김시습으로서 그런 피 비린내 나는 현재를 슬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그러기에 여기에 세계의 황포에 맞서는 ‘정절’이 문제 되는 것이다. 기자역시 무왕의 스승이었지만 은나라가 망하자 주나라에 투항하지 않고 절의를 지켰다. 귀순하여 주나라에 신하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저항하며 은나라에 대한 절의를 지킨 것이다.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절의를 지키기 위해 평생 방외인(方外人)의 삶을 살았던 김시습과 일치하는 바가 있다. 〈취유부벽정기〉에서 이들의 후손인 기씨의 딸을 통해 지금은 사라졌지만 찬란했던 문명을 회고하며 역사적 황포에 맞서는 절의를 드러내어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의 엽서에 나오는 기자묘, 북한정권 수립 이후 김일성은 기자묘를 사대주의의 산물이라 하여 파묘했다. (사진 출처: 뉴스시스)

6) 〈醉遊浮碧亭記〉, 『국역 매월당전집 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0, 336면. “平壤古朝鮮國也”

7) 같은 책, 같은 곳, “周武王克商, 訪箕子. 陳洪範九疇之法, 武王封于此地, 而不臣也.”

3. 이별의 정한(情恨), 그리움의 공간으로서 대동강(大同江)



일제강점기의 평양 시내, 뒤쪽으로 대동강과 대동문(우측)이 보인다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대동강은 “일명 패강(溟江), 또는 왕성강(王城江)이라”⁸⁾ 불리며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최자(崔滋, 1188~1260)는 <삼도부(三都賦)>에서 “뭇 물줄기 모였으니 이름이 대동강(大同江)이라, 해맑고 넘실넘실, 번쩍여 출렁출렁. 호경(鎬京)을 안고 풍수(豐水)를 모아온 듯, 깨끗하긴 흰 비단을 깐 듯, 해맑기는 청동(靑銅) 같은데, 비단 닛줄을 풀

고 목란(木蘭) 배를 띄워 중류(中流)에서 머리를 돌리니 황홀하여 병풍 속에 있는 듯하네.”⁹⁾라고 대동강의 맑고 아름다운 모습과 주변의 빼어난 풍광이 마치 병풍 속에 있는 것 같다 했다.

그런데 대동강은 평양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변화한 곳으로 나루가 많아 강을 건너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이별의 장소를 제공한다. 해서 사람들이 헤어지면서 이별의 눈물을 흘린 장소가 바로 대동강이다. 이런 이별의 정한을 지리적 심상으로 각인시킨 최고의 절창은 정지상(鄭知常, ?~1135)의 <송인(送人)>¹⁰⁾ 일 것이다.

비 갠 긴 독에 풀빛만 짙은데	雨歇長堤草色多
남포로 남 보내니 슬픈 노래 북받치는구나.	送君南浦動悲歌
대동강물이 언제 마를 것인가	大同江水何時盡
해마다 이별 눈물이 푸른 물결을 보태네.	別淚年年添綠波

비[雨]는 슬픔의 이미지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히는 건 이별의 순간에 비가 개고 세상은 온통 환희로 빛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더욱 슬프다. 이별이나 그리움은 아련한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비 온 뒤의 짙은 초록으로 치장하고 있다. 당연히 슬픈 노래가 북받칠 수밖에 없다. 세상은 이토록 찬란한데 어찌해서 우리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런데 사소한 인간사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 무심한 세월처럼 대동강은 흘

8) <평양부>, 『신증동국여지승람』 51권. “一名溟江, 又名王城江.” [한국고전종합DB]

9) 같은 곳. “衆水所匯, 名爲大同。晶滌混漾, 抱鎬斂灋。淨鋪素練, 皎若靑銅。解錦纈浮蘭舟, 中流回首, 恍然如在畫屏中也。”

10) 원래는 『동문선』 권 19에 실려 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 <평양부> ‘남포’에도 실려 있다.

러간다. 흘러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우리의 덧없는 인생사가 바로 강물이다. 그래서 헤어지면 다시 만날 기약이 없기에 강이 이별의 장소로 적합한 것이다. 그런데 정말 기막힌 건 그 강물에 이별의 눈물이 보태져 마르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제 대동강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이별의 눈물이 보태져 흐르는 처절함으로 바뀐다. 대동강이 비로소 이별의 이미지를 부여받는 순간이다.

이와 비슷하게 이별의 아픔을 대변하고 있는 노래가 고려속요 <서경별곡(西京別曲)>이다.

西京이 아즐가/ 西京이 서울히마르는
 닳곤디 아즐가/ 닳곤디 쇼성경 고외마른
 여히므론 아즐가/ 여히므론 질삼뵈 브리시고
 괴시란디 아즐가/ 괴시란디 우러곰 좇니노이다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에 디신돌
 긴히쑤 아즐가/ 긴히쑤 그초리잇가 나눈
 즘은 히를 아즐가/ 즘은 히를 외오곰 녀신돌
 빙잇돈 아즐가/ 빙잇돈 그초리잇가 나눈

大同江 아즐가/ 大同江 너븐디 몰라셔
 빙 내여 아즐가/ 빙 내여 노흔다 샤공아
 네가시 아즐가/ 네가시 아즐가 림난디 몰라셔
 널빅에 아즐가/ 널빅에 연즌다 샤공아
 大同江 아즐가/ 大同江 건너편 고줄여
 빙 타들면 아즐가/ 빙 타들면 것고리이다 나□ <악장가사(樂章歌詞)>

이 노래는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속요(俗謠)로 특히 ‘서경’을 표제로 내세워 주목된다. 왜 ‘서경’이라 했을까? 작중화자가 사는 곳이 서경이며 당시 새로 닦은 ‘작은 서울’이라고 했다. 서경을 언제 새로 닦았을까?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의하면 “고려 태조 원년(918)에 평양이 황폐하였기 때문에 염주(鹽州)·백주(白州)·황주(黃州)·해주(海州)·봉주(鳳州) 등 여러 고을의 백성들을 옮겨 인구를 채워 대도호부(大都護府)를 삼았고, 조금 뒤에 서경(西京)으로 삼았다. 광종(光宗) 11년(960)에 서도(西都)라 개칭하였고, 성종(成宗) 14년(995)엔 서경유수(西京留守)라 일컬었고, 목종(穆宗) 원년(997)엔 또 호경(鎬京)이라 고쳤다. 문종(文宗) 16년(1062)에 다시 서경유수라 일컫고 경기(京畿)

사도(四道)를 두었고, 숙종(肅宗) 7년(1102)에 문무반(文武班) 및 오부(五部)를 설치하였다.”¹¹⁾한다. 여기에 의하면 서경은 이미 고려 초에 고구려 멸망 후 황폐해진 평양을 주변 고을 사람들을 이주시켜 ‘신도시’로 건설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신도시 서경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있는 작중화자는 이별하기보다는 길쌈하는 베를 버리고서라도 사랑하는님을 따르겠다고 한다. 자신이 사는 소중한 삶의 터전인 서경을 남이 계속 사랑해 준다면 과감히 버리고, 더군다나 울면서 따르겠다고 한다.

다음은 <정석가>에도 등장하는 ‘사랑의 맹세’다. 천 년 동안 서로 헤어져 외롭게 살아가더라도 구슬의 끈처럼 사랑의 믿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한다. 헤어짐을 예상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짐을 한 것일까? 혹은 남에게 자신의 사랑이 절대 변함없을 거라고 맹세한 것일까?

그렇게 다짐을 했건만 세 번째 연에 오면 상황은 바뀐다. 남이 사랑해 준다면 따르겠다던 여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결국 가지 못하고 서경에 남아 대동강을 건너는 남만 바라보아야 했다. 사랑이 원망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그러기에 남을 태우는 뱃사공을 향해 원망을 퍼붓는다. 애꿎은 사공을 향해 “네 각시가 음란한 줄 몰라서 가는 배에 태우느냐?”고 증오에 찬 악담을 퍼붓는다. 이 원망은 다시 남에 대한 불안감으로 확대된다. 아직 남이 대동강을 건너지도 않았는데 건너가면 다른 여자를 취할 거라는 불길한 생각까지 미치게 된다.

고려속요가 흥겨운 궁중무악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특히 ‘도시적 사랑과 이별’의 정조를 담은 ‘도시유행민요’가 바로 <서경별곡>이다. 소박한 <가시리>의 정서와는 다른 보다 애절하고 절박한 이별의 한을 보여준다. 여기에 이르면 대동강은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절박한 이별의 장소로서의 심상을 각인시키게 된다. 대동강에서 이런 애절한 이별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남과의 이별은 기다림으로 이어지고,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남을 향한 그리움만 쌓인다. 해서 남을 그리는 상사별곡(相思別曲)들이 등장하는데, 평양을 무대로 등장한 노래가 바로 <추풍감별곡(秋風感別曲)>이다. 동일한 제목의 ‘신작 고소설’이 있기도 하며, 이 가사는 그 소설에 실려 있다. ‘서도잡가’로 알려져 가창된다. 평양의 구체적 장소가 등장한 부분을 보자.¹²⁾

삼춘(三春)에 즐기던 일 옛날 일이던가 꿈이런가/ 가랑비 뿌리는 쓸쓸한 창가에 사무치는 깊은 정은/ 달 밝은 밤 속삭일 때 백년 사자 굳은 언약 모란봉 높고 높고 대동강 깊고 깊어/ 무너진 줄 몰랐으니 끊어진 줄 알았으랴/ (중략)

아해야 술 부어라 행여나 진정할까/ 잔대로 가득부어 취토록 먹은 후에 석양산길로 을밀대(乙密臺) 올라가니/ 풍광(風光)은 예와 달라 만물이 쓸쓸하다/ 능라도(綾羅島) 쇠한 버들 성긴 가지 허전하고/ 금수봉(錦繡峯) 꽃진 나무 상엽(霜葉)이 한들거린다./ 인간에 변화함을 측량하여 이룰손가/ 가련히 눈을 들고 원근은 바라보니/ 마탄(馬灘)에 이는 물결 넓고 멀어 추억 같고/ 용산(龍山)에 늦은 경치 뻑뻑함이 심사 같다.

보통문(普通門) 송객정(送客亭)에 이별 아껴 설워마라/ 초패왕의 장한 뜻도 죽기로 이별 싫어/ 옥장비가(玉帳悲歌)에 눈물을 지었으나/ 오강(烏江)에서 자결할 때 우단 말은 못 들었네/ 천지는 몇몇 해며 이별은 누구누구/ 세상이별 남녀 중에 날 같은 이 뉘 있을까

수로문(水路門)에 뜨는 배는 향하는 곳 어디메뇨/ 온갖 시름 실은 후에 천리약수(千里弱水) 건너가서/ 우리 님 계신 곳에 수이수가 풀고 지고/ 성(城)가에 늦은 풍경 건디어 못 볼내라/ 긴 탄식 짧은 한숨에 곱은 난간 의지하니/ 바람결에 오는 종소리 묻나니 어느 절이고

깊신을 떨쳐 신고 삼가 일어나 걸어/ 영명사(永明寺) 찾아들어 중아 물어 보자/ 인간이별 내신 부처 어느 탑전(塔前) 앉아 계신고/ 임 그린 일편단심 차라리 죽어져서/ 백골은 진토 되나 혼령은 높이 날아/ 님 앉으신 난간 앞에 열른 와 보리로드/ 다시금 생각하니 이 또한 천수(天數)로드/ 죽장을 고쳐 잡고 부벽루(浮碧樓) 올라보니/ 들 밖에 점점 봉(峯)은 구름 속에 솟아 있고/ 청강에 흐르는 물 하늘과 한 빛이라/ 이윽고 뜨는 명월 교교히 비치는데/ 그린 상사(相思) 지리한 중 옥면(玉面)인가 반겼더니/ 어이한 뜬 구름이 밝은 빛을 가리웠소/ 어와 이 웬 일이고 조물주의 탓이로드

작중화자는 평양에 우뚝 솟은 모란봉과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처럼 사랑이 영원할 줄 알고 맹세했는데, 무너지고 끊어져 온갖 시름이 일어난다. 더욱이 가을바람이 쓸쓸히 불어오니 남을 여인 한과 그리움을 풀어낼 길이 없어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한 뒤에 풍광이 좋은 명승지를 찾아간다. 을밀대를 올라보니 만물이 쓸쓸하고, 능라도를 가보니 쇠한 버들가지가 허전하고, 금수봉에 오르니 꽃지고 서리 맞은 잎이 처량하다. 마탄의 물결은 아득한 추억 같고, 용산의 늦가을 경치는 자신의 복잡한 심정과 같다. 보통문 옆 송객정에서 이별하는 사람들

11) <평양부>, 『신증동국여지승람』 51권. “高麗太祖元年，以平壤荒廢，量徙鹽、白、黃、海、鳳諸州民以實之，爲大都護府，尋爲西京。光宗十一年改稱西都，成宗十四年稱西京留守，穆宗元年，又改鎭京。文宗十六年，復稱西京留守，置京畿四道。肅宗七年，設文、武班及五部。” [한국고전종합DB]

12) 가사는 『秋風感別曲』, 신구서림, 1913, 98~115면에 실려 있다. 필자가 현대 표기로 바꿨으며 평양의 구체적 장소는 진하게 표시했다.



조선시대 평양성도

중 자신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한다. 수로문에서 뜨는 배를 타고 넘 계신 곳을 찾아가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다. 할 수 없어 영명사를 찾아가 어느 부처님이 인간이 별을 내셨는가를 따지려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다. 결국 부벽루에 올라 밝은 달을 보며님의 얼굴을 그렸지만 구

름에 가려 모든 걸 조물주의 탓으로 돌리고 숙명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고 한탄한다.

이들 노래에서 평양의 명승지들이 모두 이별의 한과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만큼 대동강변의 을밀대, 능라도, 부벽루 등 명승지들은 이별의 한과 그리움으로 심상이 각인돼 있다.

4. 변화한 세태, ‘기녀소설’ 속의 평양

평양은 이른바 ‘색향(色鄕)’으로 이름이 높아 평양 기생이 미색이 뛰어났으며, 기생들을 교습하는 교방(敎坊)도 늘 북적였다. 정지상은 〈서도(西都)〉라는 시에서 “호화로운 거리에 봄바람 불어 보슬비 지나가니, 티끌 하나 일지 않고 버들가지 늘어졌네. 푸른 창 주홍 문에 피리 섞인 노랫가락 목메어, 집집이 모두 기방일세.”¹³⁾라고 평양의 기생집들을 묘사했다. 이는 평양 기생과 관련된 수많은 ‘기녀담’이나 ‘기녀소설’이 다수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

세종의 형인 양녕대군(讓寧大君)과 정향(丁香)의 이야기를 다룬 세태소설 〈정향전〉을 보면 양녕이 세종에게 “평안도는 본디 경치가 좋은 곳이어서, 산천이 수려하고 풍물이 심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서너 달 휴가를 얻어 평양성의 을밀대에 한 번 가서 기자가 남긴 자취를 보”겠다고 하지만 세종이 “평안도는 본

디 기생들로 이름난 색향입니다. 혹 주색에 몸과 마음이 상할까 염려되어 허락하기 어렵습니다.” 한다.¹⁴⁾ 평양의 기생들이 미색이 뛰어남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미색을 평양의 빼어난 경치와 연결시켜 주목된다. 양녕을 유혹하기 위해 평양감과 공모하는 과정에서 정향이 “저는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으나, 이곳 명승지에 뛰어난 미색이 없지 않음을 한번 보이도록 해주십시오.”¹⁵⁾라고 간청한다. 빼어난 경치는 곧 출중한 미색과 연결되어 지리와 인물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런데 양녕대군은 평양에 와서 우선 아름다운 경치와 변화한 세태에 반하게 되니 자연 정향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고양이를 쫓아 집에 뛰어 들어온 정향에 반한 대군은 실수를 너그려이 용서해주는데, 당시 평양의 정경을 작품은 이렇게 그리고 있다.

이때는 춘삼월이었다. 평양성 가득한 화려한 집에는 푸른 버들과 붉은 살구꽃이 피어, 완전히 비단에 수놓은 병풍을 둘러친 듯 더할 수 없이 좋았다. 그리고 길고 짧은 노랫소리가 슬프게도 들리고 호죽(豪竹) 소리가 집집마다 시끄러우니, 노래하는 기생과 거문고 타는 여인들이 변화한 고장임을 알 수 있었다.¹⁶⁾

춘삼월의 아름다운 풍광과 변화한 세태를 자랑하는 평양의 경관은 앞으로 양녕대군과 정향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복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가 하면 〈춘향전〉을 평양으로 무대를 바꾼 〈옥단춘전(玉丹春傳)〉은 평양감사가 대동강의 연광정(練光亭)이나 배 위에서 잔치를 벌이고 여기에서 사건이 발생하는데, 내막은 이렇다. 평양감사 김진희와 막역한 친구 사이였던 이혈룡이 연광정에서 여는 잔치 자리에 가서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지만 감사는 오히려 이혈룡을 대동강에 빠트리려 죽이려 한다. 마침 잔치에 참여했던 기생 옥단춘이 사공을 매수해 이혈룡을 구하고 인연을 맺는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혈룡을 배에 태워 대동강에 빠트리려 끌고 가는 과정에서 대동강의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대동강의 풍경을 가장 잘 그려냈다는 김황원(金黃元, 1045~1117)의 저 유명한 “긴 성벽 한편으로는 넘실넘실 강물이요, 넓은

13) 李能和, 『朝鮮解語花史』, 동문선, 1992, 61면. “紫陌春風細雨過, 輕塵不動柳絲斜. 綠窓朱戶笙歌咽, 盡是梨園弟子家.”

14) 신해진 역주, 『朝鮮後期 世態小說選』, 월인, 1999, 96면. “關西素是名勝之地也, 山川秀麗, 物景甚佳. 臣請得三四朔之留, 一往于平壤乙密城, 觀箕子之遺迹…關西素是花柳之鄉也, 或恐傷於酒色, 故不堪許也.”

15) 같은 책, 99면. “妾雖爲萬死, 庶可一當使此名區不至於無色矣.”

16) 같은 책, 103면. “此時春三月也. 滿城華屋, 綠柳紅杏, 宛若錦繡屏帳. 而長歌短唱哀練, 豪竹家家蜂鬧, 可知其歌妓, 琴娥繁華之地.”

평양의 교회를 찾아서 (교회의 전래로부터 평양 대부흥까지)

들어가며

1885년 선교사의 조선 입국이 시작된 이후 초기의 선교사들은 주로 서울에 정착했다. 이후 조선에 입국하는 선교사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선교사들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1890년을 전후하여 선교사들은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평안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평안도를 처음으로 방문한 선교사는 미감리회 소속의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 1858~1902)이다. 그는 1887년 4월 평양을 비롯한 평안도지역을 방문하였고 1887년 평양과 의주에 권서인을 파송하여 두 지역에 교인이 생겼으며 언더우드는 1888년 평양을 방문하고 평양에 한 명의 권서를 세웠다. 평양은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발생한 지역으로 서구에 대한 저항감이 강한 도시였다. 또한 개항장도 없었으므로 평양은 조선 제2의 도시였음에도 초기 선교사들의 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아펜젤러와 마펫(S. A. Moffet), 헐버트(H. B. Hulbert), 휴 브라운(Hugh Brown) 등은 평안도 지역을 여행하며 전도를 계속했다. 그러나 평양에는 선교사들 방문과 별개로 만주로부터 방문한 매서인을 통한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펜젤러의 보고서에 의하면 1888년 “목단에서 보낸 매서인들이 이미 이곳의 땅(평양)을 개척하였습니다. 지원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유망한 곳으로 가는 사람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¹⁾

1890년대에 들어서며 미국 북장로교와 감리회는 한반도 북부로 선교지를 확장하며 본격적으로 평양 개척을 시작한다.

1) Appenzeller's Report, ARBFM, 1888을 김진형, 『초기 한국감리교회 북한교회사, 1887~1910』 p. 32에서 재인용.



〈평양성도〉

도 역시 옥단춘과 같이 배에 묶여 대동강에 빠트리기 위해 끌려가는데 대동강을 향해 “대동강 맑은 물아 나와 무슨 원수 있어 한 번도 죽기 어려운데, 두 번이나 죽이려고 이 모양을 시키느냐? 참말로 죽게 되면 가련하고 원통하다.”고 절규한다. 여기서는 이미 암행어사의 임무를 받고 왔기에 여유가 있으며, 언제 암행어사 출도를 외치느냐에 관심이 모아진다. 결국 세 번째 북이 울리고 옥단춘이 할 수 없어 물에 뛰어드는 찰나에 ‘암행어사 출도’를 외쳐 죽음의 순간에서 극적으로 생환해 둘의 사랑이 성취되고 기쁨을 누린다. 대동강이 죽음에서 갱생의 강으로 변환된 것이다. 

별 동쪽 끝으로는 점점이 산이로다[長城一面溶溶水 大野東頭點點山]”는 구절이 등장하여 대동강의 경치를 수식한다. 그럼으로써 아름다운 대동강의 경치와 무고하게 죽는 이혈룡의 처지를 대비시켜 극적 효과를 높였다.

그런가 하면 이혈룡이 암행어사로 평양에 두 번째 내려왔을 때에



장로교에서 평양에 배정된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회 소속의 사무엘 마펏(Samuel A. Maffett, 마포삼열, 1864-1939)이다.

1. 장로교의 평양선교

1) 평양의 개척자 사무엘 마펏

장로교에서 평양에 배정된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회 소속의 사무엘 마펏(Samuel A. Maffett, 마포삼열, 1864-1939)이다. 그는 1890년 1월 25일에 조선에 입국한 후 한국어 학습과 적응훈련을 하는 한편 언더우드 선교사가 출판 관련 업무로 일본에 머무는 동안 언더우드의 고아원을 맡아 운영하는 등 선임 선교사들의 사역을 보조했다. 마포삼열은 1890년 8월에 아펜젤러와 함께 조선의 북부지역에 대한 답사를 나섰다. 당시 여행의 내용을 설명한 마포삼열의 편지를 보면 1890년 당시 이미 감리교 선교부는 평양에 현지 설교자를 두고 있었는데 감리교 설교자들의 집회에는 18명이 출석하고 있었다. 마포삼열과 아펜젤러는 그중 세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으며 여행을 통해 평양에 선교본부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조사를 했다. 이후로도 마포삼열은 1891년에 평양과 의주를 네 번이나 방문하였는데 그는 조선북부 선교의 거점으로 의주와 평양을 두고 고민을 이어갔다. 그는 1891년 가을에 의주에 선교거점으로 사용할 가옥을 구입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선교거점으로는 평양이 낙점되었다. 다음은 마펏이 북장로회 해외선교부 총무인 엘린우드(Frank F. Elinwood)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다.

이 먼 여행을 통해 저는 북부 선교지부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북부 사역의 중요한 거점으로서 도청 소재지인 평양을 먼저 점유해야 한다는 매우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의주는 중국 국경에 있는 2-3만 인구의 도시인데, 만주의 목단과 뉴창과 한국의 평양으로부터 각각 500리 떨어져 있습니다. 5-10만 인구가 사는 19개 도시와 그 도시들의 구역들을 포함하는 사역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이 도시는 과거엔 무역이 활발하고 부유한 상인들이 많은 활기찬 도시였지만, 조약항들이 개항된 이후 인구가 줄어들고 무역이 쇠퇴했으며 대부분의 무역은 항구들로 이전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청소재지인 평양은 인구 7-10만의 도시인데, 서울 이북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평양은 서울, 원산, 의주로부터 똑같이 500리 떨어져 있습니다. 평양을 거점으로 사역할 지역은 그 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안주와 그 남쪽에 있는 황주를 포함하는 39개 도시와 그 구역들을 포함합니다. 이 지역의 인구는 약 200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막 거기서 채굴되기 시작한 좋은 무연탄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선교거점이 될 것입니다.²⁾

결국 마펏은 그래함 리(Graham Lee, 이길함, 1861-1916), 스왈른(William L. Swallen, 소안론 1865~1954)과 함께 평양에 선교부를 개척하게 된다. 당시 외국인들은 서울 혹은 개항장에만 거주할 수 있었고 서울과 개항장을 벗어나려면 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했다. 평양보다 전략적 중요성이 작은 원산, 부산에 선교사가 먼저 정착한 이유는 바로 두 도시가 개항장이었던 까닭이다. 1893년 장로교의 마펏과 감리교의 윌리엄 홀은 조선인 신자의 도움을 받아 평양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정착한다. 개항장이 아닌 곳에서의 주택구매와 거주 문제로 인해 선교사들은 평안도관찰사와 갈등을 빚게 된다. 이때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는 외세에 반대하는 소요가 일어나 마펏은 돌을 맞아 상처를 입는다. 이때 마펏에게 상처를 입힌 이기풍이라는 조선 청년은 마펏에게 전도를 받았고, 이후 조선인 최초의 목사가 되어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받게 된다. 이러한 적대적인 분위기 가운데에서 양반가 출신 성도인 한석진 등의 도움을 받아 사무엘 마펏은 주택 구입 문제를 해결하고 같은 해 5월 평양에 선교부를 개설한다.

마펏은 1893년 10월 평양으로 이주함과 동시에 22명의 학습교인들로 성경공부반을 조직하고 교육을 거쳐 1894년 1월 8일 이 중 7명(최치량, 전재숙, 문흥준, 이동승, 조상정, 한태교, 박정국)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 중 최치량이라는 인물은 여관업으로 큰 돈을 번 지역의 유지로 13세이던 1866년 숙부와 함께 대동강가에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목격한 인물이다. 그가 여관으로 쓰려 매입한 집에는 성경이 벽지로 붙어 있었는데, 그것은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 직전 조선인들에게 나누어준 성경을 집의 전 주인인 박영식이 수거하여 벽지로 쓴 이유이다. 최치량은 이후 장로가 되어 1930년 소천할 때까지 평안도 지방의 교회 개척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평양 최초의 신자 김종섭은 길선주와 함께 선술



평양장로교의 지도자들

최치량(좌)은 13세이던 1866년 숙부와 함께 대동강가에서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목격한 인물로 이후 평안도 지방의 교회 개척에 큰 영향을 끼친다. 한석진(우)은 양반가문 출신으로 마펏 선교사가 평양의 건물을 구입하는 일을 돕는다. 이후 한석진은 조선 최초의 목사 7인 중 한 명이 된다.



2) 엘린우드에게 보낸 마펏의 편지, 1892년 3월 17일자. M L, 129-131.를 최영근, 「초기 미국선교사, 언더우드와 마펏 비교연구」 2001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p.35.에서 재인용.

(仙術)을 공부하다 마펏 선교사에게 전도되어 신자가 된 후 길선주를 전도한 인물이다. 그는 1895년 서경조와 함께 평양 중앙교회(이후의 장대현교회)에서 첫 장로로 임직을 받았으며 이후 한국교회 첫 목회자 후보자, 병원 전도자가 되었다. 김종섭장로는 1896년부터 한석진의 뒤를 이어 평양을 책임진 조사로서 중앙교회의 협동목회자가 되었다. 1904년 그가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중앙교회 목회자직을 사임할 때 그의 6년간의 사역에 감사하여 교회의 원로 교인들이 돈을 모아 그에게 집 한 채와 농장을 선물했다.

2) 평양 장로교회의 성장

1883년과 1894년 기독교에 적대적인 평양의 분위기로 인해 선교사들의 사역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1894년 평안감사의 기독교 박해로 인하여 김창식, 한석진을 비롯한 조선인 신자 10여 명이 잡혀간 소위 “평양 기독교 박해 사건”에서 평안감사의 잘못이 인정되고 조정이 선교사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평양의 민심은 점차 선교사들에게 호의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무엇보다 1894년에 발발한 청일전쟁 당시 평양은 전쟁의 주 무대가 되었는데, 청·일 양국은 외국인들의 재산에 피해를 입힐 경우 얻게 될 해당 국가로부터의 반발을 염려하여 십자가가 걸린 예배당을 공격하지 않았다. 또한 선교사들은 전쟁으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도우며 평양 주민들의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호의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1895년 리와 마펏은 사역을 확장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농한기인 12월에 한 달간 훈련반을 개설하여 지역의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이들로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여 전도를 하도록 했다. 그 결과 북쪽의 순안에도 공동체가 생겨나 한옥을 매입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였다. 세계적인 여행가 이사벨라 비숍(Isabella Bishop)은 이 시기 평양에 방문하여 “지난 겨울에 내가 보았고 지금도 많은 면에서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양 사역은 내가 세계 여러 곳에서 보았던 선교사역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었다.”라는 말을 남겼다.³⁾ 마펏이 마련한 평양의 동대문 안쪽의 예배 처소는 1896년 두 칸에서 스물 두 칸으로 증축되어 500명이 앉을 수 있는 규모가 되었다. 1897년 보고에 의하면 성인들의 주일예배를 오후에 하고 오전에는 다섯 번으로 나누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었다. 1898년에는 장대현교회(당시 이름 중앙교회) 건물 부지를 구입했고, 63명의 여전도회가 조직되어 순안에 전도사를 파견했다. 1899년에는 김종섭을 장로로 하여 당회가 성립됨과 동시에 최치량이 서

리집사로, 신반석이 권사로 세워졌다. 중앙교회는 1903년 남문 밖 기와지붕 건물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고 1906년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했다. 1907년에는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 600명의 신자가 새로 등록했다.

사창골(창천리)의 북부교회는 1905년 개척되어 처음에는 100명의 성도가 모였으나 1907년에는 평균 450명이 출석했다. 북부교회는 1913년과 1924년에 증축을 했는데, 1924년에 건축된 예배당은 오랜 기간 평양에서 가장 완벽한 건물로 인정받았다.

평양제4교회는 동문교회, 산정현교회로 불리었으며 1906년 1월 과거 중앙교회가 사용하던 동대문 안쪽의 건물에서 번하이즐(C. F. Bernheisel) 선교사에 의해 개척됐다. 1907년 새로 마련된 예배당으로 이전하여 1911년 예배당을 확장했다. 1913년 한승곤 목사가 부임하며 조선인에게 지도력이 이양됐으며 교회는 400~500명의 규모로 성장했다. 이후 강규찬 목사가 오랜 기간 이 교회에서 사역했다.⁴⁾

창전교회는 1906년 1월 평양부 능라리에 지교회를 설립했다. 1923년 수해로 예배당과 학교가 모두 소실되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교인들은 전도에 열심을 내었다. 능라리에는 40여호가 있었는데 믿지 않는 가정이 거의 없었고 교인은 100여명이 되었다.⁵⁾ 평양의 교회는 1900년 여성의 교육을 위해 창동과 서문 밖에 각각 2개의 여숙을 세웠으며 1904년 5월 5일에는 시각장애인의 교육을 위해 맹학교를 세웠다.⁶⁾

1906년에는 평양의 교회지도자들이 장대현교회에 모여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대학을 설립하기로 결단하고 헌금을 모았다. 당장 고가의 집을 바친 지도자가 있었고, 논밭을 바친 사람이 6, 7명 있었으며 시계, 반지, 은장도 등 갖고 있던 귀중품들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지도자는 죽을 때까지 날마다 10전씩 헌금하기로 작정하기도 했다.⁷⁾

북장로회의 평양선교부는 1901년에 선천, 1906년에는 재령에 선교 기지를 분립 개척했고 평양의 근교 사역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된다. 이때 동부구역은



1893년 평양 판동에 설립된 장대현교회. 널다리골교회, 장대재교회, 판동교회로도 불렸다.

3) J. S. Gale, Korea Transition, p. 241을 해리 로즈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 151에서 재인용.

4) 해리 로즈 『미국 북장로교 한국 선교회사(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p. 154.

5)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기독교역사사전』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5), 558.

6) 임희국 외, 『떠나온 평양, 다가온 평화통일』(평양노회 100년사), p. 47.

7) 임희국 외, 『떠나온 평양, 다가온 평화통일』(평양노회 100년사), p. 51.

마뻬이, 서평양은 베어드가, 남평양은 맥쿰(McCune)이 맡았다. 평양의 주변 도시로는 강동군은 번하이즐(Bernheisel)이 안주, 순안을 관할하는 북부구역을 블레어(W. N. Blair)가 서쪽은 스왈른이, 평양 남쪽 정화, 황주, 곡산은 리가 담당을 맡아서 사역을 이어갔다. 휘트모어(N. C. Whittmore)는 1896-1911년에 평양에서 사역하다 이후 신의주를 개척했으며 헌트(W. B. Hunt) 목사는 1897-1906에 화이팅(Harry C. Whiting)과 쿤스(E. W. Koons)는 1903-1906에 평양에서 사역하던 중 재령 선교부의 개척을 위해 파송되었다. 이후 선천과 재령은 기독교왕국, 기독교천하 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교회가 왕성하게 된 도시인데, 두 도시 모두 평양선교부의 선교사들에 의해 교회가 개척되고 확산되었다.

2. 감리교의 평양선교

1) 평양의 개척자 닥터 홀과 그의 가정

1892년 8월 미감리회의 맬렐류(M. F. Mallalieu)감독은 윌리엄 제임스 홀(William James Hall 1860-1895)을 평양 주재 선교사로 임명하였다. 이에 윌리엄 제임스 홀은 1893년 2월 평양으로 이주하였고, 조선인 전도자 김창식을 통해 평양에 기와집 두 채와 초가집을 구입하여 사역을 시작한다.

윌리엄 홀(William Hall, 1860-1894, 하략)은 의사로서 1889년 같은 진료소에서 근무하던 의사 로제타 셔우드(Rosetta Sherwood, 1865-1951)와 1889년 약혼을 했다. 1890년 로제타가 조선에 의료선교사로 파송되었고 이듬해인 1891년 윌리엄도 의료선교사로 조선에 파송되었다. 1892년 6월 서울에서 거행된 두 사람의 결혼식은 조선에서 처음 이루어진 서양인들의 결혼식이었다.

1892년 윌리엄 홀은 평안도 선교여행을 다녀온 후 조선의 내륙지방 선교를 위해 평양이 최적지라는 확신을 굳히게 된다. 홀이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된 이유는 평양은 조선에서 가장 문란하고 더러운 도시라는 평을 받고 있으므로 선교를 위한 위대한 도전이 되는 점, 평양에는 자기들 기분에 맞지 않으면 일반인 이건 관원이건 돌로 때리는 폭력배들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점, 인구가 10만이 넘으며 주민들은 적극적이고 기업적이라 번성할 여지가 있는 점, 평양은 서울과 북경을 연결하는 도로선상에 위치하여 육로 사정도 괜찮고 해상교통도 용이한 점 등이 있었다.⁸⁾

결국 윌리엄 홀은 평양선교부 개설을 허가받게 되어 1893년 2월 네 번째 선교여행이자 이주여행을 떠날 당시에는 평양선교부를 위한 모금이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 당시 선교여행에 동행한 노블 선교사는 홀의 사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평양의 진료소에서 닥터 홀의 생활은 그 자체가 설교였다. 그의 곁에 있으면 구세주를 더 잘 알게 된다. 그는 조선인처럼 방바닥에 주저앉아서 그를 보러 온 사람들을 만났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치료를 받으러 왔다. 어떤 목적으로 왔건 떠날 때는 참으로 훌륭하고 선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간직하고 갔다.

한번은 평양에서 외국인에게 증오심을 가진 어느 관리의 영향으로 군중들이 들고 일어난 적이 있었다. 조선인들의 적개심이 어떻게 터져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일 때 나는 닥터 홀에게 이 상황의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희생시켜 이 도시의 문을 여실 생각이라면 나는 그 희생자가 되는 것을 피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⁹⁾

1893년 2월 이후 윌리엄은 주로 평양에 머무르며 선교센터 개척과 의료사역을 이어갔다. 로제타는 서울에서 조선말을 공부하며 평양으로의 이주를 준비했지만, 기독교에 적대적인 평양의 상황, 그리고 1893년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계속 서울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홀 가족은 평양 이주를 결단하고 1894년 5월 4일 윌리엄 홀은 아내 로제타, 아들 셔우드를 데리고 평양으로 돌아온다. 평양에 온 서양 여인과 아기는 주민들에게 큰 흥밋거리가 되었다. 윌리엄 홀은 이를 선교의 접착점으로 삼아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조선의 여인과 어린이들을 10명을 한 조로 묶어 5분씩 로제타와 셔우드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홀 가족의 이사 다음날 로제타와 셔우드를 구경하러 주민들이 몰려왔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게 되자 로제타는 마당에 나가서 군중들로 자신들을 한꺼번에 구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평양의 관리들은 홀 가족의 이주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홀을 담당하는 관리의 아들은 홀에게 “그의 아내를 이곳에 머물게 한다면 외



홀선교사가 평양에 거주하며 선교활동을 하던 집, 홀 가족의 이사 다음날 평양의 많은 주민들이 로제타와 셔우드를 구경하러 몰려왔다.



윌리엄 홀과 그의 아내 로제타 홀, 1892년 6월 서울에서 거행된 두 사람의 결혼식은 조선에서 처음 이루어진 서양인들의 결혼식이었다.

8) 셔우드 홀, 『조선회상』 (서울: 좋은씨앗, 2009) pp. 107, 108.

9) 셔우드 홀, 『조선회상』 p.120

국민들이 하나씩 하나씩 계속 평양에 들어오게 되어 결국 평양은 외국인들이 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홀 가족이 이주한 지 3일째 되는 날 홀의 동역자 김창식, 오석형 그리고 마포삼열의 동역자 한석진이 평양 관아에 잡혀갔다. 당시 마포삼열은 평양을 비운 상태였으므로 홀은 감리교와 장로교를 대표하여 갇혀있는 조선인 동역자들을 면회하여 격려하는 한편 공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였다. 한석진과 김창식은 한 주간 갇혀 고초를 당했다. 특히 김창식은 관원들에게 순응하지 않고 “석방되어도 계속 예수를 전하겠다”고 말하여 더욱 큰 고문을 당했다. 이때부터 김창식은 ‘조선의 사도바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평양의 관리들은 조정으로부터 “닥터 홀은 나쁜 사람이니 모든 기독교 신자들은 오늘 다 참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거짓 정보를 전하는 등 선교사와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다. 평양의 저자에서는 한석진과 김창식에 대한 처형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얼마 후 서울의 선교사들과 미국, 영국 외교관들의 노력으로 기독교 신자들을 석방하라는 정부의 명령이 떨어졌다. 노블 목사는 당시 닥터 홀이 보낸 전신을 받은 직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조선의 선교 역사상 처음으로 업무를 다 제쳐두고 모든 선교사들이 서울에 모여 기도를 했다. 각자 이 위기가 자신들과 깊이 관련된 일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이 두 사람을 위해 많은 기도를 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닥터 홀로부터 ‘모두 석방됐음. 창식, 심한 상처를 입었음’이라는 전보가 도착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선교사들은 신앙인 닥터 홀 내외가 새 시대의 문을 열었다는 깊고도 엄숙한 사실을 실감했다. 이제 새로운 장이 펼쳐진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또다시 그러한 장애와 반대는 없을 것이다. 기독교가 들어오고자 투쟁했던 오랜 시련은 비로소 막이 내렸다.¹⁰⁾

평양에서의 이러한 소동으로 인하여 불안을 느낀 영국 총영사 가드너는 윌리엄 홀의 가족을 평양에서 철수 시키기로 결정한다. 영연방 캐나다인인 닥터 홀은 영국영사의 관할하에 있었다. 이를 위해 영국영사관은 5월 23일 조선 선교사 사회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는 스크랜턴 대부인을 평양으로 파견했다. 스

크랜턴 대부인은 홀 가족이 서울로 철수할 만한 급박한 사정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총영사의 명령을 따르라고 권고하여 홀 가족은 6월 6일 동역자 에스더 박 부부, 실비아와 함께 평양으로 돌아오게 된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과 뒤이어 발발한 청일전쟁으로 인해 전 조선이 소란스러운 가운데 9월부터는 평양이 청일전쟁의 주 전장이 되었다. 닥터 홀, 모펫, 리는 10월 초순 흩어진 양떼를 돌보기 위해 평양으로 돌아갔다. 평양의 감리교 건물은 보존된 반면 장로교 건물은 완전히 파괴되어 선교사들은 닥터 홀의 집에서 거주하게 됐다. 닥터 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들과 부상자들을 돌보는 한편 그가 막 시작한 광성학교의 학생 13명과 함께 매일밤 예배를 시작했다. 그러는 사이 닥터 홀의 건강은 점점 약해졌다. 선교사들은 관리들과 일본군의 도움을 받아 배를 통해 닥터 홀을 서울로 호송했다. 그는 거의 혼수상태가 되어 11월 19일 서울에 도착하였으나 11월 24일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소천하게 된다. 닥터 홀은 양화진에 매장되었으며 이때 셔우드는 갓 돌을 지난 나이였고 로제타는 태중에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다.

닥터 홀의 소천 후 12월 16일 그의 가족은 미국으로 돌아간다. 이때 로제타가 돌보던 박에스더와 박유산 부부를 함께 데려가는데 이후 박에스더는 볼티모어 여자 의과대학(현재의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공부하여 조선여성으로는 최초의 양의사가 된다. 로제타는 미국에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은 1895년 유복녀 딸 에디스를 출산하고 고향의 병원에서 일을 하며 평양에 홀 기념 병원을 세우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였다. 그는 감리교 출판사를 통해 “윌리엄 제임스홀, M. D. 의 생애”를 출판하였으며 모금한 돈을 조선으로 보내 평양에 홀 기념병원을 세우도록 도왔다. 홀 기념병원과 관련해 닥터 포엘은 조이스 감독과 조선선교회에 보낸 보고서에는 “1897년 2월 1일, 모든 사람들을 위해 홀 기념병원이 개원되었다. 이 건물은 선교회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원조도 받지 않고 친애하는 닥터 홀의 자기부인을 바탕으로, 의사인 그의 아내, 조선의 친절한 친구들, 그리고 고국 친지들의 노력으로 세워졌다.”¹¹⁾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



1905년 경 찍은 한강변(양화진) 닥터 홀의 무덤



1897년 평양에 설립된 홀 기념병원은 이후 기흥병원으로 발전한다.

10) 셔우드 홀, 『조선회상』 p.157

11) 셔우드 홀, 『조선회상』 p.193



에디스가 죽은 지 7개월이 지난 1898년 6월 로제타는 여성들을 위한 광혜여원을 평양에 개소한다.



오봉래, 시각장애인이었던 오봉래는 로제타홀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고 일본유학을 다녀와 평양의 특수교육을 위해 헌신했다.

1897년 11월 홀의 가족 로제타, 셔우드, 에디스는 조선에 돌아왔고 이듬해인 1898년 4월 평양으로 이주한다. 가족이 평양으로 이주한 직후 세 사람은 모두 이질에 걸렸고 결국 5월 23일 윌리엄 홀의 유복녀로 3살에 불과한 에디스가 이질로 죽게 된다. 아빠와 딸이 모두 평양에서 병에 걸려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이다. 에디스의 시신은 김창식에 의해 서울로 옮겨져 양화진에 묻히게 된다.

에디스가 죽은 지 7개월이 지난 1898년 6월 로제타는 여성들을 위한 광혜여원을 평양에 개소한다. 이듬해인 1900년 광혜여원에 어린이들을 위한 독립된 병동이 건설되어 에디스 마거리트 기념병동으로 명명되었다. 에디스 마거리트 기념병동은 평양에서 처음으로 지어진 이층집이었으며 이곳에는 시멘트로 만든 커다란 물탱크 저수장을 설치하여 어린 환자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1894년 평양 박해 시 김창식, 한석진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오석형의 딸 오봉래는 시각장애인이었다. 로제타 홀은 오봉래를 가르치기 위해 조선 기름종이에 바늘로 점을 찍어 일종의 점자를 고안해 냈다. 윌리엄 홀의 사망으로 로제타와 가족들이 미국으로 귀국했을 때 로제타는 뉴욕 맹인교육학원을 방문하여 ‘뉴욕포인트’점자를 배웠다. 1898년 조선에 돌아온 로제타는 새로 배운 점자 기술을 활용하여 오봉래를 교육하였고 오봉래는 빠르게 성장하여 일본 유학을 하고 돌아와 조선의 첫 특수교사가 되어 맹아들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다. 로제타 홀이 시작한 맹아교육은 발전하여 정진여학교 맹아반 개설, 평양맹학교 개교, 1910년 농아학교의 개교로 이어졌으며 1914년 8월 평양 모란봉에서는 동아시아지역 특수교육을 위한 국제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로제타 홀은 1920년 서울로 임지를 옮기기까지 광혜여원 원장과 평양맹학교 교장으로 사역했으며 광혜여원은 1923년 홀기념연합병원과 통합되어 평양연합기독교병원이 되었다. 이후 로제타 홀은 동대문부인병원장, 인천부인병원장(인천기독교병원의 전신),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고려대학교의과대학 전신)교장 등으로 봉사했다. 윌리엄과 로제타 홀의 아들 셔우드 홀은 미국에서 의학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황해남도 해주에서 의사사역을 하며 크리스마

스 썰을 도입하고 결핵요양병원을 건립하는 등 한국의 결핵 퇴치 사업을 위해 헌신하게 된다.

2) 평양 감리교회의 성장

평양의 감리교회 개척과 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은 김창식 목사이다. 그는 1857년 황해도 수안군에서 태어났으며 1888년부터 서울의 올링거 선교사의 집에서 일하며 기독교인이 되었다. 1892년 봄, 미국 감리회 전도인으로 정식 임명되어 1893년 의료 선교사인 홀과 함께 평양으로 갔다. 서문 밖의 어느 기생집을 사들여 진료소를 겸한 예배당을 마련하였고 순회 전도를 시작하였다. 그는 1894년 5월 ‘평양 기독교인 박해 사건’ 당시 모진 고문과 처형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킨 일로 ‘조선의 사도바울’이라는 별명을 얻은 인물로, 1894년 12월 제임스 홀 목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평양교회를 이끌게 되었다. 김창식은 1896년부터 4년간 신학교육을 받은 후 1901년 5월 14일, 서울 상동교회에서 개최된 제17회 미국 감리회 조선선교연회에서 집사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 뒤 주로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을 다니며 순회 전도를 하여 48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지방 감리사로 임명되어 1904년부터 1910년까지 평안북도 영변 지방 감리사로, 1912년에는 평양 지방 감리사로 목회하고 1924년 67세로 정년 은퇴한다. 은퇴 후 외아들인 김영진의 보살핌을 받았으며 제임스 홀 선교사의 아들인 셔우드 홀이 조선에 와서 결핵 환자들을 위해 세운 해주 구세 요양원에서 지내다가 1929년 1월 9일에 72세로 소천했다. 그의 일대기는 ‘머슴 바울’이라는 뮤지컬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2021년 성탄절에 KBS 1TV를 통해 방송되었다.

청일전쟁과 윌리엄 홀의 소천 이후 김창식이 인도하는 감리교 공동체의 인원이 늘어나 1895년에는 50명을 넘기게 된다. 미감리회와 평양의 성도들은 1896년 평양 시내가 보이는 남산재 언덕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마련하였는데 이때부터 평양감리교회는 남산현교회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후 예배당 주변에 감리교의 여러 부속기관이 생기며 남산현교회는 감리교 평안도 선교의 거점이 되었다. 교세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3년 만에 출석 성도수가 800명을 넘겨 예배당을 수차례 증축하였으며 결국 1903년 5월 남산현 교회는 1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고딕양식의 예배당을 건축했다. 이 예배당은 당시 조선의 전 지역, 전 교단을 통틀어 가장 큰 예배당이었다. 남산재 예배당이 건축된 해 성탄절 예배에는 동시에 2,000명이 참석했다. 남산재 예배당이 건축



‘조선의 바울’로 불린 김창식

된 1903년에는 감리교의 존스 선교사에 의해 한창 하와이 이민열풍이 불기 시작하던 시절이었다. 존스 선교사는 교인들에게 교인으로서 하와이에 가면 교회를 세워 선교할 기회를 갖는 것이라 설득했다. 하와이로 파견된 노동 이민자 수는 1902년 121명, 1903년 1,133명, 1904년 3,434명, 1905년 2,659명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감리교인이었다. 노블 선교사의 보고에 의하면 성도들의 하와이 이민으로 인해 1904년 평양 교회의 예배 출석 인원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토로한다.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당시 일본군에 의해 점령된 평양에서 교회는 하루 종일 문을 열어 놓고 밤까지 집회를 하며 주민들을 안정시켰다. 그 결과 교세는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¹²⁾

평양 최초의 감리교회인 남산현교회로부터 처음으로 독립한 교회는 봉룡동 교회이다. 남산현교회 성도들 중 성문 밖에 사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기 불편하여 1897년 교회를 건축한다. 1897년 58명으로 시작한 봉룡동교회는 1년 만에 급성장하여 1898년 성도수가 96명에 이르렀다. 당시 여성 성도의 수가 크게 늘어나 남성의 좌석에 여성 성도들이 앉기 시작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다. 봉룡동교회는 오석형이 전도사로 사역을 했다. 오석형은 ‘평양박해사건’ 당시 김창식과 함께 고초를 겪은 인물이다. 그의 딸 오봉래는 시각장애인이었으나 로제타 홀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아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평양의 시각장애인 교육을 이끌었다.¹³⁾

봉룡동교회는 대동강 건너편에서 출석하는 두 명의 성도들과 당시는 평양으로 여겨지지 않던 대동강 동쪽지역 선교를 위해 1899년 대동강 건너에 칠산교회를 개척한다. 1899년 개척된 교회는 곧 교인이 70명으로 성장했다. 교인들은 260냥을 들여 4칸 크기의 예배당을 건축했다. 성도들은 계속 늘어 1901년에는 170명이 되었다. 교세의 증가와 함께 칠산은 하나의 구역으로 독립하게 되었고 교회는 4칸 규모의 소년 매일학교를 설립했다. 1902년 소년학교 건축 당시에는 성도들이 노동으로 동참하였으며 각자가 가진 재목, 새끼줄, 음식을 지원하여 건축을 완성했다. 1903년에는 교인이 294명으로 증가했으며 류동교회와 문수골교회를 개척했다. 류동교회는 평양에서 25리 거리에 있는 류동의 오수철씨의 집에 세워졌으며 마을 70가구 중 10가구를 전도하여 교인수가 60명이 되었다. 문수골은 평양에서 10리 떨어진 곳으로 김씨라는 유명한 무당 출신 성도의 집에서 시작됐다. 이 성도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후 모든 우상을 버리고 장고와 장삼 등을 노블선교사에게 전달했다. 노블 선교사는 미국에

방문 시 이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며 선교보고에 활용했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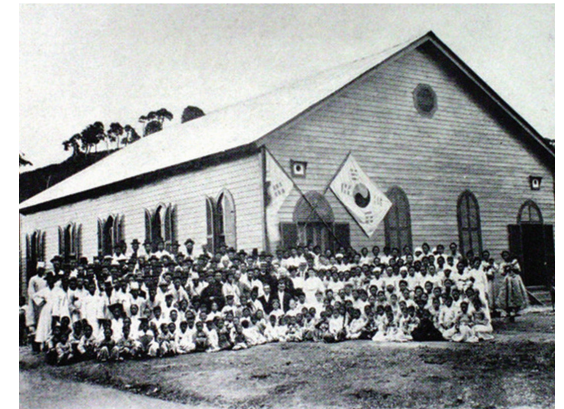
위에 언급한 교회들 이외에도 평양의 감리교회가 평양 인근 평원군 청산면, 평양 서쪽 대동군, 서쪽으로 23마일 떨어진 곳에 세운 여포 등에 세운 교회는 발전하여 각각 순회선교구역으로 독립하게 된다. 1906년 미감리회의 평안도 선교부는 평양 선교부와 영변 선교부로 나뉘게 되고 평양지방은 3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서순회구역은 무어 선교사가, 신계순회구역은 김창식 집사목사가, 해주순회구역은 크리케트 선교사가 맡게 된다. 한편 평양의 모교회인 남산현교회는 1905-1906년 사이에 7백 명이 넘는 새신자가 등록하여 성도수가 1,556명으로 성장했다.

3. 평양대부흥

1907년 대부흥운동은 4년 전인 1903년 감리교 선교사인 하디를 중심으로 원산에서 일어난 대부흥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 1903년 원산에 모인 7명의 선교사들이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기도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그 모임의 주강사인 하디는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세가지 필수요소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조선인들의 각성이 아니라 자신의 각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국인 신자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자백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당시 신자들도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였다. 하디는 1903년 말부터 1904년 말까지 개성, 서울, 인천, 평양, 목포, 함흥에서 집회를 인도하였다.

1905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돌아온 하디는 1906년 8월 원산과 평양에서 선교사들을 위한 성경학교(Bible Conference)를 열어 당시 집회에 참석한 선교사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 하디의 집회 한 달 후인 9월에는 부흥사인 존스톤(H. A. Johnston)이 조선을 방문하여 당시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성령운동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운동이 조선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런 존스톤의 언급에 평양의 선교사들과 조선인 지도자들은 큰 도전을 받았다.

1906년 여름 하디와 존스톤의 사경회를 앞두고 선교사 사회에는 큰 기대감



1903년 대부흥이 일어난 원산의 감리교회.

12) W. A. Noble, MAMKM, 1904.를 김진형, 『초기 한국감리교회 북한교회사, 1887-1910』 p. 162-164에서 재인용.

13) 김진형, 『초기 한국감리교회 북한교회사, 1887-1910』 pp. 173, 174.

14) 김진형, 『초기 한국감리교회 북한교회사, 1887-1910』 p. 177

이 감돌았다. 다음은 1906년 원산(주 강사: 하디), 평양(주 강사: 하디), 서울(주 강사: 존스톤)에서 열릴 일련의 사경회를 앞두고 하운셀이 선교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편지의 내용이다.

이 기간이 놀라운 영적 재충전 및 영적 성장(great spiritual refreshment and uplifting)의 계절인 고로 한국의 모든 선교사들은 이제 이들 사경회 중 한 곳 혹은 그 이상 참석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야 한다. 그때에 한국에 임할 실제적인 축복은 백성들에 대한 믿음의 기도와 비례할 것이다. 몇 사람이 이들 사경회를 위해 매일 기도하기로 약속했다. 모든 이들이여, 이들 사경회를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것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으로 만드는 일에 동참하지 않겠는가? 선교사로서 우리는 한국에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기회, 교회사에서 찾아보기 드문 기회를 위해 특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 기도하자.¹⁵⁾



평양지방 연합사경회(사진 출처: 기록신문)

1906년 후반기에 있었던 일련의 사경회로 인하여 선교사 사회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깊고 성숙해져 있었다. 평양의 선교사들은 해마다 성탄절 휴가시즌에 갖던 친목 모임을 중단하고 1907년 1월에 계획된 장로교인 남자 사경회와 감리교의 사경회를 위해 두 교단이 연합하여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선교사들의 정오기도회는 성탄절에 시작하여 1907년 1월 15일까지 지속되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장대현교회에서 '평안남도동계남성사경회'가 열렸다. 보통 연초의 사경회에는 800명 정도가 참석하였으나 1907년에는 1,000명이 참석했다. 저녁집회에는 남성만 참석했으며 여성들은 평양북교회, 산정현교회, 남문밖교회, 서문밖 지역의 예배당과 사랑채에 모여 선교사의 아내들이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1월 14일 저녁 저녁기도회에는 수용 인원을 훨씬 넘어서는 2,000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헌트 선교사의 폐부를 찌르는 설교가 있는 후 그레함 리 선교사의 인도하에 성도들은 통성기도를 이어갔고, 15일 오전 2시까지 철야기도회

15) C. G. Hounshell, "Call to Prayer," KMF II: 8 (Jun 1906), 151을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p. 176에서 재인용.

를 가졌다. 스왈른 선교사는 그날 밤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월요일 밤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 성령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현시하셨다. 간단한 예배가 있는 후, 온 회중이 일치 단결하여 드리는 통성기도는 마치 파도처럼 그 열정과 강도가 올라갔다 줄어들었다 했다. 그런 후 곧 간증이 시작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매우 진지해졌다. 그들의 얼굴 표정, 그들의 언어, 그들의 눈물, 그들의 울부짖음이 그 이야기를 말해주기 시작했다. 그 모임이 조기에 끝나지 않을 것임이 확실하자 누구라도 모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도록 기회가 주어졌고, 모인 회중의 반 혹은 2/3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후 남은 이들이 드리는 연합 기도는 더 새로워졌고, 그 후 그들이 하는 죄의 고백에서도 죄 사함의 확신에 대한 힘이 한층 더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간증 차례를 기다리면서 여러 시간을 서 있었다. 몇몇 사람은 고백의 마지막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펄쩍 뛰고는 자신의 죄를 통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집회는 중단 없이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 그 동안에 가장 소름 끼치는 일련의 죄에 대한 고백들이 방해받지 않는 가운데 있었다. 사악하고 수치스러운 모든 죄들이 아주 깊은 죄의식하에 고백되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는 마치 가장 무시무시한 고통에 처한 것처럼 갑자기 무섭게 통회하고 애통하기 시작했다.¹⁶⁾

이날 길선주 장로는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올시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1906년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임종 당시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 달라고 맡긴 거금을 횡령하였던 죄를 600명이 넘는 회중 앞에서 고백했다. 뒤이어 전쟁통에 낳은 아이를 죽인 여성, 불치병에 걸려 아파하는 아내에게 매일 술만 마시며 저주를 퍼부는 남성, 첩을 두 명이나 두고 가정을 외면했던 남성, 선교사의 돈을 횡령했던 여성 등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또한 평양 시내 영문 부근에 방은덕이라는 순포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사경회 기간 중 장대현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온갖 죄를 자백한다는 말을 듣고 ‘그 곳에 가면 범죄자도 많이 잡고 실적도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장대현교회 집회에 참석했다.



평양대부흥의 주역 중 한사람인 길선주 장로

16) W. L. Swallen, Letter to Brown, Jan. 18, 1907. 을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p. 219에서 재인용.

이 날 설교에서 길선주 장로는 “물질을 도둑한 사람은 잡을 수 있지만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다스릴 수 없다, 죄 있는 마음은 지옥이요, 죄를 회개한 마음은 천당이다.”라고 선포했는데 방은덕은 그 말을 듣고 이제까지의 삶을 회개하고 신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이후 방은덕은 순포직을 그만두고 고향인 평안북도 맹산군으로 귀향하여 그 곳에서 맹산교회를 설립하게 된다.

이후 회개운동이 이어져 성도들 중 남에게 손해 또는 손상을 입힌 사람은 집을 찾아다니며 사과했고 타인의 재물을 절도한 사람은 직접 갚는 일도 있었다. 당시 평양과 청나라를 왕래하던 한 상인은 “자신과 거래했던 기독교인이 찾아와 수 년 전 부당이익을 취하며 모은 것이라며 거금을 환불해 주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사경회의 은혜는 감리교회인 남산현 교회에서도 일어났다. 감리교가 발행하던 기관지 신학월보에는 1907년 2월 10일 남산현교회에서 있었던 사경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각 마음에 눈을 밝히사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능히 바라보게도 하
실새 어떤 사람은 식음을 전폐하고 여러 날을 지내며, 어떤 사람은 잠
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 밤을 지내며 어찌 할고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꼬 하는 이도 많더라. 또 어떤 사람은 다메섹길에 엎어진 사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어져 삼사일 동안 통회하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죄를
고할 때 가슴이 너무 아프고 기운이 막히어 사오시 동안 정신없이 기절
하였다가 다시 사는 이도 있으며 어떤 이는 미친 것같이 술취한 것같이
염치 없는 사람같이 정신차리지 못하다가 다시 똑똑하여 새사람같이
되는 이도 있으며 어떤 이는 서로 붙들고 울며¹⁷⁾

다음은 1906년-09년 미감리회 평양구역의 교세 변화이다

	교인수		교역자수		교회수
	학습인	입교인	안수자	미안수자	
1906	2,853	1,009	4		62
1907	3,697	1,261	2	10	73
1908	3,218	2,154	1	19	89
1909	6,683	1,753	5	25	105

[표 1] 미감리회 평양구역 교세 변화, 참고, 김진형, 『초기 한국감리교회 북한교회사, 1887-1910』 p. 139.

17) 이은승, “평양 오순절 역사,” 〈신학월보〉, 1907, 제2호를 김진형, 『초기 한국감리교회 북한교회사, 1887-1910』 p. 263에서 재인용.

1907년 초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은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한다. 특히 길선주 장로는 신자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사경회를 인도했고 그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장로회 평양선교부에 의해 개척된 선천에서 2월에 열린 남자사경회에는 1,180명이 참석했으며 매일 밤 집회에서는 늦게까지 죄의 고백이 계속되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도둑맞은 돈이 되돌아왔으며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새롭게 되었다. 1907년 선천 선교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성장했다. 4월 1일자 헌트의 편지에 의하면 선천교회 주일 아침예배에 거의 1,000명이 출석하게 되었고 선천지역은 103개의 학교, 102개의 교회, 4,039명의 입교인, 4,667명의 학습교인, 15,348명 등록교인의 교세로 급증했다.¹⁸⁾

평양의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은 1월 14일 저녁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헌트 선교사는 재령선교부의 책임자였다. 헌트선교사는 재령으로 돌아가 더욱 힘있게 말씀을 전하며 공동체를 이끌었다. 헌트선교사의 아내는 1905년 재령개척을 위한 답사여행에서 병을 얻어 소천했고 헌트는 한 해 동안 안식년을 가진 후 1906년 중반 한창 선교부를 개척하던 중 평양대부흥을 체험한 것이다. 재령 선교부 개척 이전 1904년 이미 재령에는 30명의 신자가 있었고 1906년 선교부의 개척과 1907년 부흥의 여파로 인하여 1907년 500명의 성도를 자랑하는 중형선교부로 성장하게 된다. 기록에 따르면 헌트는 이주 1년 차인 1907년 29명에게 세례를 주고 47명에게 학습을 베풀었다고 전한다.¹⁹⁾

위에서 언급한 도시 이외에도 대구에서는 2월에 사경회가 열려 열흘간 새신자 500명이 등록하였으며 4월에는 공주에서 감리교 선교사 스위러를 통한 큰 부흥이 있었다. 그 밖에도 부흥의 물결은 제물포, 개성, 춘천, 북청을 비롯하여 장로교와 감리교 각 교단의 구역에서 일어났다. 중국에까지 부흥의 소문이 퍼져 1907년 중국 만주 교회의 지도자 호만성(胡萬成), 장석정(張賜禎)이 평양을 방문하여 일주일간 체류하면서 부흥운동의 현장을 참관하고 돌아갔다. 그 결과 두 사람이 사역하던 목단(牧丹, 흑룡강성 모란강)에서도 평양에서 일어난 강력한 회개와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다. 아래는 1906-1909년 평양의 장로교인수 통계이다.



윌리엄 헌트 선교사는 평양대부흥이 일어나던 저녁집회에서 설교를 했다. 이후 그가 담당하던 재령선교부에도 큰 부흥이 일어난다.

18)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p. 310.

19)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p. 314.

교회	1906			1907			1909		
	세례	학습	합계	세례	학습	합계	세례	학습	합계
장대현	914	334	1248	1076	385	1461	615	150	765
남문외	139	189	328	200	150	350	237	207	444
사창골	127	97	224	150	110	260	244	94	338
산정현	103	85	188	150	89	239	185	104	289
서문외	서문외교회는 1909년 장대현교회로부터 분리됨						547	82	629
합 계	1,283	705	1,988	1576	734	2310	1828	555	2465

[표 2] Annual Report PCUSA, 1906-1909를 박용규 『평양 산정현교회』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6) p. 80. 에서 재인용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은 감리교 구역인 해주에도 영향을 미쳤다. 1907년 크리체트(Carl Critchett)가 감리교 연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평양에 갔던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돌아와 자신들의 고향 교회와 이웃 마을에 부흥의 불을 지폈다. 해주의 각 교회에서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있었던 것과 같은 대중 앞에서의 죄 고백과 회개, 용서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결과 부흥의 불길이 18개 교회로 퍼져 나갔고, 전 교인의 약 3분의 2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간구했다. 그들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로 연합되었고, 죄의 개념과 죄의 결과를 깊이 깨달았다. 술 취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한 통의 술을 땅에 쏟아버렸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죄를 고백하기 위해 100마일 이상을 달려가 도둑질한 물건을 되돌려 주는 일도 있었다.²⁰⁾

나가며

이상에서 우리는 평양으로의 기독교 전래로부터 시작하여 당시 조선의 양대 교단이었던 장로교와 감리교의 평양선교부 개척, 그리고 교회의 확산과정을 살펴보았다. 평양은 여타 도시에 비해 개항이 늦어져 외국인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도시였지만, 선교사들은 평양의 지리적 중요성에 주목하여 선교부 설립을 추진한다. 기독교에 적대적인 도시의 분위기로 인하여 선교 초기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감리교의 김창식, 장로교의 한석진으로 대표되는 우수한 조선인 동역자들과 더불어 고난을 극복하고 두 교단의

선교부는 평양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의료 선교사 윌리엄 홀과 그 딸 마가렛 홀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의 국난 중에 선교사들은 도시를 지키며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였고, 이에 감동한 평양의 주민들은 기독교에 마음을 열었다. 두 교단 모두 교회는 급속도로 확산하여 장로교는 선천, 재령을 분리하였고 감리교 또한 영변과 해주 지역을 개척한다. 이러한 활발한 사역 속에 1900년대 초반 전 세계를 휩쓴 부흥의 불길이 평양에도 임했다.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고 남에게 손해 또는 손상을 입힌 사람은 집을 찾아다니며 사과했다. 이러한 회개와 정결화 운동으로 인해 성도 개인의 신앙과 인격이 한층 성숙해졌으며 이는 교회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구한말 일제에 의해 국운이 쇠하던 상황, 평양은 가장 세속적인 도시에서 가장 영적인 도시로 변모했으며 평양의 부흥은 평양을 넘어 조선 신자들의 영혼을 각성시켰다. 민족적 절망의 시기에 조선땅에 새로운 소망이 싹을 틔운 것이다. 

다음 호에서는 평양대부흥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평양의 교회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20)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p.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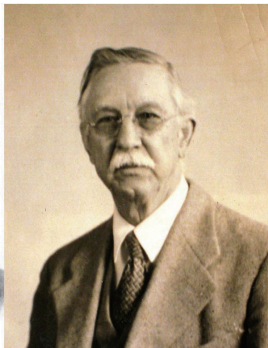
마포삼열(Samuel A. Moffett)과 평양 대부흥운동*

박응규 명예교수
(아신대학교/ACTS, 역사신학)

1. 들어가는 말



마포삼열 선교사의 청년시절
과 노년시절



평양에서 일어난 한국교회의 대부흥운동을 논할 때,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적 기반과 구조적 틀을 조성한 마포삼열(Samuel Austin Moffett, 1864-1936)의 역할과 공헌이 간과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한국의 교회 역사가들이나 지도자들에 의해 “한국장로교회의 아버지 혹은 설계자,” “한국장로교회의 산파”로 존경받는 마포삼열은 1907년 대부흥운동 당시에 안식년을 맞이한 기간이어서, 설

교자로나 주역으로 활동하지는 않았어도, 영적 각성이 일어날 수 있는 신앙적 기반을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지역에 조성한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¹⁾

* 본고는 줄고, “마포삼열과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역사신학논총』 13 (2007): 80-112을 요약한 것임을 밝힌다.

1) 마포삼열박사전기편찬위원회, 『마포삼열박사전기』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73), 19; Jong Hyeon Lee, “Samuel Austin Moffett: His Life and Work in the Development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1890-1936” (Ph. D. diss., 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Virginia, 1983), 127, 139. 마포삼열은 1906년 6월부터 1907년 8월까지 두 번째 안식년을 미국에서 보냈다.

마포삼열은 평양 지역의 교회개혁과 교회성장의 기틀을 확립하였으며, 동료 선교사들로부터 “북한 선교의 선구자”로 간주되고 있었다. 그는 경건주의적 열정을 지니고 “거리의 선교사”로 전도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개혁신앙과 장로교적 특성을 선명하게 유지하였다. 그는 당시 한국의 시대적 상황에 적합한 영적 대안들을 제시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영적각성을 도모할 수 있는 신앙적 토양을 조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²⁾ 미 북장로교 선교부 총무였던 로버트 스피어 (Robert Speer)도 마포삼열이야말로 “모든 선교지에서 가장 현명한 선교사”라고 평가한 바 있다.³⁾

2. 마포삼열의 신학적 배경과 평양 선교

마포삼열 선교사는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성장하였고, 1829년에 설립된 맥코믹신학교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 수업을 받았다. 맥코믹신학교는 19세기 초엽에 중서부 지역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의 결과로 배태되었으며, 장로교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필요로 했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또한 초기 신학의 정초를 놓았던 존 핀리 크로에



마포삼열이 졸업한 맥코믹신학교

(John Finley Crowe) 목사는 1816년에 제 2회 졸업생으로 프린스턴신학교에서 신학교육을 마치고, 중부 지역에서 목회하는 가운데 프린스턴신학교와 같은 신학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⁴⁾ 또한 신학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이러스 맥코믹(Cyrus H. McCormick)도 장로교 전통을 중시하는 스코틀랜드 및 아일랜드계 이민 후손이었고, 장로교 목회자 교육에 대단히 적극적이었다.⁵⁾

신학교의 이름이나 장소가 여러 번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맥코믹신학교

2) William N. Blair, “Precious Memories of Dr. Samuel A. Moffett,” 1, He was “the pioneer missionary in North Korea”; 마포삼열박사전기편찬위원회 편, 『마포삼열박사전기』, 29-34.

3) “Dr. S. A. Moffett: The Eminent Missionary from Madison,” *Jeffersonville News* (February 1907). Samuel A. Moffett Archives at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Robert Speer Library.

4) Daniel W. Fisher, “The Story of the Seminary,” in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 Historical Celebration* (Chicago: Lakeside Press, 1910), 13; James G. K. McClure, *The Story of the Life and Work of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Chicago* (Chicago: Lakeside Press, 1929), 1-5.

5) James G. K. McClure, *The Story of the Life and Work of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Chicago*, 39-47, 51.

는 초기의 신학적 특성과 신학교육 목적을 일관성있게 전개해 나갔으며, 무엇보다도 학문과 경건에 뛰어난 목회자를 교육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맥코믹의 신학적 토대는 “바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를 둔 복음주의적 진리, 즉 16세기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재정립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교회정치에 기반을 둔 장로교적 신앙원리”에 두었으며, 이런 전통을 굳게 붙잡고, 가르치며, 그리고 변증하는 데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⁶⁾ 이렇게 태동한 맥코믹신학교는 “보수주의 신학의 온상지”로서 그리고 “선교사 양성소”로서 유명해졌으며, 그 “훈련과정은 철저한 보수주의에다 청교도적인 엄격성, 그리고 불굴의 기상을 불어 넣어 주는 동시에 경건성을 위주”로 실시하였다.⁷⁾

19세기 미국 장로교단 안에 내재해 있던 구학파와 신학파의 갈등은 결국 1837년에 분열하고 말았고, 그런 상태는 1869년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두 학파 간의 대립과 분열의 와중에서 맥코믹신학교는 구학파의 사상을 선호하고 있었다.⁸⁾ 이렇게 초기부터 맥코믹의 신학적 입장은 구 프린스턴 신학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고, 부흥운동에 호의적인 “온건한 구학파”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마포삼열의 신학도 교리적인 면에서는 구학파적 전통이 강했지만,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는 신학파적인 특성도 공유하고 있었다. 19세기 중반의 맥코믹신학교는 장로교단에 의해 운영되었지만, 다양한 복음주의 신앙을 신봉하는 학생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었다. 또한 교수들의 신학적 분위기도 철저한 장로교 전통을 유지하고자 하면서도, 어느 한 편에 치우치는 것을 상당히 경계했으며, 믿음의 식구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구원에 감사의 마음이 흘러넘쳤다. 또한 세계 어느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도 신앙 안에서 격의 없는 교제와 사랑을 나누려는 의지가 강했다. 그리고 졸업생들은 대부분 복음전도자나 목회자로 활동하고자 준비하고 있었으며, 초기부터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뜨거워져만 갔다.⁹⁾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신학교육을 받고 한국으로 파송된 마포삼열을 비롯한 미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들은 성경 전부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오한 법칙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성경에 교시된 진리의 체계

가 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에 잘 개괄되어 있다고 간주하였다. 웨스트민스터 교리적 표준은 한국장로교회의 신조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한국장로교회는 이 신조가 하나님의 말씀의 철저한 토대 위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매우 중시하였다. 이런 전통은 교리를 중시하고 신경과 신조를 중심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이해하고 전수해 나가고자 하는 구학파 장로교의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초기부터 미 북장로교 선교부는 한국에서 적극적인 전도활동을 주요한 선교의 일환으로 삼고 있었다. 그리고 마포삼열이 한국에 도착한 1890년 북장로교 선교부 연례회의에서는 평안도 지역을 전도의 주된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고, 네비우스 선교방법을 공식적인 선교전략으로 채택하였다. 마포삼열 개인에게도 존 네비우스의 한국방문과 선교방법은 한국선교를 준비하고 시행해 나가는 데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마포삼열의 선교관은 네비우스 선교방법을 통해 보다 심화되었으며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지역에서 그 방법을 철저하게 신봉하고 적용하였다.¹⁰⁾ 그는 네비우스 선교방법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가장 주요한 특성이 성경을 지극히 사랑하고 공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다양하고 체계적인 성경공부반과 사경회 운동을 통해 영적인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교회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한국교회는 새신자라 할지라도 철저한 성경공부를 통해 영적 진리들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적용하고자 하기에 아주 강한 전도의 열정에 사로잡혀 있다고 언급하였다.¹¹⁾

이러한 성경공부반과 다양한 훈련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한국 장로교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신학교 교육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동시에 1907년에 이르게 되면 네비우스 선교방법이 지향했던 자립, 자전, 그리고 자치하는 교회로 발전했음을 마포삼열은 언급하였다. 결국은 네비우스 선교방법의 효과적인 시행은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교육제도와 교회의 조직과 발전을 도모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¹²⁾

6) Le Roy Halsey, *A History of the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Chicago: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 1893), 2, 5-6.

7) 『마포삼열박사전기』, 58-59.

8) Lefferts A. Loetcher, *The Broadening Church*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54), 77-81.

9) Le Roy Halsey, *A History of the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 of the Presbyterian Church*, 7-8, 10. 맥코믹신학교의 선교지향적 신학교육과 출신자들 가운데 선교사로 헌신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마포삼열박사전기』, 58-64.

10) Jong Hyeong Lee, “Samuel Austin Moffett,” 37; 방위량에 의하면 마포삼열은 아주 탁월하게 네비우스 선교방법을 시행한 선교사였다. “Dr. Moffett was an outstanding Nevius Man.” Blair, “Precious Memories of Dr. Samuel A. Moffett,” 13.

11) Samuel A. Moffett, “Visions of the Foreign Field-Korea,” in *Men and the Modern Missionary Enterprise*, ed. Charles Edwin Bradt (Chicago: The Winona Publishing Company, 1907), 51-54. 마포삼열은 한국교회의 특성들을 1)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교회” (Bible loving and Bible studying church); 2) “영적 능력과 영적 진리의 인식” (Spiritual power and Appreciation of Spiritual Truth); 3) “강력한 전도의 열정” (Great Evangelistic Zeal)라고 언급하였다.

12) Samuel A. Moffett, “Conference on Korea: An Educated Ministry in Korea,” in *Men and the Modern Missionary Enterprise*, ed. Charles Edwin Bradt (Chicago: The Winona Publishing Company, 1907), 137-141.

3. 마포삼열의 선교사역과 평양대부흥운동



1907년 평양대부흥 당시 장대현교회 앞에 모인 성도들

마포삼열의 선교사역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평양과의 연관성은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그가 평양을 선교지역으로 선호하고 있었지만, 그곳을 방문하고 거주하면서 “평양이야말로 이 세상의 도시들 중에서 가장 악한 도시 중의 하나”라고 언급할 정도로 악명이 높았다.¹³⁾ 또한 미 북장로교 선교부 총무였던 로버트 스피어(Robert E. Speer)도 “평양은 한국 내에서 가장 어려운 선교지역 중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¹⁴⁾ 그런데 청일전쟁 이후, 평양은 어느 지역보다도 영적 각성 기운이 확산되고 있었고 마포삼열의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통해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 가고 있었다. 20세기에 들어서자마자, 조선왕조의 기운은 급격히 기울고 있는 가운데, 서북지역의 교세는 점점 확장일로에 놓여 있었으며 영적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북장로교 선교부는 본격적인 평양 선교를 위하여, 1893년 1월 23일, 마포삼열, 이길함(Graham Lee), 그리고 소안련(William L. Swallen) “세 명의 트리오”(a good trio) 선교사들을 임명하였다.¹⁵⁾

1904년 9월 22일, 미 북장로교 선교사 호레이스 알렌(Horace N. Allen)이 한국에 도착하여 개신교 선교를 시작한 20주년을 기념하는 선교 모임이 열렸다. 주요한 선교 회의는 언더우드와 스크랜튼이 사회를 보았고, 오전 경건예배를 하디(Robert A. Hardie) 선교사의 인도로 마친 후, 마포삼열 선교사의 “한국의 복음화에 있어서의 정책과 방법들”(Policy and Methods in Evangelization of Korea)을 비롯한 특강들이 있었는데, 이 글에서 우리는 초기 한국선교의 단면도를 발견할 수 있다. 마포삼열은 북장로교 선교부의 사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의 선교 방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여섯 가지 항목으로 진술하고 있다:

첫째로 복음의 메시지를 단순하고도 명료하게 널리 선포하는 것이다.... 둘째는 성경의 우선성이다. 우리 모두에게 궁극적인 권위는 인간

의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두어야 한다.... 셋째는 세례문답이다. 초신자가 죄에 대한 자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열망하고 죄로부터 구속함 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교회는 그가 공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경건한 기독교인의 삶을 영위하도록 권면해야 한다.... 넷째는 회심자에게 열정적인 전도의 정신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지속적으로 그러한 사명에 불타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남녀 신자들을 초기 단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권면하도록 하되, 돈을 사용하는 것은 삼가고 주의 사역에 재정적인 동기로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이와 같은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과 열정적으로 진리를 전하는 데에 동참하게 함으로 교회의 성장과 발전이 한국의 복음화로 이어질 것이다.... 진정한 열심은 또 다른 열심을 낳을 것이고 확신은 또 다른 확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다섯째는 성경공부 즉 사경회제도이다. 복음을 전하는 신적 기관으로서 교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선교활동의 주요한 사역인 성경공부와 예배보다 한국 상황에 더 적합한 것은 없다.... 마지막으로 조사, 전도자,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한 교육과 훈련과정이다. 이것이야말로 전도사역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믿기로는 교육선교 사역은 교회안에서와 교회로부터 시행되어야 하고, 복음전도 사역의 결과로서, 그리고 전도와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사역은 결국 지리적으로 복음을 확장해 나가는 데에 강력한 동인(動因)이 될 것이다....¹⁶⁾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은 결국은 마포삼열을 비롯한 미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복음전도와 교회개혁에 진력하면서도, 기독교 교리와 신앙고백에 토대를 둔 바른 신학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사경회를 통해서, 철저한 말씀에 대한 연구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복음의 빛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복음전도의 열정을 널리 확산시켜 나갔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 속에서 사경회운동이 결국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영적 토양이 마련된 것이었다.

13) Jong Hyeong Lee, “Samuel Austin Moffett,” 79.

14) Robert E. Speer, *Presbyterian Foreign Missions* (Philadelphia: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and Sabbath-School Work, 1901), 168.

15) Jong Hyeong Lee, “Samuel Austin Moffett,” 69, 70-71.

16) Samuel A. Moffett, “Policy and Methods for the Evangelization of Korea,” *The Korea Field* 13 (November, 1904), 193-198. 마포삼열의 특강 전문이 *The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 37:5 (May 1906): 1-8 에도 게재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에서의 미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사역과 정책이 중국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반영하고 있다.

4. 마포삼열이 평양대부흥운동에 미친 영향



1907년 평양에서 열린 북장로회 선교사 연례모임 기념사진, 아래에서 두 번째줄 흰 정장에 넥타이를 맨 이가 마포삼열 (사진 출처: 1907revival.com)

만주에서 활동하던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가 한인 번역자들과 협력하여 개시한 성경번역을 위시한 권서들의 활동을 한반도 전체로 파급되어 갈 수 있는 선교적 통로로 구축한 배경에는 서북지역의 선교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차례 방문했던 언더우드, 마포삼열, 게일, 그리고 아펜젤러의 선견지명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마포삼열은 만주에서 존 로스와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들

을 만나고 그들의 국경지역에서의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미 북장로교 선교부는 서북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 지역을 복음화하고자 하는 강력한 소망과 확신을 소유하게 되었다.¹⁷⁾

마포삼열은 누구보다도 한국인의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전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던 인물이었다. 기도를 통하여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와 연합과 지속적인 교제 없이는 성령의 능력이 선교사의 사역에 나타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자신과 동료 및 후배 선교사들에게 권면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이고도 진정한 사랑으로 선교지 백성을 대하면서 그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를 개개인이 믿고 변화되도록 힘써야 하며, 선교사들의 모든 노력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the evangelization of the people)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⁸⁾ 그런 면에서, 그는 진정한 신자이자 목회자이었고, 또한 설교자요 전도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한 인물이었다. 마포삼열은 철두철미하게 복음전도에 우선성을 두는 선교사역을 일관되게 강조하면서, 교육을 비롯한 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선교사역의 중요성도 충분히 숙지했고 실시하였다.

마포삼열은 이러한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지역 선교에 지대한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신앙을 토대로 복음전도에 열정적인 토착교회를 세우기 위해, 한국어 사용을 매우 강조했고, 선교지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동역자들로 삼았으며, 그리고 자립하고 자전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 전심전력하였다.¹⁹⁾ 특히 한국인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시행함으로 한국교회의 자립을 이룩

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마포삼열은 “다양한 훈련과정이야말로 아마도 가장 영향력이 있고 독특한 선교사역”이라고 간주하였다.²⁰⁾

이러한 그의 노력을 통해 대부흥운동의 발원지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역사적인 첫 독노회가 조직되는 데에도 산파 역할을 감당하였다. 마포삼열은 “평양선교를 전국교회의 중심세력으로 육성하는 데에 절대적인 기여”를 하였고, 이러한 공헌을 감안하여 마포삼열은 최초의 독노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대부흥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던 기간에 한국교회 안에 교회연합적인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미국의 대각성운동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회의 연합은 한국에서의 복음화를 앞당기기 위해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언더우드는 선교부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한국에 연합기독교회가 세워진다면, 이 나라가 빨리 복음화되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합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 이루어가야 할 사안입니다. 결음마다 내딛기 전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완성될 수만 있다면 기독교의 역량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²¹⁾

마포삼열은 연합운동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연합이 장로교회의 원리와 가르침에서 벗어나면서까지 시도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교육 분야나 대학과 관계된 분야에서는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였다.²²⁾ 마포삼열은 한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신학적 토대, 즉 개혁신앙의 교리와 신앙고백을 준수하면서도, 개혁주의적 경건주의를 한국의 상황에 맞게 조우시킴으로 당시의 영적 침체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그는 신학적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목회지와 선교지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시행함으로써 영적 침체와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는 사역에 앞서, 스스로가 경건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단히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함으로 진정한 신자요 목회자요 또한 전도자가 되지 아니하면 결코 사역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음을 절감하면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나갔다.²³⁾ 그런 면에서, 마포삼열은 “평양선교의 아버지요, 한국장로교회의 설계자”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과언이 아니며,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되는 데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 

20) 마포삼열이 브라운 (A. J. Brown)에게 보내는 1903년 8월 5일자 편지.

21) 언더우드, 『언더우드의 선교편지』 (1885-1916) 김인수 역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2), 486-487.

22) 마포삼열이 A. J. 브라운에게 보낸 1906년 1월 31일 자 편지.

23) Samuel A. Moffett, “Prerequisites and Principles of Evangelization,” 74.

17) Samuel A. Moffett, “Evangelistic Tour in the North of Korea,” *Church at Home and Abroad* 10 (October 1891): 330.

18) Samuel A. Moffett, “Prerequisites and Principles of Evangelization,” 64, 66.

19) Blair, “Precious Memories of Dr. Samuel A. Moffett,” 11-12.

해방 후 한국정치와 기독교민족주의자 조만식¹⁾

박명수 (서울신대 명예교수, 전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회장)

머리말: 왜 우리는 조만식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가?



고당 조만식

해방 이후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각각 다른 이념이 지배하는 두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삼팔선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남북의 분단을 염려하고 하나의 통일국가를 꿈꿔온 지도자가 있다. 그분이 바로 조만식선생이다. 소련군이 조만식을 처음 만났을 때 소련은 자신들의 통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여기에 대해서 조만식은 조국을 분단시키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소련군은 1945년 8월 26일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3·8선으로 달려가서 3·8선을 만들었다. 이것을 본 조만식은 조국 분단을 예감했던 것이다. 그래서 소련군에게 분단국가를 만들지 말 것을 요청한 것이다.

통일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통일의 꿈이 사라진 적은 없다. 하지만 아직도 그 통일은 요원하기만 하다. 해방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각각 자기 나름대로 통일과 그 방식을 준비했지만 성공한 것은 한 번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왜 분단되었는지, 통일의 장애물은 무엇인지, 시대마다 각각 어떤 전략으로 통일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우리의 역사

는 다양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연구해야 할 대상이 바로 조만식 선생이라고 생각한다. 그분은 일찍이 분단의 조짐을 느끼고, 조국의 분단을 막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다. 비록 그의 노력은 이루어지지 못하여 분단이 고착화되었지만 그는 자신의 운명을 던져 조국 통일의 제단에서 순교하였다. 그는 진정으로 조국의 통일을 희망했고, 북한동포를 사랑했으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희망했다. 아마도 분단의 아픔을 가장 먼저 맛본 사람이었고, 그래서 가장 강력한 통일의 소원을 가진 분이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조만식은 민주주의의 확실한 토대 위에서 통일을 추구하였다. 그는 통일지상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한반도가 개인의 자유와 사적 소유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약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를 원했다. 그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공산주의자들과도 손을 잡고 일했지만 나중에는 남한의 민족주의자들과 연대해서 조국의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했다.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해방 직후와 많이 다르다. 해방 후 한국사회를 규정하였던 냉전체제는 공산권의 붕괴로 막을 내렸다. 따라서 조만식선생을 괴롭혔던 공산주의 국가 소련은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나라 러시아가 등장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 중진국이 되어서 어느 정도의 발언권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반도에는 해방 직후와 같은 긴장감이 돌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 남한사회는 이데올로기의 분열을 겪고 있다. 해방 직후의 분열현상이 지금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 같다.

일부 역사학자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의심하고,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글을 쓰고 있다. 이들은 해방 정국에 있어서 좌파가 우세했고, 미국은 이런 한국사회의 흐름과는 반대로 자본주의를 강요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북조선에는 자치적으로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소련은 이런 한국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인민위원회를 인정해서 오늘의 북조선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해방 직후 한반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해방 직후 북한사회의 중심은 바로 조만식선생이었다. 19세기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기독교 민족운동은 일제 강점기부터 조만식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고, 해방이 되었을 때 조만식선생은 북한사회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도자였다. 그래서 함석헌은 남한에서는 인재가 너무 많아서 문제요, 북한에서는 인재가 너무 없어서 문제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이북은 다섯 도를 조만식 단 한 사

1) 이 글은 박명수, [조만식과 해방후 한국정치] (북코리아, 2015)의 서론과 결론을 발췌한 것임.

람에게 맡으라 했으니”²⁾라고 말하면서 해방 후의 북한 정국을 안타까워했다.

함석헌은 “해방 후 북한에서 정치적 인물은 조만식 단 하나였다. 그다음은 다 그의 아래,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지 감히 그와 의견을 나누고 바꾸고 정권을 다룰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면서 “조 선생이 야심이 있다면 편하기도 했겠지만, 민족의 운명이 갈리게 될 고비를 만나 좌우를 돌아봐야 다 자기의 결정을 기다려 턱을 쳐들고 있는 자뿐이지 감히 의견이나 수완을 가지고 의논하고 협력할 아무도 없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외롭고 난처했을까?”라고 했다. 따라서 해방 이후 북한의 역사는 조만식과 함께 시작해야 할 것이다.³⁾

1. 해방 후 한국 정치의 전개와 조만식

해방 후 한국 정치에 있어서 조만식의 위치는 특별하다. 대부분의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서울에서 활동하였다. 함석헌의 말대로 서울에는 인물이 너무나 많아서 걱정이었다. 하지만 조만식은 자신의 고향인 평양을 떠나지 않고 해방 후 건국운동에 참여하였다. 해방 후 평양은 매우 특별한 장소였다. 해방 이전에 평양은 한국의 제 2의 도시였지만 여전히 한 지방에 불과했다. 하지만 해방 후 평양은 북한사회의 중심으로 등장했고, 따라서 조만식은 평양의 가장 중요한 정치세력으로 그 위치를 자리매김하였다. 따라서 해방 후 북한의 역사는 조만식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해방 후 북한 특히 평안도에서는 공산주의가 아닌 민족주의자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기독교인이었다. 이 중심에 조만식이 있었던 것이다. 해방 직후에 만들어진 평남 건국준비위원회는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민족주의자들이 몇 명의 공산주의자들을 포함하여 만든 것이다. 이들 기독교민족주의자들은 오랫동안 평양에서 일제와 싸우면서 평양사회를 이끌어 온 지역의 유지들이었다. 조만식은 이들과 함께 개혁적인 민주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대부분의 공산주의자들도 여기에 동의했다. 한마디로 해방 후 평양을 중심으로 한 북한 사회는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라 기독교민족주의자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만일 외세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이들이 북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런 북한사회를 일거에 바꾸어 놓은 것은 소련군의 진주이다. 소련군은 해방 이전부터 함경도 지역에 진주하였고, 해방 후 8월 26일 소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가 평양에 왔다. 그 후 이들은 평남건국준비위원회를 해체하고, 인민

정치위원회를 만들어 평양의 주류였던 민족주의 세력을 일개 정치집단으로 격하하고, 평양의 소수파인 공산주의자들을 평양사회의 주류로 만들어 버렸다. 비록 조만식이 위원장이었지만 정국의 주도권은 이미 공산주의자들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조만식은 이런 상황에서 “부르주아민주주의 건설”이라는 명분 아래 북한 사회에 민주주의를 건설하려고 노력하였다. 소련군정은 북한에 아직 본격적인 사회주의 혁명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소자본가를 포함하는 부르주아민주주의를 내세웠고, 조만식은 여기에서 민주주의 건설의 가능성을 생각했다. 소련은 북한에 강력한 중앙정부를 세우기를 원했고, 그래서 북조선 5도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조만식에게 책임을 맡기고자 했다. 그러나 조만식은 이것은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거부했다. 소련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은 당시 북한에서 자신들의 세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사실상 사회주의) 통일전선을 만들어서 기독교민족주의자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반동세력이 되는 것을 막고, 또한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려고 했다. 그래서 소련당국은 조만식에게 조선민주당의 창당을 권유했고, 이 일에 앞장선 것이 바로 김일성이었다. 조만식은 처음에는 여기에 반대했지만 조선민주당을 중심으로 강력한 민주주의 민족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조선민주당을 창당했다. 김일성은 처음에는 참여를 약속했지만 나중에는 자신은 빠지고 최용건과 김책을 내세워 조선민주당을 조종하고자 했다. 조선민주당은 창당부터 엄청난 호응을 얻었다. 당시 소련군정과 공산주의자들에게 실망한 많은 북한 주민들은 조선민주당을 중심으로 반소, 반공 운동을 전개했다. 그리해서 도 단위 이하의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에는 조선민주당원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소련은 고양이를 만들라고 했더니 호랑이를 키웠다고 말하며 심기에 불편해했다.

하지만 소련당국과 조만식이 결정적으로 갈라서게 된 것은 바로 신탁통치 문제 때문이다. 해방 후 소련의 가장 중요한 한반도 정책은 북한에 친소정권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오랫동안 한반도를 기지로 해서 소련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소련은 친소, 반일정권이 북한에 들어서기를 원했다. 하지만 조만식은 소련군정의 잘못을 사사건건 비판하였고, 친일파 청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찬성했지만 무법적인 보복은 반대했다. 소련은 조만식을 의심하였다. 1945년 말 모스크바에서 열린 삼상회의의 신탁통치 결정은 소련이 조만식의 의중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조만식은 소련의 지시를 거역할 뿐만이 아니라 남조선민족주의자들과의 연대를 주장하였다. 소련군정과 김일성은 조만식을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2) 함석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고당 조만식 회상록』 (서울: 고당 기념사업회, 2005), 278.

3) 함석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278.

결국 조만식을 강제 연금시켜 버린 것이다. 공산주의자들과 조만식의 통일전선은 깨지고 말았다.

조만식은 처음부터 미군정 및 민족주의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조만식은 소련당국과 갈등이 심해지면서 월남하는 자신의 측근들을 통해 남한의 미군정당국과 민족주의세력들과 연대를 강화해 나갔다. 월남한 조만식의 측근들은 미군정당국에 조만식의 활동을 알려주었으며, 미군정은 조만식을 한반도에 가장 애국적인 민주주의 지도자로 인식하였다. 미군정과 조만식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계속 연락을 하였고, 조만식은 미군정의 조언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아울러서 이승만과 김구도 조만식과 연대를 강화했다. 실제로 조만식의 측근들은 월남해서 이승만과 김구와 함께 강력한 반공전선을 형성했다. 또한 북한의 민족주의 세력, 특히 기독교인들은 남한의 김구와 연대해서 강력한 반소, 반공운동을 펼쳤다. 신탁통치 정국 이후에 조만식은 공산주의와의 통일전선보다는 민족주의와 연합전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모스크바삼상회의는 신탁통치와 더불어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한반도에 새로 세워질 임시정부수립을 논의할 대표들을 선출할 것을 결의하였다. 따라서 1946년 이후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누가 대표가 되어 새로운 나라의 정부를 만들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여기에서 소련은 공산세력을, 미국은 민주세력을 대표로 파송해서 미래의 한반도의 운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했다. 소련은 북한에서는 모든 세력이 친소세력이 되어서 하나로 소련을 지지하고, 남한에서는 좌우가 분열되어 대표가 나누어지기를 원했다. 반대로 미국은 북한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여하여 친소세력이 약화되고, 반면에 남한에서는 김구, 이승만의 반탁세력이 참여하여 우익이 강화되기를 원했다. 여기에서 소련과 미국은 반탁세력을 미소공위에 참여시킬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로 지루한 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 논쟁의 핵심은 바로 표현의 자유였다. 미국은 민주사회의 핵심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이므로 반탁운동을 하는 사람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며, 소련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반대하는 사람을 미소공위에 참여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논쟁에서 조만식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다. 왜냐하면 그는 소련에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결국 미소공위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것은 앞으로 남북이 어떤 체제로 나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것이다.

미소공동위원회가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 실패하고, 결국 미국은 이것을 유엔에 이관하였다.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은 총선거를 통한 정부수립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의 결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북한을 제외한 남한만이 단독선거를 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남한만의 단독정

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제는 남한의 민족주의 진영 내에서 싸움이 전개되었다. 이승만은 오래전부터 단정(단독정부)을 지지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과 같은 노선을 걷던 김구는 반대로 입장을 바꾸었다. 이런 과정에서 조만식의 측근들은 이승만을 지지하였고, 이승만 정부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승만은 조만식과 월남민에 대한 배려로 김성수와 상의하여 이윤영을 종로구에 추천하여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했고, 북한 월남민과 조만식을 대표하여 이윤영을 총리후보로 지명하였다. 이승만은 통일을 염두에 두고 조만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결국 6·25 한국 전쟁 가운데 조만식은 사망하고 말았다.

2. 조만식이 꿈꾼 새로운 나라: 건국이념

우리는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방 후 조만식이 한국정치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해방 이후 북한에서 조만식의 위치는 매우 중요했다. 그는 북한에 거주하는 유일한 전국적인 민족지도자였다. 특별히 평안남도에서 그의 위치는 확고했다. 그는 건국준비위원회를 주도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익을 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는 이념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만일 소련이 와서 공산주의자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북한의 조직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해방 후 북한에서 조만식의 위치는 확고했을 것이다.

오늘날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바로 이 같은 조만식의 리더십을 강제로 제약해서 공산주의에 유리한 정국으로 만듦으로써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한 주민의 자발적인 조직이 아니라 소련이 인위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을 내세워서 조만식의 민족주의를 억압하고 만든 정권이다.

그러면 원래 조만식이 꿈꿨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실제로 조만식은 해방 이후 별다른 글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순간순간 결단을 내렸으며, 우리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원했던 새로운 나라의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다.

첫째, 조만식은 한반도의 분단을 염려하고 통일을 주장하였다. 조만식은 평남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 때, 이것이 중앙과 독자적으로 비칠까 걱정했고, 따라서 평남건준은 지방단위의 자치단체임을 분명히 했다. 소련군이 조선에 진주해서 제일 먼저 3·8선을 확정하고, 각 도에 인민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통일정부를 세운다고 했을 때 조만식은 분단의 시초라는 것을 알았다. 소련군은 조만식에게 소련군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조만식은 소련군에게 통일국가를 만드는 데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미군정의 보고에 의하면 소련군 한반도정책은 최소의 목표는 북한의 지배이

며, 최대의 목표는 한반도 전체의 지배였다. 이런 소련군은 우선적으로 북조선에서 자신들의 체제를 확고히 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것을 위해서 소련은 북한전체를 하나로 통일해서 중앙정부를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스탈린은 9월 20일에 북조선에 “부르주아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라고 명령하였고, 여기에 따라서 소련군 사령부는 1945년 10월 북조선 5도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다. 소련군은 조만식을 대표로 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조만식은 이것이 바로 분단의 고착화라고 생각했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다. 조만식으로 인해서 1945년 가을에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는 만들어지지 못했다.

이 같은 원칙에 의해서 조만식은 원래 조선민주당의 창당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북한에 지역정당이 생기면 이것이 분열의 뿌리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김일성이 처음부터 북한에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행동하려고 했던 것과 대조된다. 비록 조만식이 후에 조선민주당을 만들기로 작정했지만 이것은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과 맞서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세우고자 하는 전략 때문이었다. 조만식은 조선민주당을 창당하면서 “통일된 중앙정부의 신속한 출현”을 강조하였다. 조만식은 당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던 분단의 고착화에 대해서 반대하며, 조선민주당을 통하여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 것이다.

둘째, 조만식은 외세의 개입을 반대하고 자주 독립국가를 꿈꿨다. 조만식은 무엇보다도 민족주의자였다. 그는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 사령관을 향하여 “당신들은 해방군이요, 점령군이요”라고 질문했다. 조만식은 처음에는 김일성을 민족주의자라고 생각하고 그와 협력을 했지만 그가 소련군의 입장만을 대변하자 그는 김일성과의 관계를 단절했다. 조만식은 신의주 사건 때에 김일성이 소련군의 행동을 규탄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매우 분개했다. 신의주사건을 둘러싼 태도는 조만식이 소련과 김일성과 결별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조만식은 국제사회가 이미 조선의 자주독립을 인정했다고 생각했다. 이미 대서양헌장에서 전후에 식민지의 자주독립을 언급했고,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 영국, 중국은 조선에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소련은 이 카이로 회담을 받아들였다. 조만식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신탁통치는 바로 이 같은 국제적인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소련당국이 집요하게 신탁통치 지지를 강요할 때, 이것은 국제조약의 파기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독립된 나라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자신들의 운명을 자신들이 결정하는 민족자결권이다. 조만식은 비록 신탁통치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주인인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그것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해방군이라고 주장하는 소련군이 국민 다수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탁통치를 강요하는 것

은 자주독립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조만식이 신탁통치를 지지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자주독립에 대한 그의 신념 때문이었다.

셋째, 조만식은 특정계급을 옹호하는 공산주의에 맞서 대동단결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자였으며, 동시에 시민의 책임을 강조하는 민주주의자였다. 조만식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되 계급주의에 빠지지 않고 모든 민족을 품고 대동단결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자였다. 원래 조만식은 실력을 갖춘 책임 있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바라는 실력양성론자였다. 당시의 용어로 말한다면 이들은 사회의 “유지”인 것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봉건계급도 아니고, 공산주의적인 “인민”도 아니라 건전한 도덕과 책임을 갖춘 근대 중산층 시민이다. 조만식은 평양의 시민계층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자수성가한 사람들로써 기독교신앙을 갖고 사회의 도덕적 책임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해방 후 조만식은 소련군환영대회에서도, 김일성환영대회에서도, 소련군 당국과의 모임에서도 조선은 민주주의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국제사회에서 이미 조선은 민주주의국가로 만드는 데 합의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해방 후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는 민주주의라는 용어였다. 조만식은 후에 미소공동위원회 브라운과의 면담에서 자신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미국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이며, 소련은 이것을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집단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런 정책 아래서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만식에게 있어서 자유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카이로 회담에서 이미 조선을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로 허락한다고 되어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해방된 나라에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점이 해방 이후 미국과 소련의 차이점이었다. 소련은 신탁통치에 찬성하는 사람만이 임시정부를 위한 미소공동위원회의 논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에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신탁통치를 반대한다고 해서 미소공의회에 참석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표현의 자유, 곧 자유문제 때문에 미소공의회는 결렬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소련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만식은 이런 소련의 태도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였다.

넷째, 조만식은 토지문제에 대한 공산주의의 혁명적인 방법을 반대하고, 개인의 사적 재산권과 노동자 농민의 노동권을 함께 보장하는 개혁적 경제정책을 지지했다. 조만식은 원래부터 경제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일제 강점기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강조하였다. 특별히 그는 북한에서 공산당이 토지를 분배해서 농민들의 호응을 얻는 것을 보고 남한에도 적절한 농지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가난한 농민들도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조만식은 자본주의 체제를 지지했고,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소련이 일본의 것이 아닌 개인의 공장을 강제로 몰수하려고 했을 때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공산주의자들이 친일파 청산을 내세워서 개인의 소유권을 무시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조만식은 소련이 부르주아민주주의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소련은 점령 초기에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 행동하는 것은 이런 원칙과는 다른 것이었다.

조만식은 가난한 농민의 소작료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일제 강점기와는 반대로 지주와 소작인의 소작료를 3: 7로 하였다. 이것은 일제 강점기에 비하면 파격적인 것이었다. 조만식은 여러 차례 남한의 미군정 당국에 토지개혁을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런 점에서 조만식은 일반 대중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가난한 자들에게 토지를 분배한다는 것은 실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력이다. 그러나 미군정국은 이것을 새로 수립될 한국정부에 미루었다.

3. 해방 후 미소관계와 조만식

조만식은 원래 기독교인으로서 미국선교사들과 친분이 있었다. 따라서 그는 미국식 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해방 후 그를 매우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었다. 그것은 미국식 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가 소련 군정과 협력하여 해방 후 한국정치를 이끌어가야 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해방 후 조만식의 정치는 처음부터 갈등을 예고하고 있었다.

조만식은 처음에는 미국과 소련은 연합국으로서 공동으로 전후 세계 정치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였다. 소련은 해방 이후 북한사회에 공산주의 세력이 아직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민족주의와 연합해야 하며, 그 대상으로 조만식을 생각하였다. 조만식과 소련은 서로를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소련이 공산국가이지만 소련은 공산이념을 내세우지 않고 민주주의로 포장하였다. 그리하여 소련이 내세운 것은 부르주아민주주의 국가 건설이며, 이것을 위하여 민주주의 통일전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조만식은 여기에서 자신과 소련 군정이 함께 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발견했던 것 같다.

부르주아민주주의란 사회주의민주주의에 이르는 전 단계로서 봉건주의를 타파하기 위하여 노동자와 농민이 부르주아계층을 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략적인 것으로 사회주의로 나가기 위한 전 단계이다. 조만식은 이것을 받아

들여 시민계층이 주도하는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민주주의 통일전선도 아직 약체에 있는 프롤레타리아 세력이 중산층을 끌어들이며 봉건세력과 투쟁전선을 형성하자는 것이다. 조만식은 이곳을 자신의 대동단결과 연결시켰다. 하지만 조만식은 결국 여기에 저항하다가 연금당하고 말았다.

조만식과 소련이 결별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계기는 신탁통치 반대 때문이었다. 소련의 한반도 정책의 가장 핵심은 한반도에 친소정권을 세우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일본의 위협에 시달렸던 소련은 한반도에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권을 만들기를 원했다. 그러나 조만식은 바로 이런 소련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는 소련이 북한에서 보인 강간, 절도, 재산탈취, 종교탄압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했고, 이것은 소련으로 하여금 조만식이 친소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조만식이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것이었다. 신탁통치 기간에 보여주었던 조만식의 태도는 소련으로 하여금 도저히 함께 일하기 어려운 상대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조만식의 입장에서는 소련이 3·8선을 강화해서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 신탁통치를 강요해서 자주성을 부인하며, 인민혁명을 주장하며 개인의 자유를 탄압하고, 친일파 청산을 내세워서 사적 소유권을 무시한다고 보았다. 그로서는 소련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조만식은 초기에는 소련에 희망을 가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결국은 소련과 결별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조만식과 미군정과는 어떤 관계였는가? 사실 북한에 있는 조만식이 남한의 미군정과 공개적인 관계를 맺기는 어렵다. 하지만 미군은 처음부터 조만식을 한국사회의 지도자로 보았고, 조만식을 남한에 있는 미군정의 고문으로 임명하였다. 조만식은 한 번도 이것을 공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 조만식은 신의주사건을 지켜보고, 반탁운동을 하면서 소련군정과 마찰을 하였고, 남한의 미군정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갔다. 조만식은 밀사를 보내서 미군정으로 부터 조언을 구했다. 조만식의 측근 가운데는 한근조를 비롯하여 월남하여 미군정에서 일한 사람들이 많았다. 실질적으로 미소공위에 관한 조만식의 입장은 하지의 조언과 일치한다. 신탁통치는 지지하지 않지만 미소공위에는 참여하여 활동한다는 것이다.

반탁운동 이후 미소공동위원회의 회담에서 조만식은 매우 흥미로운 존재였다. 소련은 북한에는 모든 세력이 신탁통치를 지지한다고 선전했고, 남한의 반탁운동가들은 미소공위의 회담에 참가시킬 수 없다고 했다. 여기에 대해서 미

국은 조만식은 신탁통치를 지지하지 않으며, 소련이 강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공격하였다. 또한 미국은 이승만과 김구가 신탁통치를 반대할 뿐만이 아니라 미소공위에 참가하는 것조차 막는 것을 보면서 만일 조만식이 미소공위에 참여하게 되면 조만식과 같은 온건한 민족주의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를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조만식은 김규식과 거의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 미소공위는 결론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지만 조만식의 위치는 매우 중요했다.

미군정과 조만식은 상당한 신뢰관계를 형성하였다. 미군정은 남한 정치가들의 권모술수와 이기심에 진절머리를 내면서 조만식과 같은 청렴하고 순수한 지도자를 좋아했다. 하지는 항상 조만식을 한국의 가장 존경받는 애국자라고 치켜세웠다. 이뿐만 아니라 조만식은 1947년 7월 당시 북한을 방문한 브라운과의 대화에서 만일 신탁통치를 받게 된다면 차라리 미국만의 신탁통치를 받기를 원한다고 말할 정도로 친미적인 입장을 밝혔고, 자기가 원하는 민주주의는 소련의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소유권을 인정하는 미국식 민주주의임을 밝혔다. 이 회담에서 조만식은 북한 동포를 버리고 떠날 수 없다는 초기의 입장을 바꾸어 남한에 가서 조국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미군과 함께 서울로 가기를 원했다. 하지만 미소관계가 냉전상태로 치달으면서 미소공위는 결렬되었고, 한국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이런 조만식의 친미적인 입장은 브라운과의 회담 이후 조만식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브라운과의 회담 이후 조만식의 연금상태는 더욱 강화되었고, 감시는 심해졌다. 소련은 조만식이 반소주의자일 뿐만이 아니라 친미주의자이며, 반동분자라고 공격하였다. 결국 조만식은 6·25 한국전쟁에서 미군에 밀려 후퇴하는 과정에서 북한당국에 의해서 살해되고 말았다.

4. 해방 후 한국의 정치상황과 조만식

민족주의자인 조만식은 원래 대동단결을 주장하는 사람이었다. 일제 강점기에도 그는 신간회 활동을 하면서 좌파와 연합노선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신간회 좌파가 신간회 주류를 비판하고 계급투쟁을 강조하여 신간회 해소(해산)를 주장할 때 그는 분명히 반대를 표했다. 그는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적인 요소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해방 후 북한에서 그는 공산주의자들과도 대동단결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현준혁과 김일성이 바로 그들이다. 비록 소련의 강요로 인민정치위원회에 공산주의자들이 반절이 넘는 세력이 되었지만 조만식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준혁과 함께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건설하려고 했다.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지닌 온건한 공산주의자 현준혁은 그러나 암살당하

고 말았다.

해방 후 조만식과 함께 북한 사회를 이끌어 가려고 했던 사람은 김일성이다. 김일성은 33세의 젊은 나이로 귀국해서 조만식을 내세워 조선민주당을 만들어 민주주의 통일전선을 형성하려고 했다. 이것은 공산당이 약세에 있고, 아직 국내기반이 든든하지 못한 김일성을 위한 소련의 지침이었다. 처음에 김일성은 자신이 민족주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김일성은 조만식을 돕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조선민주당을 만들도록 했다. 그러나 정작 창당이 될 즈음에는 자신은 빠지고 최용건과 김책을 보내 당을 조종하고자 했다. 결국 신의주 사건과 신탁통치문제로 이들의 사이는 악화되고 민주주의 통일전선도 무너지게 되었다. 조만식의 공산주의자들과의 대동단결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일부에서는 조만식과 여운형이 건국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아닌가 생각한다. 여운형은 조만식을 자신의 통일전선에 끌어들이고자 한 것 같다. 하지만 조만식은 여운형을 공산주의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대세를 따르는 기회주의자로 평가했다. 실제로 여운형은 북한에 와서 여러 차례 조만식을 설득해서 반탁의 입장을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김일성과 조만식의 통일전선에 금이 가고 있을 때, 한편에서는 조만식과 남쪽의 민족주의자들과의 연합전선이 형성되고 있었다. 조만식은 측근 한근조를 통해서 이승만과 접촉하고, 이승만은 밀사를 보내 월남해서 함께 일할 것을 권유하였다. 조만식은 이승만의 권유를 거절하였지만 이들의 관계는 지속되었다. 한때 이승만은 조만식을 통해서 김일성에게 접근하기도 했다. 반탁운동이 강하게 일고 있을 때 조만식은 치스차코프사령관에게 소련과의 연대보다도 같은 민족인 남한지도자들과의 연대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조만식은 자신의 측근을 남쪽으로 보내서 이승만을 돕도록 했다. 조만식의 측근인 이윤영은 월남하여 바로 이승만을 위해서 일했다. 그러나 조만식은 이승만과 함께 신탁통치에는 반대했지만 이승만과는 달리 미소공위에서 활동하기를 원했다. 조만식은 미소공위를 통해서 새로운 출구를 찾으려고 하였다.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주장하고 총선거를 실시하려고 할 때 조만식의 지지자들인 월남 피란민들의 도움을 받았다. 당시 김구는 남한 단독정부를 반대하였지만 이승만은 남한에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하며, 이것을 기반으로 통일한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월남 피란민들은 김구를 반대하며 이승만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월남민들이 대한민국건국에 기여한 것이다. 이것을 잘 아는 이승만은 초대 국무총리로 조만식의 대리자인 이윤영을 임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남에서 정치적인 기반이 약한 이윤영은 실패

하고 말았다. 사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건국과정에서 조만식을 잊지 않고, 함께 일하기를 원했다.

조만식은 김구와도 상당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조만식은 원래부터 해방정국에서 임시정부의 역할을 인정하였다. 김구는 1945년 11월 말 귀국한 다음에 신익희를 중심으로 정치공작대를 조직해서 강력한 반탁운동을 했다. 여기에 평안도 지역을 담당한 사람이 바로 조만식의 측근이었다. 적어도 조선민주당 사람들은 김구와 함께 김일성암살음모를 꾸미기도 하였다. 조만식은 조선민주당의 발기인이었던 김병조를 통해서 김구와도 연락을 했다. 김구와 조만식은 이승만과 함께 서로 연락하여 반탁정국을 이끌어 갔다. 특별히 해방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북한에서의 3·1절 반탁운동은 김구와 조만식의 조선민주당이 함께 활동한 것이다. 아울러서 김구는 남북연석회의 때 김일성에게 조만식의 석방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그가 암살당하기 얼마 전에는 조만식에게 밀서를 보내려고 시도하였다. 아마도 남북의 우익이 공조해서 평화통일의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김구는 조만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비폭력 투쟁을 강조한 조만식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김구의 테러 활동에 동조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조만식과 오랫동안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어 온 것은 국내의 민족주의자인 송진우와 김성수였다. 이들은 원래 일본 유학시절부터 각별한 관계였고, 함께 민족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조만식은 평남 건준을 조직하면서 송진우와 상의하였고, 그와 긴밀한 연락을 하였다. 조만식의 동료 김동원은 송진우와 함께 한민당을 창당하였다. 북한에서 박해가 심해지자 조만식의 측근들은 월남하기 시작하였고, 이들은 월남해서 한민당사의 방을 빌려서 조선민주당을 만들기도 하였다. 송진우가 사망한 후, 조만식의 가정과 조선민주당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은 김성수였다. 원래 조만식을 존경한 그는 조만식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윤영에게 자신의 선거구인 종로구를 양보하기도 하는 등, 조만식의 측근들을 보살피려고 노력했다. 큰 틀에서 김성수의 한민당과 조만식의 조선민주당은 서로 협력하는 관계였다.

5. 해방 후 한국사에 대한 재인식

우리는 이상에서 해방 이후 한국 정치와 조만식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에 근거해서 필자는 현재 해방 이후 한국사는 다음의 몇 가지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해방 이후 북한사회에서 공산주의는 매우 소수였으며,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한 민족주의자들이 주된 흐름이었다. 해방 후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사회는 기독교민족주의자들이 이끌어 가는 사회였다. 그 중심에는 조만식이 있었다. 공산주의자들은 매우 소수에 지나지 않았으며, 소련의 지지를 받아 상당히 세력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공산주의자들의 비행으로 인해서 여전히 일반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심지어 1946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조직되고, 토지개혁이 실시된 이후에도 공산당은 열세였다. 그래서 당명도 공산당에서 노동당으로 변경하였던 것이다. 1947년 7월 미소공위가 북한에 열렸을 때 많은 북한사람들은 미군이 와서 공산주의에서 북한을 해방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군정당국은 이 같은 정보에 따라서 남북한 자유선거를 주장했다. 따라서 해방 당시 한국사회에 좌파가 우세했다는 통념화된 결론은 재고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의 인민위원회는 북한사람들의 자발적인 단체가 아니라 소련과 공산주의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소련 침략의 수단이었다. 소련과 김일성은 계속 선전하기를 해방 이후 북한에는 인민의 자발적인 의사로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따라서 북한정권은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과 다르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소련군이 진주하자, 곧바로 대다수를 차지했던 민족주의자들을 하나의 정치그룹으로 전략시키고, 소수였던 공산주의자들은 북한사회의 중심세력으로 부상시켰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인민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했다. 이런 소련의 정책은 평남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최근에 발굴된 소련문서는 북한의 인민위원회가 소련의 지도와 영향 아래서 이루어진 것을 분명하게 밝혀 주고 있다. 인민위원회가 자발적인 단체라는 것은 북한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남한사회를 공격하기 위한 소련과 북한의 정치적인 선전에 불과하다.

셋째, 조만식은 대동단결의 측면에서 공산주의와 협조하였지만 그는 보다 근본적으로 미국의 민주주의와 남한의 민족주의 세력과 함께 하였다. 최근 일부 역사학자들은 조만식과 김일성의 민주주의 통일전선을 강조한다. 물론 조선민주당은 이 같은 통일전선의 산물이다. 하지만 조만식은 보다 근본적으로 남한의 민주주의 및 민족주의 세력과 연대하였다. 특별히 월남하는 그의 측근들은 바로 이런 연대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승만과 김구는 각각 조만식과 함께 국가건설에 노력하고자 했다. 아울러서 조만식은 미군과도 상당한 교감을 갖고 행동했다. 조만식은 고비마다 미군에 비밀특사를 파견하여 의견을 구했고, 미군은 조만식에게 신탁통치는 반대할 수 있지만 미소공위에선 참여해서 협상하기를 원했다. 조만식은 전반적으로 보아서 미군의 의사를 존중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소련 정보당국이 조만식을 친미파이며,

남한 민족주의자들과 연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근거가 있다.

넷째, 미소공동위원회의 협의대표선정에 있어서 조만식이 차지하는 위치는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조만식의 신탁통치 반대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 그리하여 신탁통치 정국 이후의 미소공위 협의대상선정과정에 서 논의되었던 조만식에 관한 내용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다. 조만식은 신탁통치는 반대했지만 미소공위에는 참여하기를 원했다. 사실 신탁통치문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한국의 임시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의 협의대상선정이었고, 어떤 대표들이 이 협의기구를 주도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였다. 여기에서 미국은 조만식을 북한 대표에 포함시켜서 김일성의 세력을 견제하려고 했다. 이것을 위해서 브라운은 1947년 7월 평양에서 조만식을 단독 면담하기도 했다. 또한 이승만과 김구는 신탁통치뿐만이 아니라 미소공위까지 거부함으로 미군은 조만식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길 계획을 하기도 하였다. 비록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어 조만식이 그 역할을 맡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가 차지하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이승만은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만식을 중요하게 배려했다. 북한이 유엔 주도하의 남북 총선거를 반대하자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주장하였고, 조만식의 측근들은 여기에 강하게 지지를 표명하였다. 민족통일 국가를 강조하며 단독정부를 반대하던 김구와 김규식은 월남 기독교인들과 결별하였다. 이승만은 북한의 조만식과 월남민들을 고려해서 이윤영이 종로에서 출마할 수 있도록 했고, 초대 국무총리에 조만식의 대리인격인 이윤영을 지명하기도 하였다. 이승만은 조만식을 북한을 대표하는 지도자로 보았으며, 그를 자신의 정치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였다.

맺는말: 오늘의 현실과 조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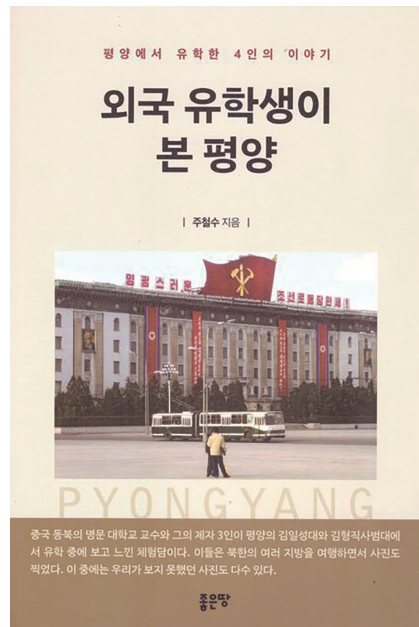
조만식이 시작한 민족통일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해방 공간에서 통일, 자주, 자유, 인권 등을 내세우면서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노력했다. 이것은 조선이 근대화를 하면서 기독교를 중심한 민족주의 세력들이 오랫동안 꿈꿔 온 나라였다. 하지만 이런 그의 꿈은 북한에 공산주의를 이식하고, 친소정권을 수립하려는 소련의 정책 때문에 좌절되고 말았다. 하지만 그의 꿈은 사라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다. 북한에서 월남한 수많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북한에도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조만식의 꿈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조만식이 꿈꾸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다. 그는 소련당국과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소유권을 놓고 싸웠다. 그는 개인의 가치가 전체의 이름으로 묵살당하는 사회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만식은 미군정이 경제적인 불평등에 눈을 감고 토지개혁을 머뭇거리는 것을 보고, 조속히 개혁정책을 수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진정한 개혁만이 남한의 공산화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점에서 조만식은 단지 보수적인 정치가가 아니라 개혁적인 민주주의자였다. 빈부의 격차가 점점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불안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만식은 건전한 시민계층이 주도하는 사회를 만들려고 했다. 역사는 수구보수적인 기득권층도, 한 맺혀 혁명으로 세상을 뒤엎으려는 인민도 아닌 성실하고, 책임 있는 시민이 대동단결하여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일제의 억압에 항거하면서도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도덕을 지키고, 실력을 양성하여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실제로 평양사회의 시민들, 즉 유지들을 동원하여 사회의 구석을 밝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그의 노력은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으나 인민혁명을 원하는 공산당은 조만식의 이런 시민사회를 용납하지 못했다.

필자는 아직도 한국사회는 조만식이 가졌던 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기초하면서도 어려운 약자를 배려하고, 가진 자의 기득권과 못 가진 자의 원한이 충돌하는 사회가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이끌어가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아직도 조만식이 가고자 했던 길을 가야 한다. 🐙

외국 유학생이 본 평양



지은이: 주철수
출판사: 좋은땅
출판년도: 2024

“평양공화국”은 북한에서의 수도 평양의 지위를 강조할 때 쓰이는 말이다. 모든 국가에서 수도는 특별한 도시의 지위를 부여받지만, 평양과 평양의 시민들이 받는 특별대우는 다른 나라의 수도, 수도 주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이다. 1990-2000년대 북한 전역에서 지속된 대기근으로 인하여 국가의 모든 기능이 붕괴되고 300만명이 굶어 죽었다던 소위 ‘고난의 행군’ 때도 평양에는 주민들에 대한 식량배급이 멈추지 않았다. 또한 이 시기 모든 도시 기차역마다 굶어 죽은 사람을 볼 수 있었던 것과 달리, 평양의 길거리에서는 아사자를 볼 수 없었다. 이렇듯 평양은 북한과는 다른 나라라는 의미의 “평양 공화국”으로 불리게 된다.

평양은 북한의 수도이자 외부와의 공식적 교류의 무대가 되는 도시로 외부와 단절된 북한의 도시 중 그나마 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된 도시이다.

이런 이유로 평양은 북한의 도시 중 여러 도서와 영상을 통해 가장 많이 다뤄지는 도시이다. 평양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수많은 연구와 평양출신 탈북민들의 수기, 외부 인사들의 방문기가 평양 주민들의 삶을 보여 준다. 평양 주민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중 평양에 일정 기간 주재한 외국인들의 수기가 있다. 이들 대다수는 평양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는 이들로 평양에 체류하며 북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에 노출되지만, 동시에 북한정권이 감추고자 하는 현실을 체험한다. 극소수의 외교관, 사업가, 국제기구 직원, 유학생만이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이들은 평양에 대해 거의 유일한

객관적 관찰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이들이 남긴 회고록, 영상 등의 자료 역시 평양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서 기능한다.

이 책 『평양에서 유학한 4인의 이야기, 외국 유학생이 본 평양』은 각기 다른 시기 1-3년 평양의 김일성종합대학과 김형직사범대학에서 유학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겪은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평양에서 유학하는 유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은 보안과 통제로 인한 스트레스이다. 평양 유학 이전부터 수많은 안전·보안 교육을 받지만, 많은 유학생들은 평양 입국 시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진행되는 소지품 검사를 통해 개인 물품을 압류당하고 경고를 받는다. 기숙사생활도 마찬가지, 당국이 배정한 동숙생과 함께 생활하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는다. 일부 학위과정에서는 보위부 요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교실 뒤편에 상주하여 교수와 학생 간 대화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 이러한 통제 속에서도 유학생과 동숙생 간에는 정이 싹트고 교수와 유학생들은 자신들만의 소통방법을 만들어 우정을 키워 나간다.

유학생들은 관광객 등 단기 방문자들에 비해 훨씬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당국이 진행하는 관광과 유학생으로서의 공식 행사 이외에도 장보기 등의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이 허락된다.

평양의 제일백화점은 북한 상품이 주류를 이루며 물건값이 저렴하여 외국인들이 기념품을 사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서평양 백화점은 가전제품과 의류가 인기가 많고 외화 환율을 후하게 쳐주어 외국인들이 선호한다. 대경백화점은 맥북을 비롯한 미국산 제품이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락원백화점은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TV 등 각종 전자제품부터 가전용품, 생활용품, 먹을거리까지 온통 일본산이며 사장도 일본인으로 알려졌다.

평양의 시장 중 통일거리시장과 능라시장만이 외국인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이 시장들은 깨끗하고 제품의 질은 좋지만, 여타 시장들에 비해 규모가 작고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외모로 외국인임을 구분할 수 없는 중국인 유학생들 중 일부는 북한 주민들만 출입할 수 있는 서성시장 등 대형시장을 이용한다. 관리인을 피해 다니며 즐기는 쇼핑은 유학생들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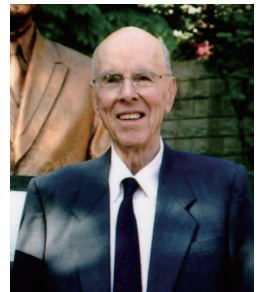
유학생들이 체험하는 특이한 경험 중 하나는 주로 김일성광장에서 이루어지는 최고지도자의 우상화에 동원, 참관의 과정에서 느끼는 미묘한 감정이다. 유학생들은 평양에서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본다고 전한다. 평양사람들이 주로 우는 장소는 김일성광장인데, 9.9절 행사나 노동당 창당 기념식 등이 있는 날은 김일성광장이 온통 울음바다가 된다. 만수대나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지도자에 대한 감정이 격앙되어 눈물을 흘리고 있는 평양주민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김형직사범대학의 교수들 역시 수업 중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평양 출신의 유명인

□ 기독교계 인사

1900년대 전후 평양에서는 다수의 사역자가 활발히 활동하였다. 신학교를 세워 사역자 양성에 힘쓴 마포삼열(Samuel Austin Moffett), 수많은 교회와 학교를 세운 문요한(John R. Moore), 교육과 부흥운동을 주도한 그리암 리(Graham Lee)와 윌리엄 블레어(William Baird), 그리고 길선주 목사, 의료 선교사 윌리엄 제임스 홀(William James Hall)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이들은 교회·학교·의료기관을 설립하며 한국 기독교의 형성과 성장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인물들은 이미 기존의 교회사 연구와 칼럼에서 충분히 다루어져 왔기에, 본지에서는 평양 출신 사역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무엘 H. 마펫(Samuel Hugh Moffett 1916~2015 한국명 마삼락(馬三樂)/마포삼락)은 평양 출생의 미국인 기독교 선교사이자 교회사 학자로, 극동·아시아 기독교사 연구의 권위자이다. 평양에서 장기간 사역한 선교사 마포삼열(Samuel Austin Moffett)의 아들로 태어나 부모의 선교적 유산을 계승했다. 휘튼대학교와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예일대학교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 및 대학원 원장을 지냈고 장로회신학대학교의 공동 총장을 역임했다. 한국에서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현 아신대) 초대 학장(1973~1981)으로 봉사했고, 이후 프린스턴 신학교로 돌아가 선교학 교수(1981~1987)로 재직했다. 저서로는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Asia』 등 다수가 있다. 한국 교회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평생 헌신했으며, 2015년 98세로 뉴저지 프린스턴에서 소천했다. 그의 아내 아일린(Eileen Flower Moffett, 마애린) 모펫 역시 한국 선교에 헌신했고, 은퇴 후에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시아버지 마포삼열의 초기 한국 선교 자료를 수집·디지털화해 한국 기독교 역사 보존에 크게 기여했다.



마삼락(사진출처:국민일보)

‘최권능’이라고 불리는 최봉석(1869~1944)은 평양에서 태어난 장로교 목사로, 평생을 ‘예수 천당’ 외침과 노방전도로 살다 간 인물이다. 한학을 배우고 관리로 일했으나 공금 유용으로 유배되었고, 인생의 실패와 방황 속에서 복음을 접해 회심하였다. 이후 가족과의 이별이라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전도자의

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감정이 고조되어 눈물을 흘리기 일쑤다. 중국인 유학생 우동희는 평양의 주민들과 교수들이 감정이 고조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본인도 비슷한 경험을 하며 평양 주민들의 심정을 다소나마 이해하게 된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이루어지는 1호 행사에 자주 동원된다. 유학생들은 정장을 입어야 하고 휴대폰과 카메라는 물론 열쇠 등 일체의 금속성 물품을 휴대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최고지도자에 대한 의전 분위기에 참가자들은 압도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나타나자 수많은 군중들이 “원수님, 위대한 원수님”을 외치며 울부짖는다. 저자 역시 이러한 행사에 참석했는데 행사 중 저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눈물이 솟구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도자를 흠모하는 마음이 피어오르는 경험을 한다. 저자 역시 “장군님, 장군님”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고 눈물이 쏟아짐과 동시에 “원수님, 원수님, 장군님!”이라 울부짖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저자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행사 이후 내 마음 한구석에는 평양인과 정서적인 공감대가 생겼다. 비록 한 번의 참석이었지만 동류의식이 생겨나고 공감대를 느꼈을 정도였으니 반복될 경우엔 오죽하겠는가? 이런 느낌과 감정이 바로 오늘날 조선을 떠받치고 있는 원동력이 아닐까!”(38쪽) 라는 말로 당시의 깨달음을 표현한다.

저자는 회창의 열사릉에서 한 부부가 땀을 뻘뻘 흘리며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을 인상 깊게 보았다. 그 부부는 자전거를 세우고는 보자기를 가지고 옥수수밭 안으로 들어가 한복을 갈아입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들이 간 곳은 김일성의 동상이었고 거기서 참배를 한 후 작업복으로 갈아입고는 일을 시작한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 저자는 모든 북한 주민들의 행동이 명령이나 간섭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책은 외부 관찰자로서 평양에 거주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평양 생활기이자 관찰기이다. 북한 당국이 보여주하고자 하는 모습은 북한의 가장 세련되고 발전된 모습이다. 그러나 유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북한의 발전, 낙후보다는 북한의 답답한 시스템과 통제이다. 북한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이야 한두 주 참고 견디지만, 유학생들은 최소 반년에서 3년을 버텨내야 한다. 오랜 기간 북한의 통제로 인한 많은 갈등 속에서도 유학생들은 동급생들, 교수와의 우정을 만들어 간다. 또한 평양 주민들이 참석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며 북한 주민들의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 북한 사회의 이해할 수 없는 행사들, 북한 체제가 굴러가는 이해할 수 없는 원리들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평양의 장기 거류 외국인, 외부적 관찰자로서 유학생들이 얻게 된 깨달음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최봉석(사진출처: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

길에 헌신했다. 1905년 식주교회 집사가 된 그는 권서와 전도인으로 활동하며 4년간 30여 개의 교회를 세웠다. 1908년 40세의 나이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해, 재학 중에도 매일 새벽기도와 거리 전도를 쉬지 않아 ‘최권능’이라 불릴 만큼 열정적인 전도자로 알려졌다. 졸업 후 만주와 국경지대에서 약 30여 곳의 교회를 개척했고, 귀국 후에는 산정현교회 전도목사로서 평양 시내에서 계속 노방전도를 이어갔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와 창씨개명을 끝까지 거부하며 총회의 굴복을 강하게 비판했고, 그로 인해 1939년 체포되어 주기철 등과 함께 6년간 옥고를 치렀다. 투옥 중에도 ‘예수 천당’ 전도는 멈추지 않았고, 혹독한 고문을 견뎠다. 1944년 3·1운동 25주년을 맞아 75세의 나이로 40일 금식기도를 한 후, 병보석으로 출옥했으나 같은 해 4월 15일 순교적 삶을 마쳤다. 최봉석 목사는 단순하지만 담대한 전도와 신앙의 절개로 한국 교회사에 깊은 흔적을 남긴 인물이다.



송인서(사진출처:한국기독교공보)

송인서(1867 - 1927)는 평양 출신으로, 한국 최초의 장로교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다. 젊은 시절 방탕한 삶과 불교·도교를 거쳐 인생의 의미를 찾던 중, 1891년 마펏(S. A. Moffett) 선교사와 조사 한석진의 전도로 기독교에 회심하였다. 이후 열정적인 전도자의 길을 걸었다. 1893년 평원군 한천에 한천교회를 설립했고, 황해도 재령군 신환포교회 전도사로 활동했다. 1894년 평안감사 민병석의 개신교 박해로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으나, 홀(W. J. Hall) 등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처형 직전 구출되었다. 같은 해 명당동교회와 죽본리교회를 비롯해 여러 교회를 설립했다. 1895년 세례를 받고 마펏의 조사가 되었으며, 1902년 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에 입학해 1907년 제1회 졸업생으로 길선주, 이기풍 등과 함께 한국 최초의 장로교 목사로 안수받았다. 이후 독로회 임원과 순회목사로 활동하며 한국 장로교 초기 정착과 확장에 크게 기여했다.



이기풍(사진출처:위키백과)

이기풍(1865~1942)은 한국 장로교 최초의 목사이자 순교자로, 1907년 조선예수교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 중 한 사람이다. 평양 출신으로, 한때 기독교 선교를 방해했으나 회심 후 윌리엄 스월런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마펏 선교사에게 사죄한 뒤 신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한국 최초의 제주 선교사로 파송되어 강한 선교 열정을 보였으며, 1919년 광주북문내교회 초대 목사, 1920년 전라도 장로회총회 부회장을 지냈다. 1938년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완강히 거부하고 호남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항거하다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순교했다.

아서 W. 킨슬러(Arthur W. Kinsler, 1934~2024) 목사의 한국명은 권오덕이다. 그는 평양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보낸 미국인 선교사로, 한국 교회의 예배 혁신과 산업선교를 실천한 교육자이자 한국과 세계를 잇는 국제적 가교로 평가받는다. 그는 “평양은 나의 고향”이라 말할 만큼 한국과 깊은 인연을 지녔으며, 일제강점기 고아 교육과 신학교·송실학교 교육에 헌신한 아버지 프란시스 킨슬러(Francis Kinsler, 권세열, 1904~1992) 목사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미국 출신 북장로교 선교사로, 1928년 한국에 들어와 평양 송실학교 교사로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 1929년부터 가난한 청소년들을 위한 성경 교육 모임을 운영해, 이는 이후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로 발전하며 전국적 청소년 운동으로 성장했다. 1940년 일제에 의해 추방되기 전까지 송실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회선교와 무료 봉사활동에 헌신했다. 해방 후인 1948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대구를 중심으로 선교와 성경구락부 운동을 재개했으며, 1951년부터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와 신학교 교장으로 봉사하며 신학 교육에 힘썼다. 1970년 은퇴 후 미국에서 한인 교회를 섬겼고, 1992년 별세했다. 그의 헌신은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족 모두가 한국 선교에 참여했으며, 유해는 2001년 양화진에 안장되었다. 그의 아들 권오덕 선교사는 아버지의 소명을 이어받아 송실전문학교와 장로회신학교에서 교수로 봉사하고, 대북지원단체 ‘등대복지회’를 운영하며 북한 어린이들을 돕는 선교·구호 활동에 힘썼다. 그의 아들 권요한은 한국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5년에 킨슬러 재단을 출범하고 북한 선교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최찬영(1926~2024) 목사는 ‘해방 후 첫 한국 선교사’이자 ‘성경반포 세계 챔피언’으로 불리며, 한국교회의 세계 선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이다. 평양에서 태어나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으며, 신학교 과정을 거쳐 6·25전쟁 중 통역장교와 군목으로 섬겼다. 1955년 영락교회와 장로교총회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1956년 태국 선교를 시작했고, 이후 태국·라오스 성서공회 대표, 세계성서공회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를 역임하며 아시아인 최초로 이 직책들을 맡았다. 이 기간 약 15억 권의 성경 보급에 기여했으며, 중국 난징에 세계 최대 규모의 성경 인쇄공장을 설립해 2억 권 이상의 성경을 현지에서 인쇄·보급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은퇴 후에도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연봉 1달러 교수로 5년간 후학을 양성했고, 2009년에는 한국 선교사로 다시 파송되어 부산 해운대에 거점을 두고 전 세계 선교사들을 섬기는 등 마지막 순간까지 선교사 동원 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권오덕(사진출처:등대복지회)



한경직 목사와 권세열 목사(사진출처: 기독교일보)



권요한(사진출처: 국민일보)



최찬영(사진출처: 미주크리스찬투데이)

□ 독립운동가



위부터 황마리아, 강혜원, 강영승, 강원신 (사진 출처: 위키백과)

황마리아(1865~1937)는 평안남도 평양 출신의 감리회 신자로, 1905년 가족과 함께 하와이로 이주해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며 한인 사회에 정착했다. 1909년부터 독립운동 자금 모금에 참여했으며, 1913년 호놀룰루 대한인부인회에서 재무와 수전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전도·구제 사업을 이끌었다. 3·1운동 이후에는 대한부인구제회를 조직해 약 20만 달러의 애국금을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부상자와 재난 동포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했다. 생계 노동과 신앙·사회 봉사를 병행한 공로로 2017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장녀 강혜원(김혜원, 1886~1982)은 캘리포니아 다뉴바에서 1919년 신한부인회를 조직하고, 미주 여성단체를 통합해 대한여자애국단을 창설한 초대 총단장으로 활동했다. 그녀는 모금 활동을 통해 임시정부, 독립신문, 군사·외교·구호 사업을 지원했으며, 광복 후까지 미주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가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차남 강영승(1888~1987)은 대한인국민회와 한인기독교청년회를 중심으로 법무·교육·언론 활동을 전개하며 미주 한인 사회의 자치 기반을 구축했다. 국어 교과서 편찬과 신한민보 활동, 독립자금 모금과 항일 연대에 기여해 2016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며느리 강원신(1887~1977)은 신한부인회와 대한여자애국단의 지도자로서 미주 여성 독립운동을 이끌며 임시정부와 국내외 동포를 지원했고, 한인 민족교육과 항일 운동에 헌신한 공로로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평양 출신 독립운동가는 적지 않다!

길진형(吉鎭亨, 1891~1917)은 길선주 목사의 장남이며, 신민회 활동과 교사로서 국권 회복 운동에 참여했다. 105인 사건으로 옥고와 고문을 겪은 뒤 해외에서 교포 교육 활동을 했으나, 고문 후유증으로 귀국 직후 사망했으며 사후 대통령표창과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김형직(金亨稹, 1894~1926)은 송실학교를 졸업한 교사 출신으로, 1917년 조선국민회에 참여하고 3·1운동을 주도하는 등 독립운동에 관여했다. 간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뒤 중국 각지를 이동하며 의원을 운영하면서 독립운동과의 연계를 유지했으며, 1926년 31세로 사망했다. 사인은 북한의 주장과 달리 공산주의 단체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형권(金亨權, 1905~1936)은 김일성의 숙부로 국민부 소속 독립운동가였으며, 1930년 군자금 모집 활동 중 체포되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감옥에서 옥사했다.

그 밖에도 평양 출신 독립운동가들은 매우 다양하다. 연길에서 군자금 모집과 일제 밀정 처단에 참여한 고덕수(高德秀, 1900~미상),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 3·1운동과 비밀결사 활동에 나선 권기옥(權基玉, 1901~1988), 105인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김두화(金斗和, 1884~1967), 유관순을 길러낸 여성 독립운동가 김란사(金蘭史, 1872~1919), 친일파 이완용 암살 시도에 가담한 김병록(金丙錄, 1885~미상), 일본 총영사 암살 계획에 참여하다 투옥된 김승은(金勝恩, 본명 김혁, 1915~1945) 등이 있다. 또한 감리회 목사로서 대한동지회와 서북학회에서 활동한 서기풍(徐基豐, 1880~1951), 대동보국회 회원으로 을사늑약 옹호자를 응징한 장인환(張仁煥, 1876~1930), 평양 남산현 교회에서 거행된 독립선언과 3·1운동에 참여해 옥고를 치른 홍원섭(洪園燮, 1870~?), 송죽회를 조직하고 대한애국부인회를 결성해 군자금을 지원한 황애덕(黃愛德, 황에스더, 1892~1971) 등도 모두 평양 출신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이다. 

평양의 대표 음식

평양냉면



옥류관의 평양냉면(사진출처: 연합뉴스)

평양냉면은 오늘날 평양을 넘어 북한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자극적인 맛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숨슴하고 담백한 맛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며, 일부에서는 혹평을 받기도 한다. 반면 그 은은한 맛의 깊이를 한 번 알게 되면 강한 중독성을 느끼며 열광하게 되는 음식이기도 하다. 냉면은 흔히 여름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래는 겨울 음식으로 북한 지역에서는 동짓날에 즐겨 먹었다. 그 기원은 고려시대 몽골의 영향 속에서 전래되어 조선시대에 발달하였으며, 메밀 재배가 가능했던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발전하였다. 문헌상 최초의 기록은 홍석모의 『동국세시기』에 나타난다. 평양냉면은 고려시대 평양 냉천동 일대에서 메밀국수를 동치미 국물에 말아 먹던 데서 유래하였고, 이후 ‘평양냉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순메밀로 만들어 ‘평양순면’이라 불리기도 했으며,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육수에 동치미 국물을 섞어 담백하면서도 시원한 맛을 낸다. 평양냉면은 북한 건국 이전부터 이어져 온 우리 민족의 전통 음식으로, 2022년 11월 30일 ‘평양냉면 풍습’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평양온반

평양온반은 ‘장국밥’의 한 종류로, 가릿국밥과 비슷한 평양식 국밥이다. 평양 지역의 전통 음식이자 겨울철에 즐겨 먹는 별미로, 잔칫날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던 대표적인 음식이다. 온반은 평양뿐 아니라 북한 여러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평양온반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그릇에 밥을 담고 닭·꿩·쇠고기 등으로 우려낸 뜨거운 육수를 부은 뒤, 닭고기나 꿩고기와 버섯·호박·당근 같은 채소, 계란지단을 곁들여 올린다. 여기에 녹두지짐(녹두전)을 함께 얹는데, 이는 음식이 빨리 식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평양온반은 양념장과 나박김치, 물김치 등을 곁들여 먹는다. 현대 북한에서는 평양온반의 재료로 닭고기만을 사용하며, 국영식당에서는 밥 위에 닭고기와 녹두지짐, 버섯 곁들이를 올리고 닭고기 육수를 붓는 방식으로 조리법이 표준화되어 있다. 조리가 비교적 간단하고 차림이 편리해 평양과 평안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즐겨 먹었다. 온반의 유래에 관한 설화에 따르면, 평양 관가에서 일하던 ‘형달’이라는 총각과 ‘의경’이라는 처녀의 사랑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진다. 억울하게 옥에 갇힌 형달을 위해 의경이 밥 위에 지짐을 얹고 뜨거운 국물을 부어 가져다준 음식을 ‘온반(더운 밥)’이라 부른 것이 시작이며, 이후 두 사람이 혼례 잔치에서 이 음식을 대접하면서 평양 지역의 잔치 음식으로 자리 잡아 전국으로 퍼졌다고 한다. 또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오찬 메뉴로 소개되면서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



평양온반(사진출처: 바이두)

참고

주영하, 「분단 이전 북한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서울:열린책들, 2023)
김양희, 「평양랭면, 멀리서 왔다고 하면 안되잖구나」 (서울:폭스코너, 201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0

평양의 사람 사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80년대 초반에 평양에서 태어나서 2000년대 후반에 한국으로 온 ○○○입니다. 가족들이 중앙당에서 계셔서 어머니가 저를 평양 산원에서 낳았고 평양시 중구역에서 살다가 남한으로 오게 됐습니다.

북한에서 평양을 자부심 있게 부르는 표현이나 별칭이 있나요?

‘혁명의 수도 평양’, ‘공화국의 심장’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평양에는 아무나 거주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규정이 있나요?

그런 법은 없어요. 법에는 인민 모두 평등하게 살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배급도 평양에 우선으로 공급되고, 그 이후에 지방에 할당되는 방식으로 차이가 나죠. 그런데, 법이고 뭐고를 떠나서 지방사람들이 평양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굳이 “오지 못한다”고 법을 만들 필요도 없죠.



보통강구역에 건설중인 아파트 공사 현장. 보통강구역에는 중앙당 고위 간부들이 다수 거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출처: Daily NK)

그러면 평양 사람이 지방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부부가 떨어져 살 수도 없고..

결혼할 수는 있죠. 평양 사람이 결혼해서 지방으로 내려갈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느 바보가 자원해서 지방으로 내려가겠어요? 평양 시민의 특권을 포기하고 내려가지는 않죠. 반대로 지방 사람이 평양 사람과 결혼한다고 해서 평양에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연애만 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 평양사람은 평양 사람끼리만 결혼 하는군요.

그렇죠. 평양 사람은 평양 사람끼리만 결혼하죠.

평양 주민들 사이에도 신분 차이가 있나요?

평양 사람이라고 다 같지 않아요. 상위층, 중위층, 하위층으로 나뉘죠. 그 기준은 권력이에요. 중앙당 간부는 상위층에 속하고 경찰, 검찰 등 공무원은 중위층, 일반 노동자들은 하위층에 속해요. 물론 하위층이라 해도 형편은 지방 주민들보다 더 나은 건 사실이죠. 다들 평양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 잘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평양에 공장이 많아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평양 사람들이예요.

평양은 구역별로 차이가 있나요?

네, 차이가 커요. 한국도 같은 서울이지만 강남이 강북보다 더 잘살잖아요. 평양은 더 심하죠. 대표적으로 잘사는 곳은 모란봉구역, 보통강구역, 중구역 그리고 대동강구역 일부 정도예요. 중구역과 모란봉구역은 평양에서도 중심지고요, 보통강구역은 이전부터 중앙당 간부 아파트가 많은 곳이에요. 대동강구역은 강가에서 문수사거리까지만 잘살아요. 이곳에 평양산원, 불령장, 체코 대사관, 평양음악무용대학 등이 있죠. 이 네 곳이 노른자위 구역이에요. 그 외 나머지 외곽은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 구역은 어떤가요?

평양 외곽지역은 지방 농촌과 비슷해요. 중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순안구역, 용성구역, 삼석구역, 강동군, 강남군 같은 동네는 촌이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촌놈’이라고 불렀어요. 대성구역은 김일성종합대학이 있어서 유명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사는 곳은 촌과 같아요. 물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촌에 산다”, “촌놈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중심지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 뿐이에요.



평양시 중심 11개구역 평양의 각 구역 중 모란봉구역, 중구역, 평천구역, 보통강구역은 중심지로 인식된다. (그림 출처: 국민일보, 객인옥 교수의 평양 시장경제 리포트)

그래도 똑같은 평양 사람들이지요?

그렇죠. 지방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똑같은 평양사람들이고, 평양에서도 차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처럼 중심구역에 사는 사람들이 콧대가 높아서 주변구역을 그렇게 비하하는거죠.

평천구역 미래과학자거리에 은하 타워와 같은 고층 건물이 세워졌는데 이곳은 어떤가요?

제가 평양에 살 때 평천구역은 중구역과 붙어있어서 촌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화력 발전소가 있어서 공기가 안 좋고, 먼지 때문에 길거리도 까맣고, 사람들 얼굴도 까맣던 기억이 나요.

만경대구역에도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섰는데 이곳은 어떤가요?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건설된 대평지구 아파트 단지 (사진 출처:SPN)

만경대구역 광복거리에 3-50층 고층 건물을 많이 세웠어요. 광복 백화점도 마치 명동 신세계 백화점처럼 크게 지어져 있어요. 그럼 ‘핫’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구역 사람들은 광복거리도 ‘촌’이라고 불렀어요. 아무리 인프라가 잘되어 있어도 평양 중심에서 벗어나 있어서 그렇게 불린 거죠. 화성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섰어도, 평양 중심과 멀면 ‘핫’하지 않아요. 아무리 멋진 건물을 세워도 중구역 모란봉구역이랑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죠.

중구역은 평양에서도 중요한 구역이라 단속이 심하다던데, 맞나요?

네, 중구역 사람들은 공식적인 행사가 많아요. 이 구역에 김정은 집무실도 있구요. 그래서 대학생 단속대(규찰대)가 골목, 지하보도(횡단보도) 입구, 버스 정류장, 사거리, 지하철역 입구마다 서서 주민들의 옷, 머리모양, 신발 등을 단속해요.

중구역 말고 또 이렇게 단속하는 구역이 있나요?

모란봉구역도 비슷해요. 평양 1백화점 뒤로 가면 호위사령부가 나오고 거기서 내려가면 개선문이 나와요. 그리고 모란봉 을밀대도 있고, 대동강 맞은편에 주체사상탑도 있고, 만수대 동상, 김일성 광장, 인민법원 다 그곳에 있어요. 이런 중심지에는 규찰대가 많죠. 그 외에 다른 구역은 이렇게 심하지 않아요.

주민들은 김정은이 사는 15호 저택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까요?

네, 알고 있을 거예요. 참고로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창광거리에 김일성 집무실이 있었는데 그 때도 사람들이 다 알죠. 그 자리는 김정은이 허물고 예술인 아파트를 지었어요.

보통강구역은 당중앙 간부들이 많이 산다고 하셨는데, 다른 구역은 어떤가요?

아버지와 모란봉구역에 자주 갔었는데, 여명거리에서 재포(북송재일교포)들이 많이 살았어요. 아버지가 재포들과 친분이 있어서 집에 가봤는데 정말 잘 살더라고요. 그리고 모란봉구역은 한국에 강남같은 곳이라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말하자면, 중구역은 서울로 치면 정부종합청사 있고 청와대 있는 종로 같은 느낌이고, 모란봉구역은 변화하고 세련된 강남 비슷한 느낌이에요.



평양시 중구역 경루동에 건설된 고급 살림집 단지. (사진 출처: Daily NK)

예전에 재일동포들이 잘살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전에는 일본에서 돈을 많이 보내줘서 잘살았죠. 돈 많던 시절에 돈으로 권력을 산 사람들은 아마 지금도 먹고살 만할 거예요. 돈이야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만 권력은 그래도 돈보다는 오래 가잖아요. 돈만 쥐고 있던 사람은 돈 다 쓰면 망했겠죠.

평양에 화교들도 많았죠?

이전에 화교들은 가난했죠. 당시 중국은 그렇게 잘살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대동강구역에서도 문수사거리 밑으로 많이 살았어요. 사동구역과 인접한 지역이에요. 외곽지역이죠. 그러다가 고난의 행군 때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면서 화교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예전에 북한에서는 잘사는 사람들만 일본 가전제품을 사용했어요. 아파트에 일제 컬러TV 있는 집이 몇 집 안 되고 다 흑백 TV 봤어요. 그런데 고난의 행군 시기 지나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 컬러TV가 많이 보급되었어요. 그래서 화교들이 돈 많이 벌었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떠났을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살 필요 없잖아요.

대동강구역에 문수물놀이장을 정말 잘 꾸며 놓았더라고요. 그런 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평양 문수물놀이장. 문수물놀이장은 2012년 개관했다. 물놀이장 개장 이전 이 자리에는 문수원이라는 소규모 워낙시설이 있었다. (사진 출처: 대통력기록관)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있을 때도 평양은 부정부패가 엄청 심했어요. 모든 게 다 돈으로 되는 세상이에요. 예전에는 문수물놀이장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고 문수원이라고 했거든요! 원칙적으로 문수원은 표를 그 구역에 사는 인민들에게 국정가격(1원, 2원, 3원)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민들은 표를 구할 수 없어요. 인맥이 있거나 권력

이 있어야 표를 살 수 있거든요. 고난의 행군 시기가 지나면서 평양에 배급이 절반으로 줄고, 기업들은 알아서 벌어들여 먹으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때부터 공장, 식당 모든 기업이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된 거예요. 문수원도 예외가 아니었죠. 입장표를 국정가격으로 팔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에게 5달러, 10달러 받고 파는 거예요. 부자들만 이용하는 거죠.

고난의 행군 때 그래도 평양은 배급이 나왔군요?

네, 제가 나올 때 배급은 절반 정도 나왔어요. 전보다 줄었지만, 계속 나왔어요. 전기공급은 하루에 8-12시간으로 단축되었구요. 물은 매일 나오다가 2-3일마다 나왔어요.

고난의 행군 때 평양에서도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나요?

모란봉구역, 중구역, 보통강구역, 대동강구역 같은 중심지에서는 없었어요. 물론 평양 외곽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도 없었을 것 같아요. 평양은 북한의 얼굴이고 심장인데 국가에서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평양에 그런 자들이 있으면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돈 많은 지방 사람이 평양으로 이사가는 경우도 있죠?

네,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에 국정이 문란했어요. 지방에 있는 당 간부들, 군 간부들, 돈주들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밀수 등으로 돈을 모아서 편법으로 평양 거주증을 샀어요. 제가 살던 아파트에도 어느 가정이 지방에서 왔었어요. 알고 보니 무력부 산하 외화벌이 담당자였어요. 제 생각에는 몇만 달러는 쓴 것 같아요. 이것도 그때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힘들어요.金正은이 엄격하게 막고 있어요. 평양 사람과 결혼해도 평양에 못가는 상황이니깐요.

대동강구역에 대사관들이 많은데 외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나요?

네, 체코, 이집트, 캄보디아 대사관 등이 있어요. 대사관이 있어서 외국인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중구역, 모란봉구역 시내에 나가면 외국인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코스가 다 중구역, 모란봉에 모여 있으니까요. 외국인들이 학생들에게 질문 할 걸 대비해서 평양 중심구역에 사는 학생들은 문제집을 암기해요. 예를 들면 “만경대는 어떤 곳인가? 주체사상탑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만수대예술극장은 어떤 곳인가? 붉은 넥타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외웠다가 외국인들이 질문하면 대답해야 했죠. 다른 구역에서는 외국인들 볼 기회가 거의 없죠.

외국인들은 대동강구역에 있는 주체사상탑 승강기를 타는데 보통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나요?

어려워요. 간부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타고요. 일반 인민들은 돈 있다고 마음대로 탈 수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 전 즈음인가? 일반 주민들도 돈내면 탈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김일성광장을 마주보고 있는 주체사상탑은 평양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다.

평양 옥류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네, 돈만 많으면 돼요. 다른 곳보다 비싸요. 제가 있을 때 옥류관 표 한 장당 500원이었어요. 쌀 3kg 값이죠. 일반 식당 냉면은 5원 정도니깐 100배 비싸죠.

평양에서 냉면 이외에 유명한 음식이 무엇인가요?

단고기(보신탕) 유명하죠.

단고기 요리로 유명한 식당은 어디인가요?

그때 역전 단고깃국집, 종로 단고깃국집이 유명했어요.

김일성 광장 대동문에 쇠사슬이 있는데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제너럴 셔먼호에서 나온 쇠사슬이라고 알고 있어요. 보통강쪽에 보면 푸에블루호 승리 기념하는 데도 있어요. 배에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나중에 미국과 협상했다고 배웠어요. 미국에 이겼다는 식으로 강조하는 거죠.

보통강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전시된 푸에블루호, 북한은 미국에 대한 승리의 상징으로 대동강변에 푸에블루호를 대동문에 제너럴셔먼호에서 노획했다는 쇠사슬을 전시하고 있다. (사진 출처: 통일뉴스)





평양 시내를 운행중인 무궛도전차
(사진 출처: KBS)

평양에 대중교통은 편리한가요?

평양은 진짜 대중교통이 잘되어 있어요. 지하철 있죠, 무궛도차 있죠, 궤도차 있죠, 버스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다 무료였어요. 또 자주 있어요. 5-10분마다 다녀요.

고난의 행군 때 다른 도시는 대중교통이 다 무너졌는데, 평양은 괜찮았나요?

그럼요! 평양, 특히 평양 중심부는 고난의 행군 때도 배급 절반으로 줄어든 것 빼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어요.

지하철을 대동강 동쪽으로 연장하려다 계속 못 하고 있다죠?

대동강 밑을 뚫으려고 했는데 실패해서 동평양까지는 노선이 못 뻗어나가고 있죠. (지하철 하저터널 공사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던데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평양에 마약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흔해요. 인민들의 절반 이상은 마약을 할 거예요. 제 친구들도 주머니에 마약을 넣고 다녔고, 제가 알기로는 인민무력부 간부들이 마약을 많이 팔았어요.

절반이 마약에 중독됐는데도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 북한 마약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나봐요?

마약으로 건강을 잃은 사람은 잘 못 봤어요. 마약을 해도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폐인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제 친구들은 마약 한번 하더니 3일 동안 잠을 한숨도 안 자고 한국 드라마를 보더라고요. 나중에 마약에서 깨니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구요. 또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나니까 멀쩡하던데요? 그 친구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평양에서도 한류 바람이 있었나 보군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 많이 보죠. 일부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봤어요.

평양이 공화국의 심장인데, 남한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네요.

오히려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일수록 단속 신경 안 써요. 힘 있는 사람을 누가 단속하겠어요? 지금은 다룰 수 있지만 예전에는 심지어 식당에서 마약을 하기도 하니깐요.

그러면 평양에 계실 때 개성공단 물건도 유통되었나요?

네, 옷이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만들어서인지 품질이 좋았어요. 저도 조끼나 바지를 종종 사서 입었어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돈벌이가 좋다고 들었어요.

평양에 있는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예배당을 들어보셨나요?

네, 교회 옆으로 자주 지나다녔어요. 교회라는 건 아는데 인민들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총살당할 일 있나요? 그 교회들은 외국인 전용이에요.

평양에 계실 때 기독교에 관련된 소식을 들은 적이 있나요?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김일성이 80년 때까지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숙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김일성이 교회에 아주 적대적이었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평양은 이런 도시다’ 한 말씀 해 주세요.

평양은 북한의 중심도시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되고, 완벽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곳이에요. 다른 지역이 망하든지 말든지 평양만큼은 온전하게 보존되어야 하는 곳이죠. 한마디로 평양은 “김정은의 얼굴이자, 웃이자, 외모입니다.”



평양에 위치한 봉수교회(위쪽)와 칠골교회(아래쪽) (사진 출처: 당당뉴스)

언론에 비친 평양

최근 1년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평양 소식

방학 맞아 외국어 과외 열풍...단속·통제에도 교육열 뜨거워



(참조: 데일리NK, 2026.1.9)

북한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아 외국어 과외 열풍이 대도시를 넘어 지방 소도시까지 확산되고 있다. 당국의 사교육 단속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능력이 취업·소득·사회적 기회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외국어 과외는 사실상 필수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외 지역 학부모들이 자녀를 시내 중심으로 보내 친척·지인 집에 머물며 과외를 받게 하거나, 방학 동안 집중적으로 외국어를 배우게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외국어 과외는 점차 체계화돼 하루 2시간, 주 3~5회 수업을 기본으로 기초·중급·고급반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과외비는 기초반의 경우 쌀 20~30kg, 중·고급반은 중국 돈 200~300위안(한화 4~6만원)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어와 중국어가 가장 인기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어를 배우려는 학생도 증가하고 있다.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관광지와 상업시설 종사자에게도 외국어 능력이 요구되면서 외국어 학습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다. 외국어를 하면 더 많은 손님을 상대하고 수입과 인맥을 늘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외국어 과외는 특정 진로를 넘어서 더 많은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사교육 단속은 계속되고 있으나, 단속 주체들조차 자녀를 과외시키는 현실로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로 인해 사교육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으며, 실력 있는 과외 교사들은 학생을 제한하며 높은 과외비를 받을 정도로 외국어 과외는 고소득 부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평양 여러 단위에서 ‘불순물’ 시청·유포 단속...살얼음판

북한 평양에서 당국이 한국 영상·노래·전자도서 등 이른바 ‘불순물’의 시청과 유포를 강력 단속한 결과, 여러 기관과 사업소에서 관련 사건이 연이어 적발됐다. 국가보위성은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위를 집중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2025년 11월 한 달간 비공개 검열이 진행됐다.

그 결과 조선중앙사진선전사, 평양해운사업소, 평천구역 식료품종합상점, 평양골프장 등에서 한국 노래와 전자도서, 신문·그림 자료 등이 퍼져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보위성은 이를 국가적 반간첩 문제로 규정하며 연말까지 단속과 검열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고, 단속 조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당국은 불순물 유포를 ‘적들의 지령 전달 통로’로 규정하고,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적대 세력의 움직임이 있다며 모든 단위와 인민반까지 감시를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잇따른 적발로 간부와 주민들 사이에는 언제든 누군가가 끌려갈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가 커지며, 평양 전반에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참조: 데일리NK, 2025.12.9)

평양시 학생들도 ‘빼빼로데이’ 즐긴다?…청년동맹 차단 나서



(참조: 데일리NK, 2025.11.11)

한국의 ‘빼빼로데이’ 문화가 북한 평양 학생들 사이에 퍼지자, 평양시 청년동맹이 이를 자본주의 사상 침투로 규정하고 강력한 차단에 나섰다. 청년동맹은 11월 11일을 앞두고 각 학교에 포치문을 내려, 막대 과자나 사탕을 주고받는 행위를 ‘비사회주의 행위’로 엄중히 다루라고 지시했다.

일부 학생들이 수입 과자를 준비해 친구들에게 선물하고 이를 촬영하며 남한 문화를 흉내 내는 동향이 포착되자, 청년동맹은 이를 사회주의 도덕 기풍을

해치는 행위이자 사상 진지를 위협하는 문제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 사상검열대를 조직해 학생 가방 검열을 실시하도록 했고, 적발 시 학생뿐 아니라 부모, 담임교사, 청년동맹·소년단 지도원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몰래 주고받으면 된다고 빼빼로데이를 은밀히 즐길 계획을 세우고 있고, 교사와 지도원들은 통제에 어려움을 느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오히려 강력한 단속과 선전으로 인해 빼빼로데이를 몰랐던 학생들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 역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 중심부서 대규모 화재…“건물 한 채 전소된 듯”



(참조: 동아일보, 2025.11.11)

통일부가 2025년 11월 11일 북한 평양 중심부의 건물 한 개동에서 화재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10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NK NEWS)도 지난 2일 평양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공장 또는 창고로 보이는 건물이 전소했다고 보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11월 2일경 (평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위성 기반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성 영상을 확인해보니까 화재 흔적이 있는 건물이 1개동 있었다”며 “가로 세로 50m 크기의 건물이고, 어떤 용도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NK뉴스는 평양 중심부의 류경호텔과 한국전쟁박물관 근처에

서 2일 오전 11시 50분경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이 플래닛랩스 위성 영상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3일과 4일의 위성 영상에는 검은 연기와 바닥이 드러나 있는 건물의 모습이 포착됐다. 전문가들은 이 건물이 소규모 공장 또는 창고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특히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간으로 정부 기관 건물은 아니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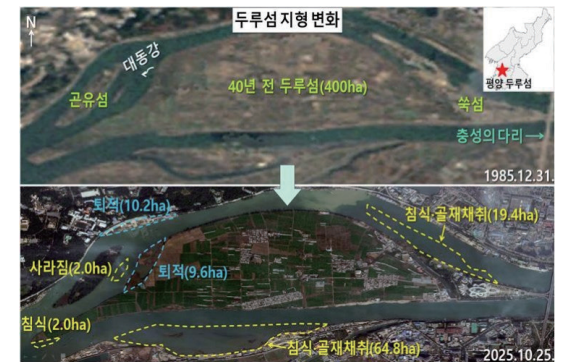
평양 두루섬 40년 지형 변화와 무인도 해체

2025년 10월 25일 위성사진 분석 결과, 평양시 낙랑구역 대동강에 위치한 두루섬과 주변 무인도에서 지난 40년간 심각한 지형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의 퇴적 작용으로 약 20ha의 새 육지가 형성된 반면, 하천 침식과 무분별한 골재 채취로 약 88ha의 땅이 사라졌다.

특히 두루섬 남서쪽에 위치한 무인도 두단섬(대끼섬)은 골재 채취와 해체 작업이 가속화되면서 급격히 축소됐다. 본래 3.6ha 규모였던 두단섬은 올해 6월 이후 빠르게 훼손돼 10월 말 기준 약 1.3ha만 남았으며, 원래 면적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위성사진상 골재 채취선이 섬 주변에 집중돼 있어, 연내 완전히 수몰돼 사라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두루섬 자체에서도 지난 수십 년간 크고 작은 침식과 지형 훼손이 이어졌다. 두루섬 좌측의 소형 무인도(약 2ha)는 완전히 사라졌고, 서·동·남측에서도 수십 헥타르 규모의 토지가 침식 또는 골재 채취로 유실된 것으로 분석됐다. 두루섬은 원래 습지와 식생이 발달한 하중도였으나, 현재는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재배지로 전환돼 평양시 채소 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단섬 해체가 평양시 주택·도로 건설을 위한 골재 확보 목적일 가능성이 크지만, 과거 북한이 중국과 모래 수출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고려할 때 외화 획득을 위한 대중국 골재 수출 전략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북한산 모래와 자갈은 유엔 대북제재 금수 품목으로, 이러한 골재 채취는 국제 제재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대동강 하천 지형 변화와 습지 생태계 훼손 등 심각한 환경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참조: 데일리NK, 2025.11.04)

中 기업 관계자들, 대거 평양행... 제재 받았던 기업도 포함



(참조: 데일리NK, 2025.10.29)

과거 북한과 거래했던 중국 기업 관계자들이 평양을 방문해 북중 무역 확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운데에는 과거 대북제재를 위반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물자를 지원했던 홍상그룹도 포함돼 있다. 중국 기업들은 2025년 10월 29일 중순 이후 베이징-평양 항공편을 이용해 방북했으며, 실제로 해당 노선은 고려항공이 운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상그룹은 과거 2011~2015년 사이 5억 달러 이상 규모의 북중 무역을 수행했으나, 2016년 제재를 어기고 산화알루미늄 수출과 자금세탁 지원 혐의로 미국과 중국 양국의 제재와 처벌을 받았다. 이후 한동안 활동이 드러나지 않았던 이들 기업이 최근 다시 북한과의 거래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방북에서 논의된 구체적 품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철광석·석탄·알루미늄 등 광물 수출입이 핵심 의제로 거론되고 있다. 과거 북한 광물을 수입했던 다른 중국 기업들도 수입 확대를 위해 평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 역시 중국 기업의 광산 개발 참여와 생산 설비·기술 투자를 유도하며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제재 속에서도 북중 간 대규모 자원 거래와 무역이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평양시, '인구 정리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주민 추방 진행

2025년 10월 말 현재 북한 평양시가 안전기관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민 추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인구 정리 사업'으로 불리는 이번 조치는 9월 말부터 본격화됐으며, 시 안전국이 주도해 10월 말까지 대규모 추방을 실시하고 11월 말까지 잔여 대상자 추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추방 대상은 최근 3년간 비사회주의 행위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등으로 노동교양이나 노동단련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주민들 가운데, 당국이 사상 동향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추방자 명단'에 오르는 즉시 평양에서 쫓겨나 지방으로 강제 이주되며, 이번 조치의 특징은 과거와 달리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함께 추방하는 강경한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강구역, 대성구역, 중구역, 평천구역 등 평양 중심지에서 추방 사례가 잇따르면서 시민들 사이에는 큰 충격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주민들은 언제 어느 집이 지목돼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고 있으며, 특히 가족 전체가 한꺼번에 쫓겨난다는 점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처벌 전력이 있는 주민들은 사소한 이유로도 가족이 모두 내몰릴 수 있다며 불안에 떨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추방이 단순한 사상 통제나 인구 관리 차원을 넘어, 평양 주택을 비워 지방 출신 주민들을 입주시킬 목적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파병 전사자 유가족을 위해 대성구역에 '새별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이후여서, 지방의 유가족을 평양으로 들이기 위해 기존 거주민을 내보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추방된 주민들은 '쫓개민'으로 불리며 낮은



(참조: 데일리NK, 2025.10.23)

평양 ‘큰손’ 부부 공개처형… 어린이·청소년들까지 장면 목격



(참조: 데일리NK, 2025.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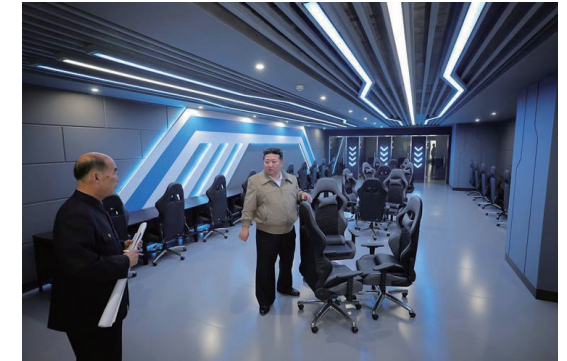
2025년 9월 중순 평양 송산·송화지구 미림 인근 공터에서 개인 사업으로 큰돈을 벌어들인 50대 부부가 주민들 앞에서 공개 처형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당초 사격장에서 집행될 예정이던 총살이 갑자기 공개 장소로 변경됐고, 시장 관리원과 매대조장 등 200명 넘는 주민이 강제로 참석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주민들과 지나가던 중학생들까지 제지 없이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부는 전기자전거·배터리 오토바이 관련 부품의 판매·수리·대여 등 개인 영업망을 운영하며 송산장마당의 ‘큰손’으로 불렸으나, 당 외곽지구와 결탁해 외화를 불법 유통하고 반공화국 선전물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이 적용됐다. 8월 체포돼 합동조사를 거쳐 9월 초 사형이 확정됐으며, 연계된 주민 20여 명도 교화형이나 추방 처분을 받았다.

처형 이후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며 장마당 거래가 급감했고, 관련 부품 가격 급등과 거래 중단 등 경제적 위축도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공개처형에 노출됐다는 점은 주민 통제를 위해 공포를 주입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사례로 지적된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누구든 본보기로 처벌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평양 화성지구 PC방 이용 실시간 감시돼… 통제 속 문명 생활?

평양 화성지구에 새로 들어선 ‘컴퓨터 오락관’(PC방)이 실제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 전 과정이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 아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락관은 매일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되며, 이용자는 신분증이나 학생증을 제시하고 출입대장에 입·퇴장 시간과 사용한 컴퓨터 번호까지 기록해야 한다. 월 단위 이용권을 구매한 경우 전자출입카드를 사용하지만, 이 역시 모든 이용 내역이 등록·관리된다.



(참조: 데일리NK, 2025.09.03)

시설 내 컴퓨터는 북한 내부망인 ‘광명망’만 접속 가능하고 외부 인터넷은 완전히 차단돼 있다. 접속 기록과 실행 기록은 자동 저장되며, 모든 화면은 중앙 관리실에서 실시간으로 감시된다. 관리 요원들은 수시로 순찰하며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언행이 발견되면 즉시 상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안전부와 보위부의 정기 검열도 병행된다. 이는 주민들에게 제한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정보 유출과 사상 이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겉으로는 문명 생활과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용자들이 항상 긴장 속에서 행동해야 하는 구조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시설을 단순한 오락 공간이 아니라, 욕구를 일정 부분 해소해 주는 대신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전략적 시설’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보여주기용 시설에 불과하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온다.

이용자는 주로 대학생과 고급중학교 학생들이며, 경마·자동차·자전거 경주 등 단순한 게임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용료는 시간당 북한 돈 5,000원 정도로, 카드나 휴대전화 전자결제도 가능하다. 음료, 과자, 출력·복사 서비스도 유료로 제공되며, 이 수익은 당국과 청년동맹 기금으로 귀속된다. 북한은 향후 원산, 신의주, 함흥 등 다른 주요 도시에도 유사한 시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스크바-평양 첫 직항 여객기 운행 개시



연합뉴스 자료: 러시아 항공청

김토일 기자 kmtol@yna.co.kr/20250727

(참조: 연합뉴스, 2025.07.27)

으며 빠르게 매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러시아-북한 간 직항 항공편은 블라디보스토크-평양 노선만 있었다. 이번 직항 개설은 양국이 지난해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이후 교통 협력이 강화된 흐름의 일환이다. 양국은 두만강 자동차 교량 착공과 함께 중단됐던 직통 열차 운행도 최근 재개했다.

러시아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을 잇는 직항 여객기가 2025년 7월 27일 첫 운항을 시작했다. 러시아 항공사 노드윈드가 주 2회 운항을 요청해 러시아 항공청의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는 수요 창출을 위해 월 1회 운항한다.

해당 노선은 보잉 777-200ER 기종으로 비행시간은 약 8시간, 최대 440명이 탑승할 수 있다. 항공권 가격은 약 77만 원부터 시작됐

평양시 림흥·전위거리 고층 아파트 세대에 불시 전기 검열

평양 화성지구 림흥거리와 서포지구 전위거리의 고층 아파트 세대를 대상으로 전기검열이 실시되고 있다. 평양시 인민위원회는 모내기철 농촌에 전기를 집중 공급해야 한다며, 주민들에게 전기난방과 주방 전기히터 사용을 전면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인민반 회의에서는 “전기 절약으로 나라 농사를 돕자”는 선동이 이어졌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들은 전기난방을 전제로 설계된 최신식 주택이어서 주민들은 전기 사용을 ‘권리’로 인식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일부는 몰래 사용하자는 말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화성구역과 형제산구역 인민위원회는 불시 전기검열을 단행해,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대에 무작위로 세대를 선정해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세대에서 전기난방 사용 흔적이 적발됐고, 일부는 시 방송으로 통보되기도 했다.

현재도 불시 검열이 이어지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검열을 피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대응 요령이 퍼지고 있다.



(참조: 데일리NK, 2025.05.21.)

北, 차량 렌트 사업 시범 운영... 평양 화성구역 중심으로 시작



(참조: 데일리NK, 2025.0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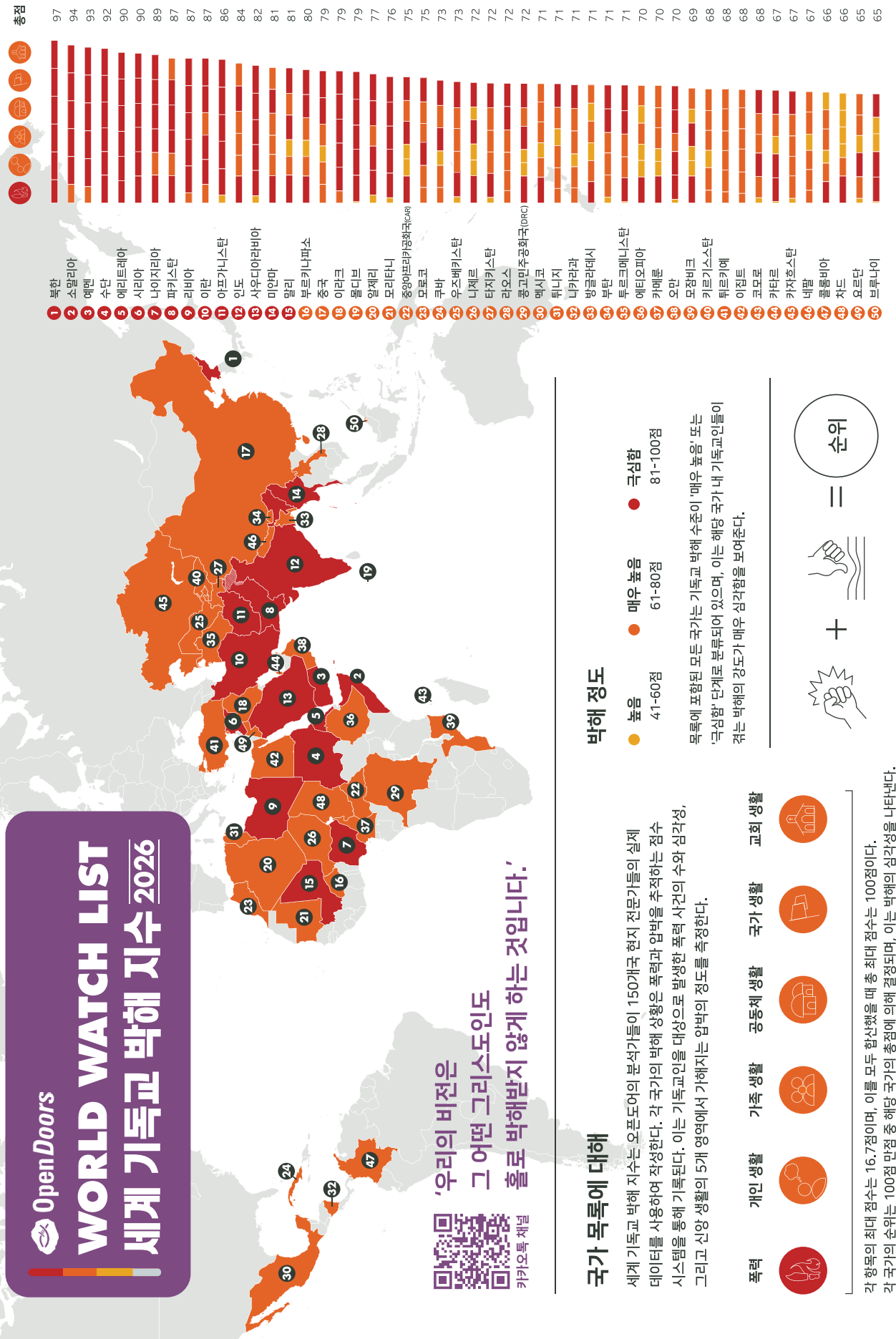
북한이 최근 평양 화성구역을 중심으로 차량 임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새로운 서비스업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기존 자동차 정비소(륜전기재봉사소)가 수리 기능에 더해 승용차·전기차를 시간·기간 단위로 빌려주는 복합형 사업소로 전환되고 있다.

이 사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침에 따라 중앙이 주도한 프로젝트로, 당·내각·평양시와 화성구역 인민위원회가 참여해 '수도 선도형 모델'로 추진 중이다. 2025년 5월 현재 화성구역 아미산자동차 기술봉사소가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임대료는 약 100달러 수준이다.

운영 방식은 돈주들이 차량을 구매·등록해 봉사소에 공급하고, 수익을 국가기관과 나누는 구조로, 실질적으로는 국가보위성 산하 무역회사의 수익 사업으로 알려졌다. 진입은 무역회사·특수기관·대

형 돈주 중심으로 제한돼 있다.

현재 평양 내 5곳의 봉사소가 운영 중이며, 함흥·원산에서도 시범 사업이 시작됐다. 다만 차량 수와 이용 지역이 제한돼 아직 초기 단계로, 향후 1~2년간 수요 조사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오픈도어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2026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에서
한국 교회의 북한선교와 통일 준비를 돕기 위한
제13회 북한선교학교를 개최합니다.
북한선교와 통일을 위한 일꾼으로 준비될
소중한 기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정 및 시간

4월 6일 - 6월 29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진행 형식

온라인(Zoom) 강의 /

오프라인 기도회 및 아웃리치 진행

일정(예정)

주차	날짜 (매주 월요일)	강의 주제	강사
1	4월 6일	개회예배, 오리엔테이션	
2	4월 13일	북한의 정치와 사상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
3	4월 20일	북한의 사회와 문화	최 설 (북한대학원대학교)
4	4월 27일	북한의 종교와 교회	유관지 (북녘교회연구원)
5	5월 4일	북한의 종교 박해 실상	김바울 (북한지하교회출신 사역자)
6	5월 11일	미디어를 통한 북한선교	성훈경 (북방선교방송)
7	5월 18일	북녘을 바라보는 기도회 (DMZ)	
	5월 25일	휴강(대체공휴일)	
8	6월 1일	NGO를 통한 선교와 국제협력	정인수 (NKCCC)
9	6월 8일	국내정착 탈북민선교와 통일목회	정형신 (뉴코리아교회)
10	6월 15일	제 3국 북한선교 현장이야기	현장사역자1
11	6월 22일	제 3국 북한선교 여성사역 이야기	현장사역자2
12	6월 29일	북한 지하교회와 그루터기 성도	현장사역자3
	7-8월	비전트립	

회비

- 10만원(DMZ기도회, 비전트립 별도)
- 신학생, 선교사, 목회자, 탈북민, 그리고 이전에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를 수료하신 분의 경우 회비의 30%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체 수강의 경우 별도 문의)

접수

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2월 23일 ~ 3월 31일)

문의

다니엘 선교사 (info@opendoors.or.kr / 050-6722-8448)

